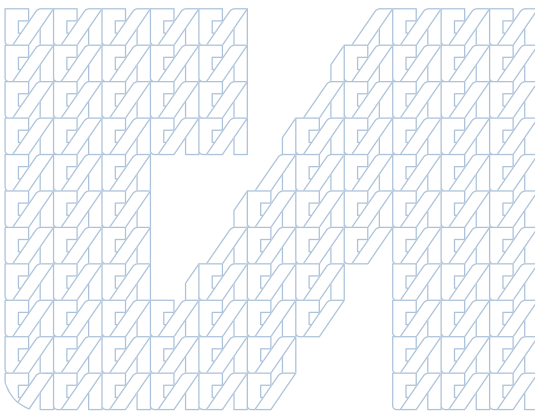


세종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

최성은



연구책임

- 최성은 / 세종연구실 연구위원

조사원

- 정승대 /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정책연구 2018-49

세종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방안

발행인 박 재 목

발행일 2018년 11월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선화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si.re.kr>

인쇄처 신진기획인쇄사 (전화: 042-638-788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주요내용 요약

■ 연구 배경과 목적

- 세종시 저출산 대응 정책은 타 광역시·도의 정책을 답습하기 보다는 세종시 인구 구성의 특성을 감안한 독자적인 전략을 취해나가야 함
- 세종시는 17개 광역시·도 중 출산율이 가장 높음. 소멸위험지수(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 비율로 지방소멸 가능성을 측정)도 낮아 소멸 저위험지역으로 분석된 바 있음(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2018, 42쪽)
- 또한 세종시는 출범 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바, 시행 중인 관련 정책들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본 연구는 복잡한 사회현상인 저출산 현상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시각화 작업을 실시함
 - 획일적·일률적인 정책 벤치마킹이 효과성이 떨어지는 만큼,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해 세종시의 차별성과 그 원인을 시각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정책 확산에 기여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저출산 관련 현황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한 디자인 사고를 통해, 세종시의 저출산 대응에 대한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왜 세종시만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문제 해결 지침이 필요한가'를 밝히고, 향후 세종시가 추진해야 할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연구 방법 및 내용

-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4단계 연구방법을 거쳐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세종시의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을 제안함
 - 첫째, 문헌연구와 현황분석
 - 둘째, 출산감소 지역 유형화 및 시각화
 - 셋째, 세종시의 저출산 대응정책 분석(2013년~2018년)

- 넷째, 세종시 시민의 정책수요 발굴(세종시 사회조사 결과, 타운홀미팅 결과, 전문가 자문 활용)



[연구의 방법과 주요 내용]

■ 정책 제언

가. 정책의 내실화와 사각지대 해소

□ (제1단계) 기존 임신·출산·자녀 돌봄 관련 정책 지원 확대와 내실화

- 기존의 자체사업의 내실화와 수혜자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함
 - 예를 들어, 세종시의 경우, ‘행복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타 도시와 차별화된 보건행정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다양한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임

□ (제1단계) 보육과 교육 서비스의 신뢰회복과 안정성 보장을 위한 노력

- 앞으로 보육과 교육 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질적 수준에 대한 신뢰 회복과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요청됨
 - 세종시는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에 학생·원아보호인력(배움터안전

지킴이)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돌봄 유치원, 방과후 학교 운영 등을 통해 초등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임
- 그러나 보육·교육시설 및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고, 지역 사회 내 돌봄 기관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30대 시민의 경우 자녀의 보육지원에 대한 정책 선호도가 높고, 40대 시민의 경우 자녀의 공교육 역할 강화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를 고려하여 세종시의 보육-교육체계를 강화시켜야 할 것임

(제1단계) 다양성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 입양가정, 이주가정과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 수혜 대상자 확대 필요
- 예를 들어, 입양가족 양육지원의 확대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120만원(장애아동의 경우 1명당 2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음
- 현금성 지원 외에 입양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요청되며,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교육기관, 시민대상)을 위한 노력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제1단계) 저출산 대응정책 모니터링 강화

- 시민(정책 수혜자)의 평가와 환류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저출산 대응정책의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인구 구성, 관련 정책의 변화에 맞춰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수정해 나가야 할 필요 있음

(제2단계) 마을 노인·중장년층 재능 기부 및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돌봄 보완 서비스 마련’

- 맞벌이 부부에게 필요한 자녀돌봄서비스는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교육관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
-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이러한 다양한 수요자의 필요에 충분히 부합하기 어려운 상황임(수요자 > 공급자)

- 세종시는 현재 마을공동체의 역할강화와 다양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 중에 있음
 - 이 중 육아공동체공간조성사업은 돌봄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으로써, 민간 유희시설을 대상으로 육아에 특화된 공간 조성을 지원하려는 사업임
 - 그러나 이 사업은 부모가 영유아와 함께 하는 마을육아공동체 공간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인프라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향후, 부모와 자녀를 위한 공동체 돌봄 공간 조성 외에도 마을단위에서 자녀의 돌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돌봄 지원이 많이 필요한 만큼, 같은 마을 내(같은 아파트 단지 내) 거주하는 노인이나 중장년층의 도움(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을 받을 수 있다면 재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아이들의 ‘학교 지원’ 및 ‘엄마·아빠 퇴근 전까지 함께 있어주기’ 등 돌봄의 공백이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에 맞추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
 - 재능기부(자원봉사)에 따른 돌봄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므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돌봄의 보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임
- 돌봄 보완 서비스가 이웃 간 또는 가족 간(조부모의 손주 돌봄 등) 금전적 사례로 이루어 질 경우, 이러한 사적 이전에 대하여 세제혜택 등의 지원도 필요함
 - 공식기관이 아닌 민간영역에서 돌봄 서비스를 구입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현금으로 사례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개인 간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그 노동의 대가와 가정양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려는 취지에서 ‘조부모양육수당(또는 손주돌봄수당)’과 같은 현금을 지급하려는 일부 지자체의 시도가 있었고, 현재 국회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음. 그러나 양육수당 간의 증첩문제와 수급관리의 어려움으로

시행되기 쉽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이웃이나 조부모에게 자녀돌봄 등을 의뢰하면서 정기적으로 사례를 지급할 시 그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나. 결혼 및 정주환경 조성

□ (제1단계) 일자리 마련을 위한 협력적 노력이 필요

- 여성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 20~30대 젊은층 인구 유출을 감소시키고, 세종시에서 결혼하고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함
 - 일자리 마련은 비단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 최선의 대안은 아님. 그러나 결혼과 출산을 경제적 비용 문제로 두려워하는 20~30대 젊은 미혼남녀와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에게는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
 - 하지만, 지금까지 청년의 일자리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분절화된 조직업무에 따라, 각기 다른 부서(과)에서 추진되어 왔음
 - 일자리 마련을 위해 각 담당 부서의 협력적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세종시의 일자리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세종시 내부적으로는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담당부서 간의 협력적 지원 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외부적으로는 민간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체계 마련을 통해 일할 의지가 있는 유능한 비경제활동인구의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 실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경우, 고학력 비경제활동 여성들의 구직 문의가 많은 편이나, 오히려 기업의 구인 수요가 적어 일자리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기업의 구인 수요를 끌어오기 위한 세종시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임
- 또한, 세종시 내 대학교의 전공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함. '학업-취업-결혼'으로 이어지는 청년의 생애주기가 세종시에서 이루어질

- 수 있도록, ‘교육기관-기업-세종시’의 협력적 노력이 요구됨
- 창업 지원과 창업에 따른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
 - 사업 생애주기에 맞춘 컨설팅이 필요함. 일회성 창업 컨설팅이 아닌, 창업초기부터 폐업기간에 걸친 사업의 전 과정에서 수시로 필요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제2단계) 청년 주거 혜택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확대
 -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할 경우, 장기적 효과를 위해 현금성 지원보다는 인프라 조성과 확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현재 세종시는 「공공주택특별법」 제3조(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및 제2조의2(공공주택의 재원·세제지원 등)에 따라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진행 중임
 - 해당 사업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80%를 공급하게 되어 있으며,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그러나 세종시의 역할은 부지제공 및 행정업무의 지원에 그쳐 간접적인 영향력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며, 입주문의는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주된 대상인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문의는 저조한 상황임
 - 행복주택 사업의 본래의 사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예비) 대상자들에게 해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
 - 또한, 행복주택 입주 요건이 세종시의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적절하고, 타당한지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2단계) 청년층의 정주여건 마련을 통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은 도시’로 도시브랜드화 필요
 - 청년층의 정주환경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성 강화,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여가생활이 가능한 안전한 도시환경’이라는 도시 이미지도 중요함
 - 세종시는 2012년에 출범한 신생도시로써, 젊은 인구가 많고, 새로운 정책적 실험(스마트 도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등)이 이루어지는 등 정주하고 싶은 도시가 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
 -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은 도시’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종시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야 할 것임

다. 모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제1단계) 세종시-사용자(기업)-근로자 간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연대 강화 필요

- 일·가정양립 환경은 세종시의 단독 노력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결과임. 따라서 세종시와 더불어 사용자(기업), 근로자 사이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함을 함께 공감하고 실현할 수 있는 연대가 이루어져야 함
 - 세종시의 경우, 출범 초기 이주공무원 및 이전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를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되었음
 - 따라서 민간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일·가정양립 관련 제도적인 지원을 받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의 타운홀 미팅 결과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관련 제도의 혜택이나 활용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상황임. 이는 정부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외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점에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이제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근로자 모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시기임
- 여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필요
 - 여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재정적 지원 필요
- 유연근무제도 사용 장려
 -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것은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 방법 중 하나임. 따라서 세종시 관내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이 유연근무제를 남녀 근로자 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우수 기업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임
- 육아휴직사용 장려
 -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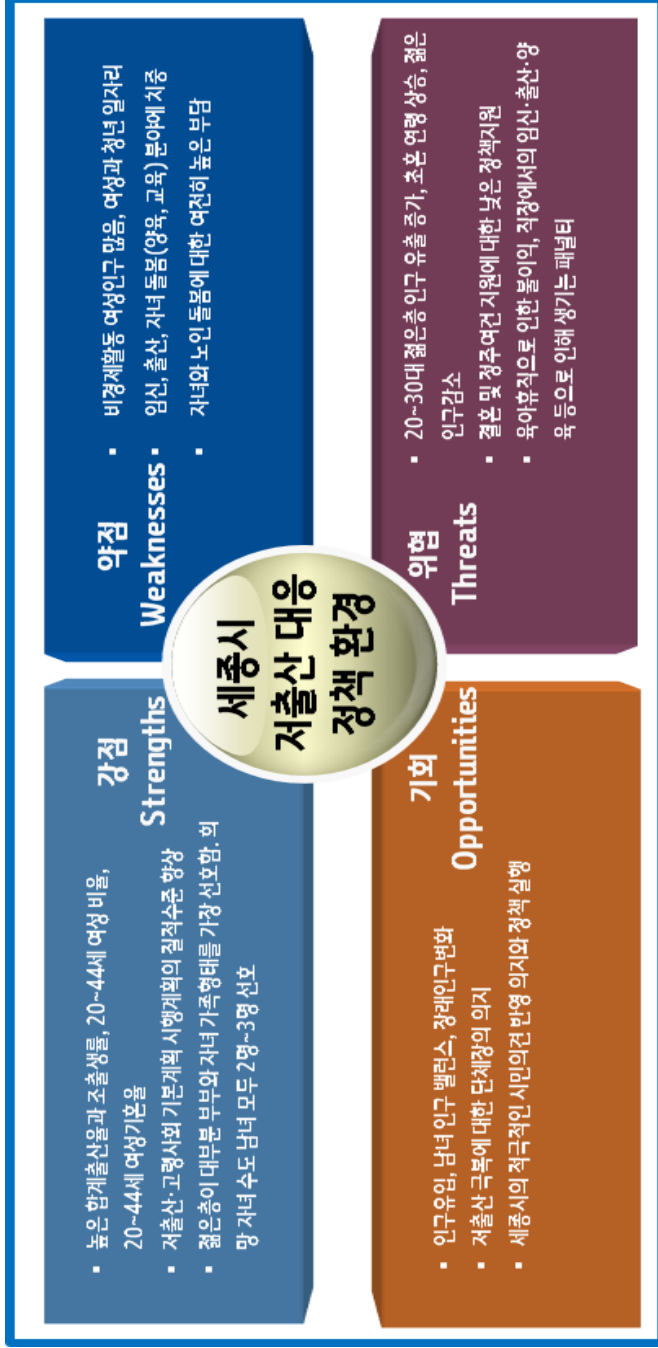
중소기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제2단계) 육아휴직 시 소득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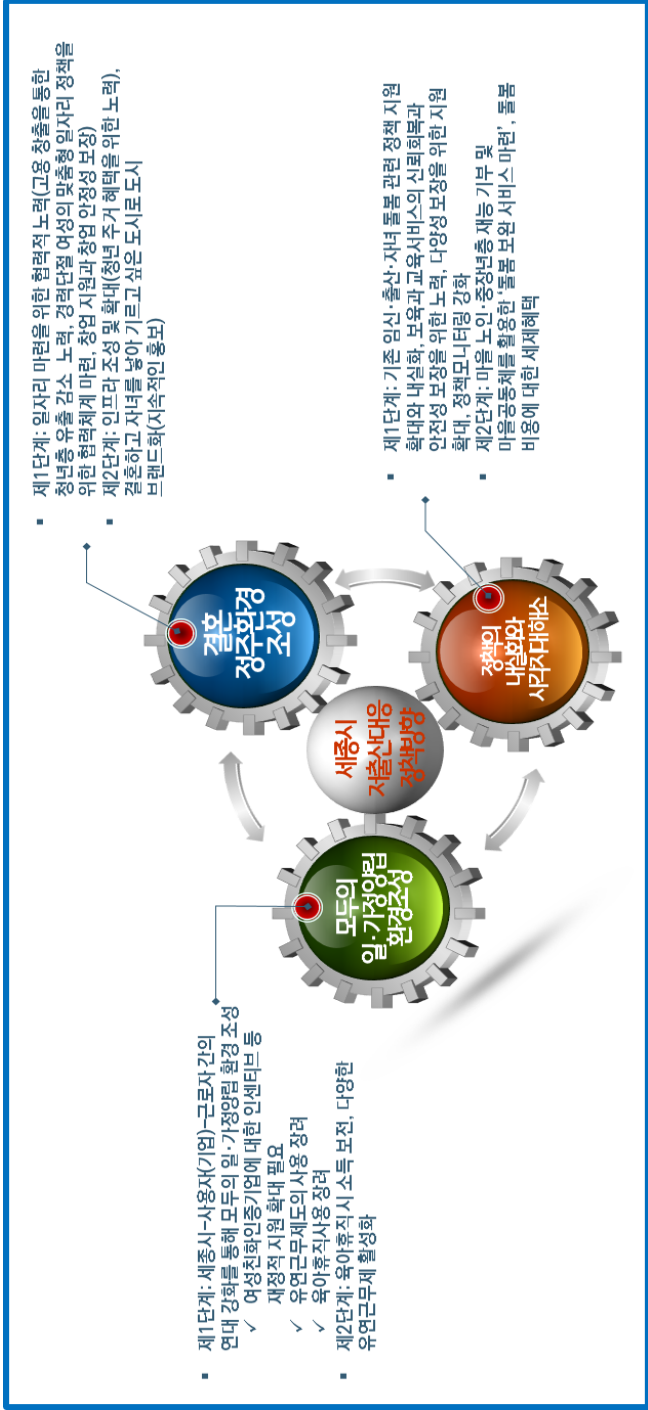
-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육아휴직에 따른 개인 근로자의 소득 대체율이 높지 않기 때문임
- 육아휴직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중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맞벌이 부부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가계 경제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이것은 출산·양육기 이후, 여성의 경력단절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
- 따라서 장기적으로 세종시 내 근로자의 육아휴직의 활용(특히, 남성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시 소득을 일정정도 보전해 주는 현금 지원 정책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제2단계) 자녀의 교육 단계에 맞춘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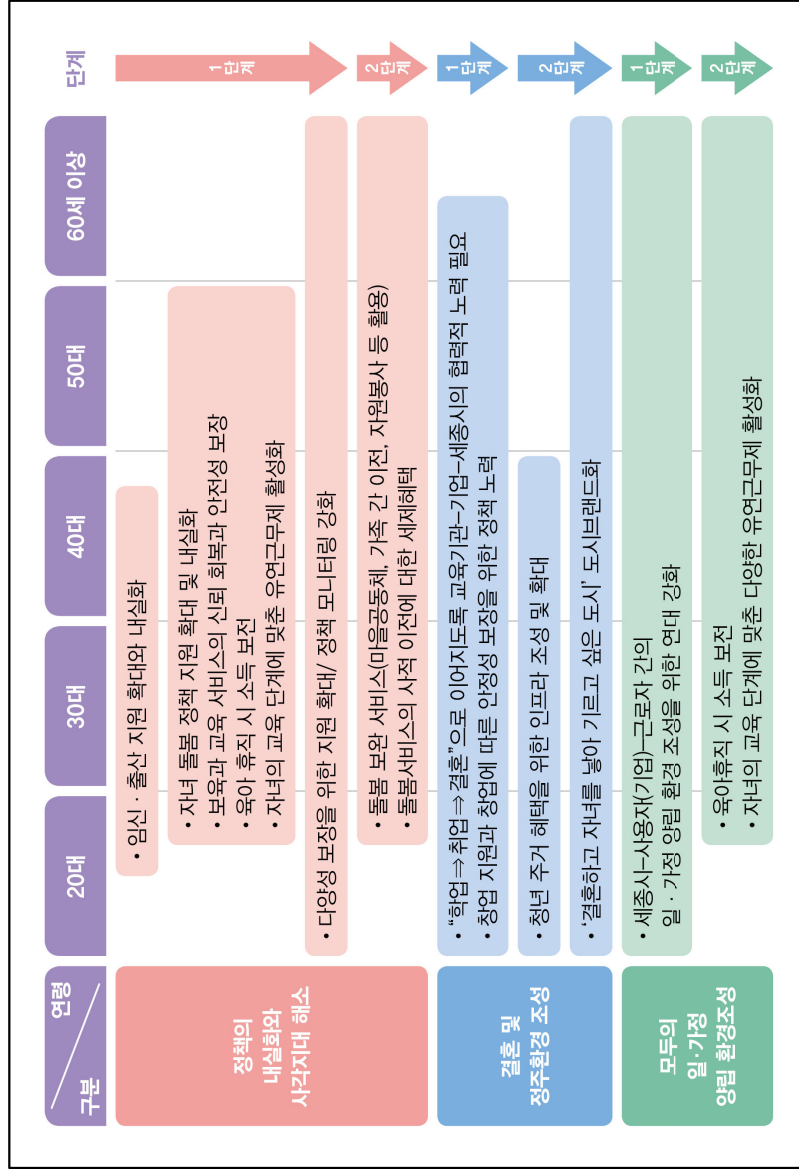
- 탄력근무제의 종류는 다양하나, 대부분 '시차 출퇴근형'을 주로 많이 사용함. 대표적인 4가지 유형을 보면, 아래와 같음
 - 시차 출퇴근형: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출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근무형태
 - 집약 근무형: 하루 10시간 근무 등 주 5일 미만으로 일하고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유지하는 근무형태
 - 근무시간 선택형: 주 5일 근무하되, 하루 8시간이라는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형
 - 재량 근무형: 출퇴근 의무가 없으며 프로젝트 수행방식으로 주 40시간을 인정
- 특히, 중소기업이나 작은 규모의 공공기관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탄력근무제를 관리할 인력이나 시스템이 부재한 경우가 많음
- 장기적으로 임신·출산 및 자녀의 교육 단계에 맞춰 근로자가 다양한 탄력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기업과 기관에 대한 부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세종시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 환경]



[세종시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



[세종시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시민 연령별)]

차 례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의 목적	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8
3.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10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3
제1절 저출산과 젊은 여성 인구의 관계	13
제2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변화	14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4
2. 세종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15
제3절 출산 관련 17개 광역시·도 현황 비교	24
1. 시·도별 인구변화	24
2. 혼인상태와 결혼의향	27
3. 임신·출산·경력단절	33
4. 소결	40
제3장 출산감소 지역 유형분류	45
제1절 유형 분류 개요	45
1. 유형 분류를 위한 지표 선정	45
2. 유형화 방법	47
3. 연도별 유형화 결과와 세종시의 변화	50

제2절 그룹별 특징 분석 및 장래 인구 추계	52
1. 유형 ① 출산감소 중(中)위험군	56
2. 유형 ② 출산감소 고(高)위험군	64
3. 유형 ③ 출산회피 유형	67
4. 유형 ④ 출산선호 유형	69
5. 유형 ⑤ 결혼회피 유형	71
제3절 소결	78
1. 유형별 특징에 따른 정책 방향 제안(출산선호 유형 제외)	78
2. 세종시 유형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 제안	78
3. P 지수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	79
제4장 세종시 저출산 대응정책 분석	83
제1절 세종시 저출산 대응정책 분석 개요	83
1. 저출산 정책 유형화를 위한 기준 근거와 범위	83
2. (저출산 정책 유형화 I) 정책 도구 유형별 유형화 기준	83
3. (저출산 정책 유형화 II) 정책 지원 분야별 유형화 기준	86
제2절 유형화 분석 결과	87
1. 정책 도구 유형별 유형화 분석 결과	87
2. 정책 지원 분야별 유형화 분석 결과	88
제3절 소결	90
제5장 세종시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	95
제1절 세종 시민의 견해	95
1. 조사개요	95
2. 사회조사 주요 지표 분석	96
3. 타운홀 미팅 결과 분석	103
제2절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SWOT 분석	106
1. 세종형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SWOT 분석	106

2. 세종시 저출산 대응관련 정책환경	107
제3절 정책 환경에 따른 정책 방향	108
1. 강점요인과 기회요인을 활용한 정책 방향	108
2. 차별화된 자체사업 추진 필요	108
3. 약점요인과 위협요인을 고려한 정책 방향	108
제6장 결론	113
1. 연구 요약	113
2. 정책 제언	117
참고문헌	124
부록	126

표 차례

[표 1-1] 연구의 흐름	7
[표 2-1] 세종시 자체사업 소요예산 변화 추이	15
[표 2-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과제 수 변화추이	23
[표 2-3] 세종시 장래인구추계(2015~2045년): 총인구	24
[표 2-4] 시·도별 남녀 성비	25
[표 2-5] 세종시의 성별/연령별 인구이동 현황	26
[표 2-6] 17개 시·도 미혼율(2010, 2015년)	27
[표 2-7] 평균 초혼 연령 추이	29
[표 2-8] 미혼남녀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	31
[표 2-9] 합계출산율	33
[표 2-10] 시·도별 합계출산율(2017년 기준)	34
[표 2-11] 불임치료 경험 남녀 수	36
[표 2-12] 혼인 코호트별 출생아수 vs. 기대 자녀수	37
[표 2-13] 혼인 코호트별 출생아수와 기대자녀수	38
[표 2-14] 기혼여성 희망 일 지속기간	38
[표 2-15] 기혼여성(15~49세) 경력단절 사유 조사결과	39
[표 3-1] 각 지표 수준별 8개 유형	48
[표 3-2] 세종시 연도별 소속 유형 변화	50
[표 3-3] 출산감소 유형별 특징	52
[표 3-4] 출산감소 유형화 결과(17개 시·도 비교)	54
[표 3-5] 출산감소 중위험 유형 지자체(7개)	56
[표 3-6] 출산감소 중위험(울산광역시)	57
[표 3-7] 출산감소 중위험(충청북도)	58

[표 3-8] 출산감소 중위험(충청남도)	59
[표 3-9] 출산감소 중위험(전라남도)	60
[표 3-10] 출산감소 중위험(경상북도)	61
[표 3-11] 출산감소 중위험(경상남도)	62
[표 3-12] 출산감소 중위험(제주특별자치도)	63
[표 3-13] 출산감소 고위험 유형 지자체(2개)	64
[표 3-14] 출산감소 고위험(강원도)	65
[표 3-15] 출산감소 고위험(전라북도)	66
[표 3-16] 출산회피 유형 지자체(1개)	67
[표 3-17] 출산회피(경기도)	68
[표 3-18] 출산선호 유형 지자체(세종시 단독)	69
[표 3-19] 출산선호(세종특별자치시)	70
[표 3-20] 결혼회피 유형 지자체(6개)	71
[표 3-21] 결혼회피(서울특별시)	72
[표 3-22] 결혼회피(부산광역시)	73
[표 3-23] 결혼회피(대구광역시)	74
[표 3-24] 결혼회피(인천광역시)	75
[표 3-25] 결혼회피(광주광역시)	76
[표 3-26] 결혼회피(대전광역시)	77
[표 3-27] 출산감소 유형 분류 결과	80
[표 4-1] 출산관련 정책도구 유형분류	84
[표 4-2] 세종시 정책 도구 유형별 저출산 정책 유형화 결과	87
[표 4-3] 세종시 정책 지원 분야별 저출산 정책 유형화 결과	89
[표 5-1] 세종시민이 선호하는 가족형태	97
[표 5-2] 희망 자녀수	98
[표 5-3] 세종시민이 선호하는 출산율 증가방안	100

[표 5-4] 임신·출산정책 분야 우선순위 결과	103
[표 5-5] 육아정책 분야 우선순위 결과	105
[부표 1-1] 2010년 미혼인구 및 미혼율	126
[부표 1-2] 2015년 미혼인구 및 미혼율	127
[부표 1-3] 전국 성별 및 연령별 가구주들의 미혼율 추이	128
[부표 1-4] 2012년 각 17개 시도 전체 인구대비 젊은 여성(20~44세) 비율 ...	129
[부표 1-5] 2015년 각 17개 시도 전체 인구대비 젊은 여성(20~44세) 비율 ...	130
[부표 1-6] 2017년 각 17개 시도 인구대비 젊은 여성(20~44세) 비율 ...	131
[부표 1-7] 2012년 각 17개 시도 젊은 여성(20~44세) 기혼비율	132
[부표 1-8] 2015년·2017년 17개 시도 젊은 여성(20~44세) 기혼비율	133
[부표 1-9] 각 17개 시도별 합계출산율	134
[부표 1-10] 전국 및 각 17개 시도별 인구	135
[부표 1-11] 전국 및 각 17개 시도별 P 지수	138
[부표 1-12] 연도별 소속 유형 변화(지표 상세표기)	141
[부표 1-13] 정책 도구 유형별 사업리스트(종합)	142
[부표 1-14] 정책 지원 분야별 사업리스트(종합)	144

그림 차례

[그림 1-1] 17개 광역시·도별 소멸위험지수(2015년 기준)	4
[그림 1-2] 주요 연구결과별 SWOT분석 실시	6
[그림 1-3] 연구의 방법	8
[그림 1-4] 출산감소 지역 유형분류 및 시각화 과정	9
[그림 2-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패러다임 전환 방향	15
[그림 2-2] 세종시 자체사업 소요예산 추이(2013~2018년)	16
[그림 2-3] 2013년 정책방향	17
[그림 2-4] 2014년 정책방향	18
[그림 2-5] 2015년 정책방향	19
[그림 2-6] 2016년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20
[그림 2-7] 2017년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21
[그림 2-8] 2018년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22
[그림 2-9] 시·도별 남녀 성비(여자 1백명당)	25
[그림 2-10] 전국 연령별 미혼율 추이(남성 가구주)	28
[그림 2-11] 전국 연령별 미혼율 추이(여성 가구주)	29
[그림 2-12] 초혼 연령	30
[그림 2-13]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 남녀 응답	32
[그림 2-14] 합계출산율 비교(전국 vs. 세종시)	33
[그림 2-15] 2018년 6월 조출생률 현황	35
[그림 2-16] 엄마의 연령별 출생아 구성비(1997, 2007, 2017년)	35
[그림 2-17] 불임 치료 경험자 추이	37
[그림 3-1] 2차 그룹 재유형화 명칭 개념도	48

[그림 4-1] 저출산 정책 유형화를 위한 정책도구의 분류	85
[그림 4-2] 정책 도구 유형별 저출산 정책 유형화 결과	88
[그림 4-3] 정책 지원 분야별 저출산 정책 유형화 결과	89
[그림 4-4] 세종시 자체사업 정책지원분야와 소요예산 변화 추이	91
[그림 5-1] 주요 점검 지표별 SWOT 분석 결과	106
[그림 5-2] 세종시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 환경	107
[그림 6-1] 세종시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	115
[그림 6-2] 세종시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시민 연령별)	116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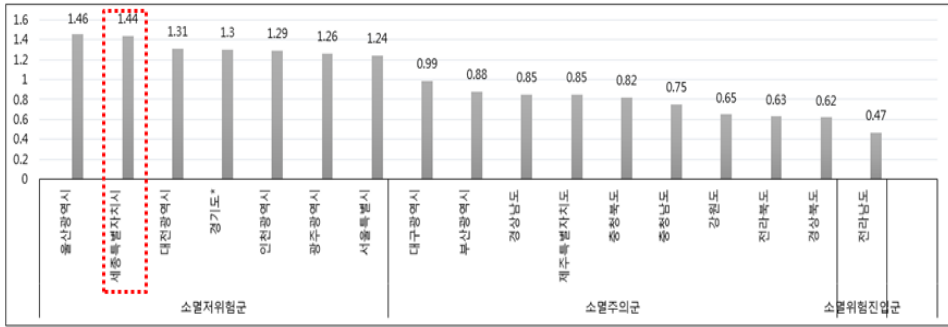
1장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OECD 국가 평균수준의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하여 시행 중임
 - 그러나 그 동안의 저출산 대책은 전국적·획일적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그 결과, 소요된 예산에 비하여 정책에 대한 현장체감도가 크게 낮고,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 1.05명)
 - 지자체 저출산 시책의 경우, 임신·출산 정책에 편중되어 있어 지자체 환경에 따른 출산 전 동기부여 사업이 필요한 실정임(연합뉴스, 2017년 9월 27일자, '저출산 극복정책, 임신·출산·보육 지원에 편중')
- 향후 세종시 저출산 대응 정책은 타 광역시·도의 정책을 답습하기 보다는 세종시 인구 구성의 특성을 감안한 독자적인 전략을 취해나 가야 할 필요가 있음
 - 세종시는 17개 광역시·도 중 출산율이 가장 높음. 소멸위험지수(고령 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 비율로 지방소멸 가능성을 측정)도 낮아 소멸 저위험지역으로 분석된 바 있음(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2018, 42쪽)
 - 세종시는 2018년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지자체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음. 그러나 세종형 저출산 대응 모델에 대한 확산에 있어 타 지자체들이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 안내되고 있지 않음
 - 또한 세종시는 출범 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경험하고 있는 바, 시행 중인 관련 정책들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그림 1-1] 17개 광역시·도별 소멸위험지수(2015년 기준)

주: *경기도의 경우, 시·군·구별로 차이가 있음

자료: 박상헌 외(2018),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방안연구>, 43~44쪽 <표 I-3-10> 재구성

○ 따라서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은 다음과 같음

- 복잡한 사회현상인 저출산 현상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시각화 작업을 실시함
- 획일적·일률적인 정책 벤치마킹이 효과성이 떨어지는 만큼,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해 세종시의 차별성과 그 원인을 시각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정책 확산에 기여
- 세종시의 출산감소 지표 분석 결과와 장래 인구 시나리오에 맞춘 정책 방향 설정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저출산 관련 현황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한 디자인 사고를 통해, 세종시의 저출산 대응에 대한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왜 세종시만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문제 해결 지침이 필요한가'를 밝히고, 향후 세종시가 추진해야 할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제2, 3장)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함
- (제4, 5, 6장) 세종시를 대상으로 함

2) 시간적 범위

- (제2, 3장) 광역시·도별 출산감소 지역 유형 분류 및 장래 인구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기준년도는 2017년으로 설정함
- (제4장) 2013년부터 2018년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이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분석하여 세종시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검토함. 따라서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13~2018년으로 정함
- (제5장) 2017년 세종시 사회조사 미시데이터와 2017년 11월에 진행된 <세종시 저출산 극복 정책마련 타운홀미팅 결과보고서>를 검토함. 따라서 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2017년으로 정함

3) 내용적 범위

- 세종시 저출산 대응 정책 현황분석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구축
 - 인구사회학적 통계 수집
 - 현재까지 시행된 세종시 저출산 대응 정책 수집 및 유형화
 - 17개 광역시·도와의 현황 비교를 통한 세종시 출산 좌표 추적
- 출산감소 지역 유형화
 - 가케이 유스케(2016)의 일본 인구감소 시각화 자료(정육면체와 직육면체 교차 비교)방식을 차용하여, 우리나라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출산감소

지역 유형화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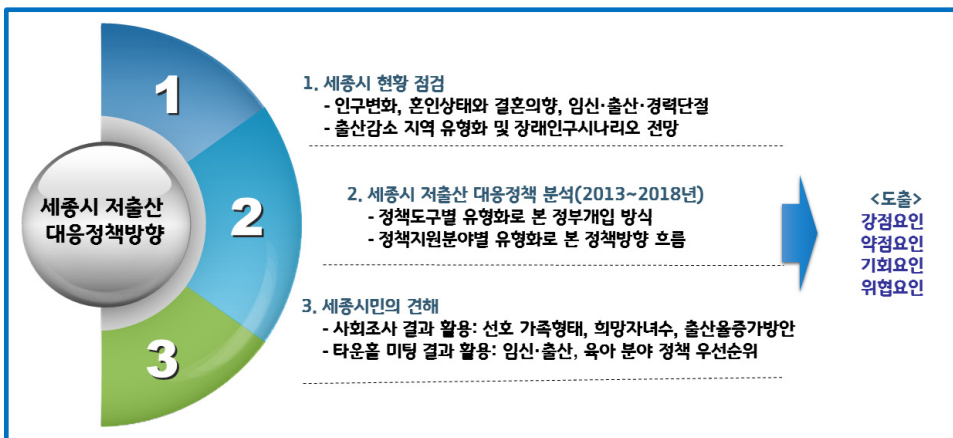
- 유형화된 그룹별로 세종시 출범시기인 2012년(과거), 2017년(현재), 2045년(미래)의 연령대별 인구 변화를 검토, 추계함으로써 각 유형별 특징을 도출함

□ **세종시 저출산 대응정책 분석**

- 세종시 출범 이후부터 2018년 현재까지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자체사업 및 예산을 검토함(2013~2018년)
- 세종시 자체사업의 정책유형화 분석을 통해, 그 동안의 저출산대응 정책 흐름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 **세종형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 설정**

- 출산과 관련된 세종시민의 견해를 대변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고, 지금까지 분석된 결과를 종합하여 정책 대응 방향을 설정함
 - 세종시의 현황 점검 결과, 세종시 저출산 대응정책 분석 결과, 세종시민의 견해를 종합하여, 각각의 강점·약점·기회·위협요소를 도출함(SWOT 분석)
 - SWOT 분석을 통해 도출한 강점·약점·기회·위협요소는 세종시의 저출산 대응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음. 이를 토대로 '세종형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을 설정함
 - 전문가 자문을 활용하여 내용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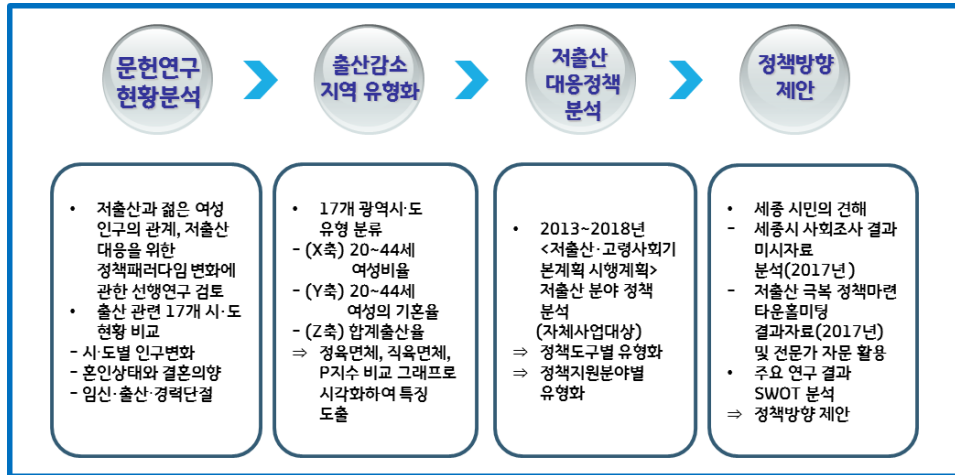


[그림 1-2] 주요 연구결과별 SWOT분석 실시

[표 1-1] 연구의 흐름

목차	내용
제1장	<p style="text-align: center;">서 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방법 및 내용
제2장	<p style="text-align: center;">선행연구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과 젊은 여성 인구 관련 연구 경향 •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변화 • 출산 관련 17개 시·도 현황 비교
제3장	<p style="text-align: center;">출산감소 지역 유형분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분류 개요 • 그룹별 특징 분석 및 장래 인구 추계
제4장	<p style="text-align: center;">세종시 저출산 대응정책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저출산 정책 분석 개요 • 정책 도구 유형별 유형화 분석 • 정책 지원 분야별 유형화 분석
제5장	<p style="text-align: center;">세종시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민의 견해 •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SWOT 분석(정책 환경 도출) • 정책 환경에 따른 정책 방향 제안
제6장	<p style="text-align: center;">결 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요약 • 정책 제언

2.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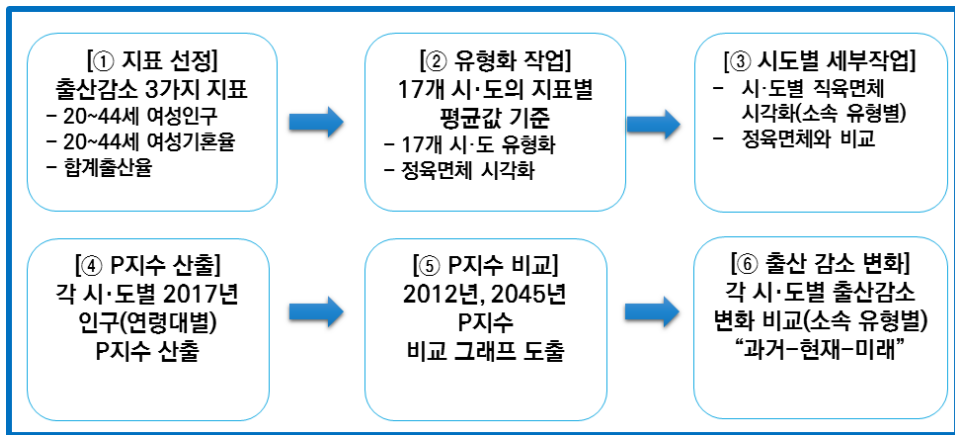
[그림 1-3]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및 현황분석

- (문헌연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있어 젊은 여성 인구가 주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검토함. 또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패러다임 변화를 살펴, 최근의 주요 쟁점을 확인함
- (현황 분석) 17개 시·도의 출산 관련 현황을 비교하여 기초자료를 생성함. 시·도별 인구변화, 혼인상태와 결혼의향, 임신·출산·경력단절과 관련된 총 11개의 지표현황을 검토함
 - (시·도별 인구변화) 전국 인구 증감율, 시·도별 남녀 인구, 세종시 인구가동 추이
 - (혼인상태와 결혼의향) 연령별 미혼율 추이(전국), 평균 초혼 연령 추이,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
 - (임신·출산·경력단절) 출산율(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아이 출생 시 엄마 평균연령 추이, 불임치료 경험 있는 남녀 비율, 기대자녀수와 실제 자녀수 차이, 경력단절

□ **출산감소 지역 유형화**

- 가케이 유스케(2016)의 <인구감소×디자인> 저서의 시각화 방식과 ‘인구 감소의 3대 원인’을 차용함. 본 연구에서는 ‘출산감소의 3가지 지표’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함
 - 출산감소의 3가지 지표: (X축) 20~44세 여성비율, (Y축) 20~44세 여성의 기혼율, (Z축) 합계출산율
- 출산감소 3가지 지표별로, 17개 광역시·도를 유형화
 - 17개 시·도의 지표별 평균을 50으로 환산한 뒤, 편차를 구하여 출산 감소 지역을 유형화함. 이후, X, Y, Z축이 50인 정육면체로 시각화하여 제시함. 다음으로 각 시·도의 지표별 편차(=지표의 평균값-각 시·도별 지표값)를 50기준으로 환산한 값을 통해, 직육면체를 시각화함. 두 개의 입체도형을 중첩시켜, 상호 비교를 시도함¹⁾
- 2017년 각 시·도별 인구를 100으로 산출한 P지수를 구하여, 2012년(과거)와 2017년(현재), 2045년(미래)의 인구변화 시나리오를 제시함



[그림 1-4] 출산감소 지역 유형분류 및 시각화 과정

□ **저출산 대응정책 분석**

- 세종시 저출산 대응정책 수집 및 재유형화를 위한 조사와 분석을 실시함

1) 시각화 방법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 '제3장 출산감소 지역 유형분류의 제1절 유형분류 개요' 참조하기 바람

- 세종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중 자체사업만을 대상으로 함
- 정책 도구유형별, 정책 지원 분야별 사업 분석을 통해, 세종시가 그 동안 어떤 정책에 방점을 두었는지를 분석하고, 이후의 정책과제를 도출함

□ 정책방향 제안

- (양적 연구 결과)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보고서> 미시자료 분석을 통해, 세종시민의 출산관련 인식 및 정책수요를 검토함
- (질적 측면 보완) 통계조사에 따른 인식 및 수요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보다 최근에 실시한 <세종시 저출산 극복 정책마련 타운홀 미팅(2017년 11월)>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활용함
- (SWOT 분석)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세종시가 가진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책을 제안함
 - 현황점검 결과(제2장), 세종시 저출산 대응정책 분석결과(제4장), 세종시민의 견해(제5장 일부) 분석 결과를 토대로, SWOT 분석 실시

3. 연구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 본 연구는 2012년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세종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점검하고 타 시·도와의 비교를 통해 정책 추진 방향을 재설정함으로써, 추후 세종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저출산 대응 우수 지자체 세종시의 저출산 대응 정책 사례 확산에 기여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저출산과 젊은 여성 인구의 관계

제2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변화

제3절 출산 관련 17개 시·도 현황 비교

2장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저출산과 젊은 여성 인구의 관계

□ 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 관련 연구 경향

- 우리나라 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 순인구 감소세가 2008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경우, 인구 감소, 지방소멸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 축적되어 그 위험성을 경고해 왔음(마스다 히로야, 2015; 가케이 유스케, 2016; 이상호, 2016)
- 관련 연구에서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의 기준은 대부분 “젊은 여성인구가 얼마나 많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느냐”를 핵심지표로 삼음
 - “젊은” 여성의 연령대는 연구자별로 다소 상이함. 마스다 히로야(2015)의 경우, 20세부터 39세 가임기 여성을 젊은 여성으로 간주한 반면, 가케이 유스케(2016)는 20세부터 44세까지의 여성을 젊은 여성으로 간주하여 인구감소 유형 분류를 진행함
-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지역소멸위험지수를 연구한 박상헌 외(2018) 연구의 경우, 고령인구 대비 20~39세 여성인구 비율로 17개 광역시·도의 지방소멸 위험 정도를 분류한 바 있음

□ “왜 젊은 여성이 중요한 지표가 되었는가?”

- (인구 재생산력 측정 대리변수로써의 가치) 젊은 여성 인구수가 중요한 이유는 가임기 여성 인구수가 인구 재생산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임. 이로 인하여 젊은 여성 인구수는 인구 재생산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음
- (가임기 여성의 기혼율과 출산율의 중요성) 한편, 젊은 여성이 지방에서 대도시로 이동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인구 유출 현상은 낮은 결혼율과 출산율 문제와 연계되어 있음
 - 지방-대도시(수도권) 간 지역소멸 지수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평가되고 있음(이상호, 2016)

- 젊은 여성이 대도시로 이동함에 따른 주거 및 생활비용 증가로 인해 비혼율도 높아지고 있음. 이는 곧 출산율 저하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임
- 젊은 세대의 결혼의향이나 기대자녀 수에 대한 인식 역시도 장래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세종시의 시·도별 인구변화와 혼인상태와 결혼의향, 임신·출산·경력단절에 대하여 세종시와 16개 광역시·도의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세종시 출산율에 대한 특징을 도출해보고자 함
- 또한, 본 연구에서 진행할 ‘출산감소 지역 유형 분류’를 위해, ‘젊은 여성’의 정의를 만혼화 현상을 고려하여 ‘20~44세 여성’으로 정의함
 - 각 시·도별 전체 인구대비 해당 연령 여성 비율, 해당 연령 여성 기혼율, 그리고 합계출산율을, 출산감소 지역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주요지표로 삼고자 함

제2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변화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대한민국정부, 2008)
-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 수립 이후, 2011년에 2차 계획(2011~2015년), 2016년에 3차 계획(2016~2020년)을 거치면서 저출산 문제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중에 있음
 - 제1차 기본계획 추진목표: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
 - 제2차 기본계획 추진목표: 점진적 출산율 회복 및계 확립
 - 제3차 기본계획 추진목표: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 현재 제3차 기본계획의 경우, 가족형성을 지원하려는 대책이 제1, 2차 기본계획보다 강화되고 있어 앞선 계획에 비하여 좀 더 적극적인 계획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음

- 제1차 기본계획 보완판부터 만혼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고민해 왔으나 제3차 기본계획부터 해당 내용이 보다 강화됨(최성은 외, 2018)

〈 제3차 기본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 〉

저출산	기혼가구 보육부담 경감	⇨	일자리·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 강화
	제도 도입·기반 조성, 비용지원 위주	⇨	사각지대 해소, 실천, 문화 개선 초점
고령사회	기초연금·장기요양 등 노후 기반 마련	⇨	국민·주택연금 확대 등 노후대비 강화
	노인복지대책 위주	⇨	생산인구 확충, 실버산업 등 구조적 대응

[그림 2-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패러다임 전환 방향

2. 세종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1) 자체사업 소요예산 변화(2013~2018년)

□ 자체사업 소요예산

○ 세종시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중 자체사업 소요 예산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저출산 대책 부분에 가장 많은 예산 (1,047억)이 소요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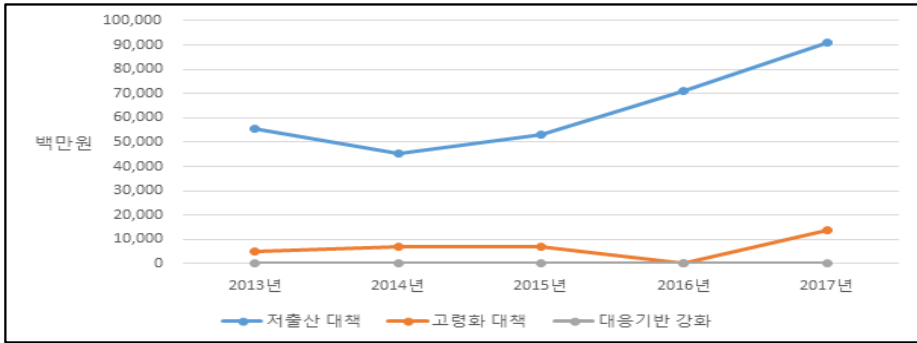
- 저출산 대책을 위한 자체사업 소요예산 2013년 대비 2018년 150.32% 증가
- 고령화 대책을 위한 자체사업 소요예산 2013년 대비 2018년 224.98% 증가
- 대응기반 강화를 위한 자체사업 소요예산 2013년 대비 2018년 95% 감소

[표 2-1] 세종시 자체사업 소요예산 변화 추이

(단위: 백만원)

부문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 (2013년 대비 2018년 예산 증감액)	
								%
합 계	40,800	60,659	52,228	59,906	80,505	104,777	63,977	156.81
저출산 대책	36,400	55,567	45,302	53,120	71,170	91,118	54,718	150.32
고령화 대책	4,200	4,878	6,926	6,783	9,330	13,649	9,449	224.98
성장동력 분야 대응기반 강화	200	215	-	3	5	10	△190	△95.00

자료: 세종시 내부자료(2018), 〈세종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사업 소요예산 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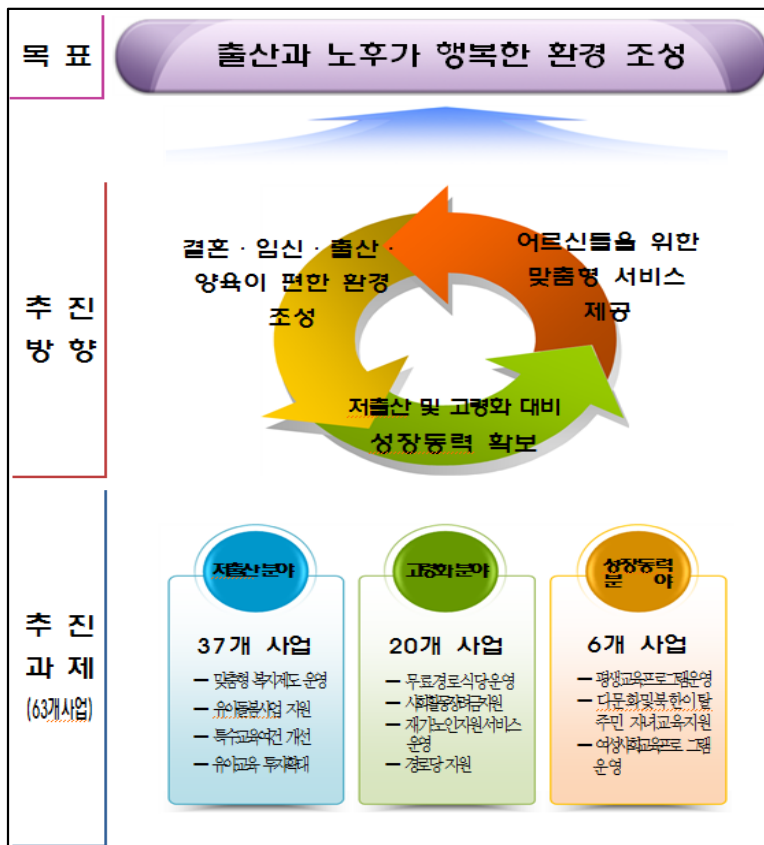
[그림 2-2] 세종시 자체사업 소요예산 추이(2013~2018년)

자료: 세종시 내부자료(2018), <세종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사업 소요예산 자료> 재구성

2) 세종시의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 2013년 <세종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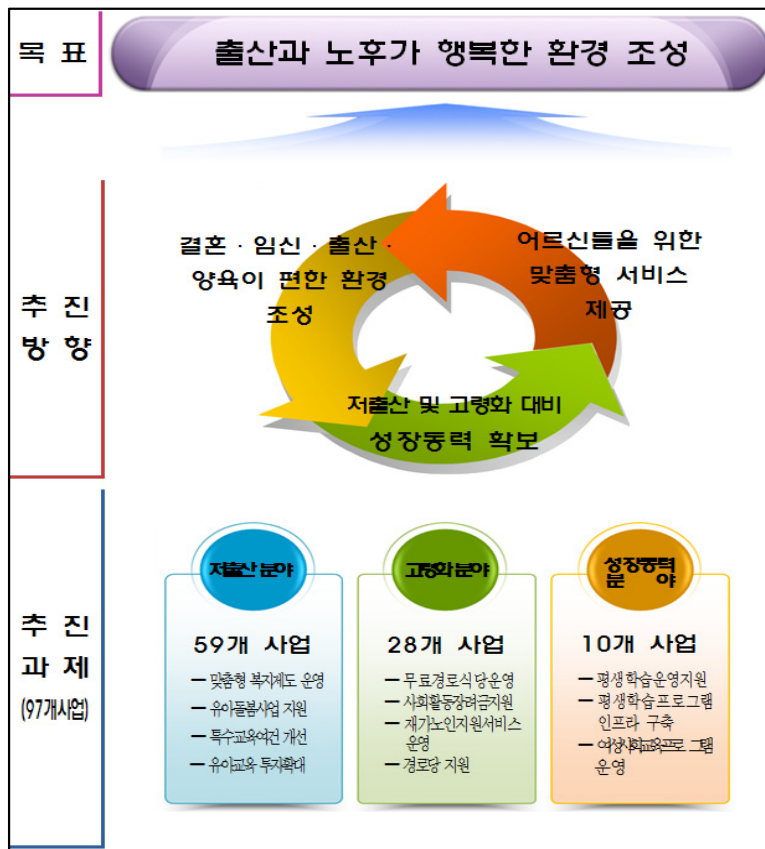
- “출산과 노후가 행복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저출산 분야 37개, 고령화 분야 20개, 성장동력 분야 6개 사업을 선정하여 총 63개 과제를 추진함
- 주요사업: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 노인 외로움 및 생활불편 해소대책 강화, 어르신의 권익과 편안한 노후 생활 지원, 여성, 경제, 교육, 평생교육 활성화 등



[그림 2-3] 2013년 정책방향

□ 2014년 <세종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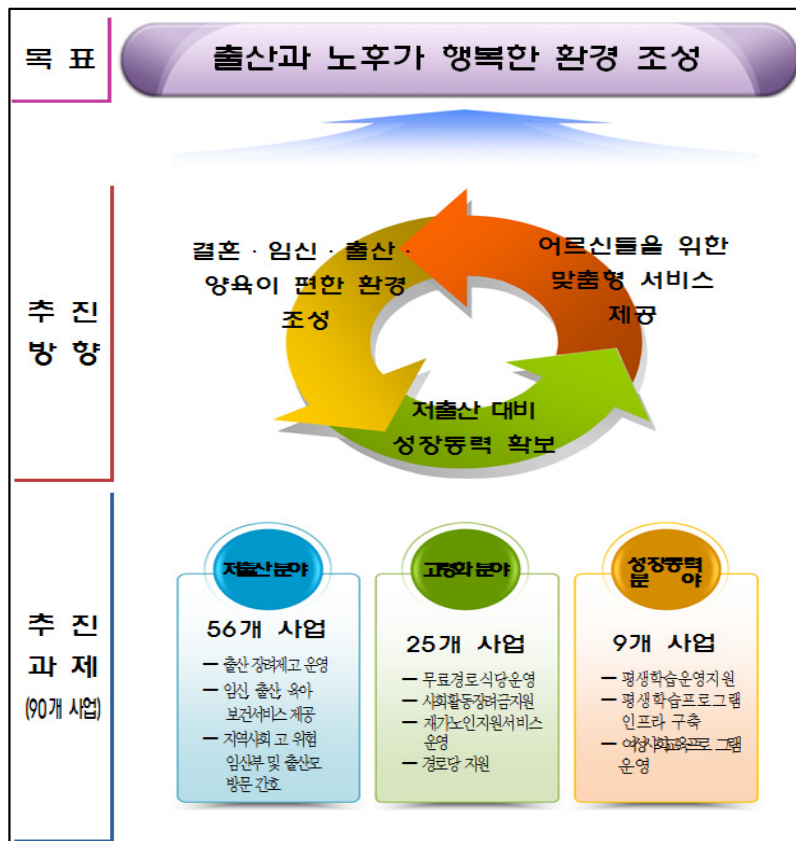
- “출산과 노후가 행복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저출산 분야 59개, 고령화 분야 28개, 성장동력 분야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총 97개 과제를 추진함
- 주요사업: 일·가정 양립지원, 보육서비스 제공, 결혼·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건강증진, 평생교육활성화, 범죄예방 등 안전제공,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 장려, 여성·경제·교육·평생교육 활성화 등



[그림 2-4] 2014년 정책방향

□ 2015년 <세종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 “출산과 노후가 행복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저출산 분야 56개, 고령화 분야 25개, 성장동력 분야 9개 사업을 선정하여 총 90개 과제를 추진함
 - 주요사업: 결혼·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일·가정 양립 지원, 보육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건강증진, 평생교육활성화, 독거노인 등 서비스 제공,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 장려, 여성·경제·교육·평생교육 활성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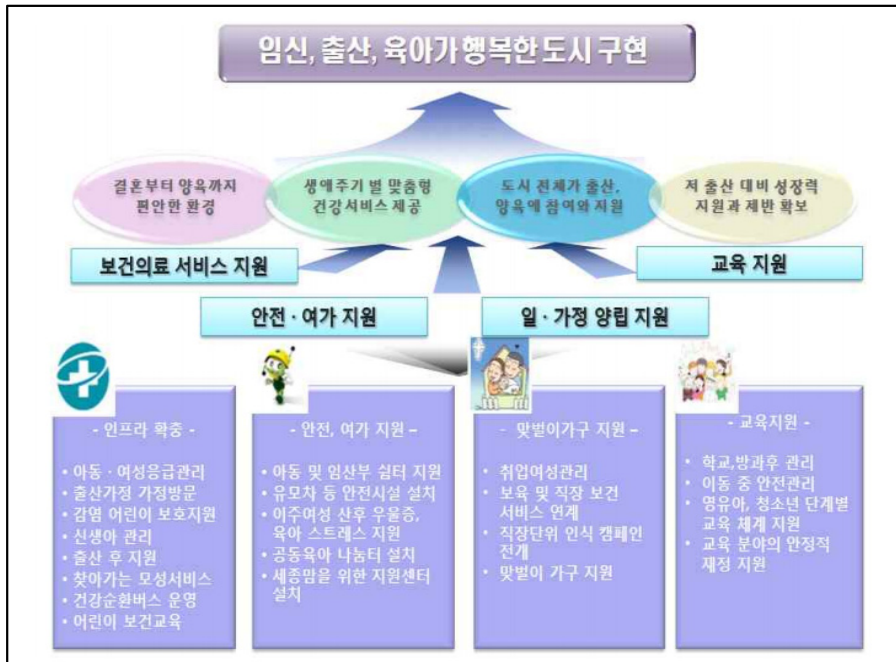
[그림 2-5] 2015년 정책방향

- 2016년 <세종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 (비전 포함 및 목표 변경) 2016년부터 시행계획 상에 세종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비전 “사람중심 행복도시 구현”을 포함함. 시행계획 목표의 경우, “출산과 노후가 편안한 사회적 기반 구축”으로 변경함
 - 저출산 분야 56개 사업, 고령화 분야 28개 사업, 대응기반강화로 2개 사업이 추진과제로 선정됨
 - 성장동력 분야 대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인식개선교육, 저출산·고령화 정책 총괄조직 구성 및 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응기반 강화 사업이 포함되기 시작함
 - 저출산 정책 추진 목표를 “임신, 출산, 육아가 행복한 도시 구현”으로 설정하여, 저출산 분야 정책 추진도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안전·여가지원, 일·가정양립지원, 교육지원 분야로 사업분야를 구체화하기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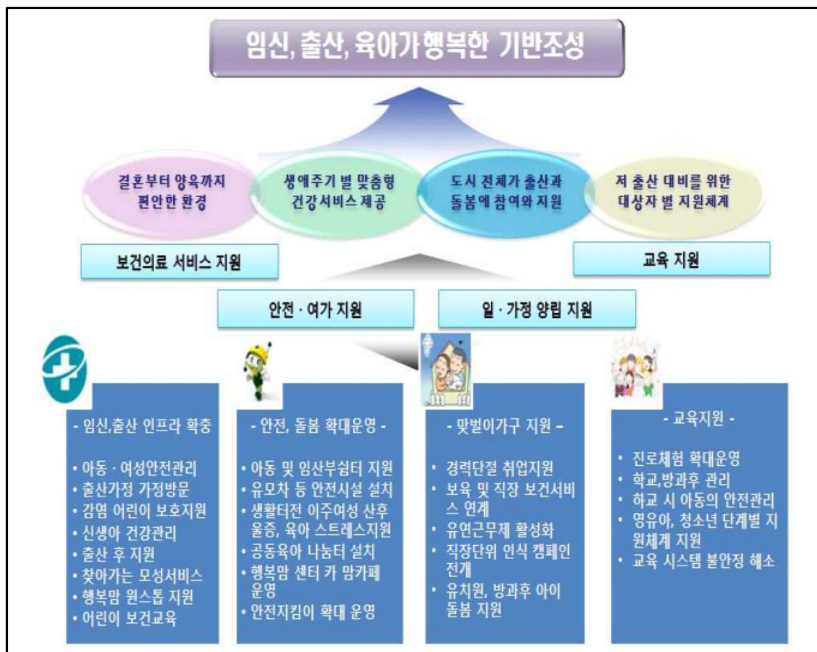
[그림 2-6] 2016년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 2017년 <세종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 “사람중심 행복도시 구현”이라는 시행계획 비전 아래, “출산과 노후가 편안한 사회적 기반 구축” 목표를 세워, 저출산 분야 49개, 고령화 분야 23개, 대응 기반 강화 2개 사업(총 74개)을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계획함
 -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의 경우, 2016년 시행계획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신규 사업과 조직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신도심 ‘행복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설치, 아동 친화도시 인증 추진, 결혼문화 개선 시책 추진, 시청 정책기획관에 저출산 담당 조직 신설 (17.2.6) 등



[그림 2-7] 2017년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 2018년 <세종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 “사람중심 행복도시 구현”이라는 시행계획 비전 아래, “출산과 노후가 편안한 사회적 기반 구축” 목표를 세워, 저출산 분야 49개, 고령화 분야 23개, 대응기반 강화 2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계획함
 - (비전 및 목표 변경) 2018년부터 세종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비전은 “시민중심의 행정수도 세종 완성”으로 변경됨. 시행계획 목표도 “맞춤형 임신, 출산, 양육 지원과 노후가 편안한 사회적 환경 조성”으로 변경함
 - 저출산 분야 34개 사업, 고령화 분야 22개 사업, 대응기반강화 2개 사업 (총 74개)이 추진과제로 선정됨



[그림 2-8] 2018년 저출산 정책 추진방향

- 최근 5년간(2013년~2017년)까지의 정책 평가를 포함하고 있음
 - 저출산 정책관련 조직개편 완료, 결혼·임신·출산 환경조성과 체계적 지원 , 출산장려금지원 등 자녀양육부담 경감, 청년고용 활성화, 아동과 여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저출산 사회연대회의 운영 추진 등

- 2018년 5대 핵심대책을 1) 임신, 출산, 돌봄 인프라 조성, 2) 노인서비스 통합관리 지원, 3) 아동·여성친화도시 인증유지, 4) 세종시민 복지기준 마련, 5) 결혼문화와 일·가정양립 환경조성으로 정리하여 제시함

3) 소결

(양적 변화) 각 분야의 과제 수는 감소 추세

- 세종시는 2012년 출범이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상의 과제 수는 평균적으로 감소해 왔음

[표 2-2]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과제 수 변화추이

연도별 \ 분야	저출산	고령화	성장동력	대응기반	총계	비고
2013	37	20	6	-	63	
2014	59	28	10	-	97	
2015	56	25	9	-	90	
2016	56	28		2	86	대응기반 사업 시작
2017	49	25		2	76	
2018	49	23		2	74	

자료: 세종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각 년도. 재구성

(질적 변화) 세종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질적 수준 향상

- 세종시는 201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에서부터, 시행계획 비전 추가, 정책목표 수정,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 추진방향 분리 제시 등의 노력을 기울여 보다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고자 노력함
- 2017년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개발과 출산환경조성을 위해, 시청 정책 기획관에 조직 신설('17.2.6)을 추진한 것은 세종시의 강력한 저출산 대응 의지를 실행으로 옮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사) 한국가정사역협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공동개최한 '제2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국민문화축제'에서 저출산 극복 우수 지방자치단체 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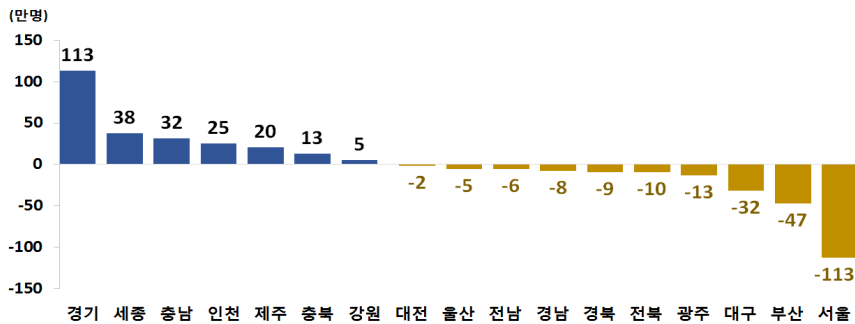
제3절 출산 관련 17개 광역시·도 현황 비교

1. 시·도별 인구변화

1) 전국 인구증감율

[표 2-3] 세종시 장래인구추계(2015~2045년): 총인구

시·도별 총인구 증감, 2015년 대비 2045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 재구성(2017년 6월)

- 통계청(2017)의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에 따르면, 광역시·도 중 2015년 대비 2045년 총인구가 증가하는 곳은 경기(113만 명), 세종(38만 명), 충남(32만 명), 인천(25만 명), 제주(20만 명), 충북(13만 명), 강원(5만 명) 순으로 나타남
 - (인구성장률) 동 자료에 따르면, 2045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 인구성장률이 감소추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 (자연증가율) 한편, 세종시의 경우 17개 시·도 중 가장 마지막으로 2040년부터 인구 자연 감소현상(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져서 발생)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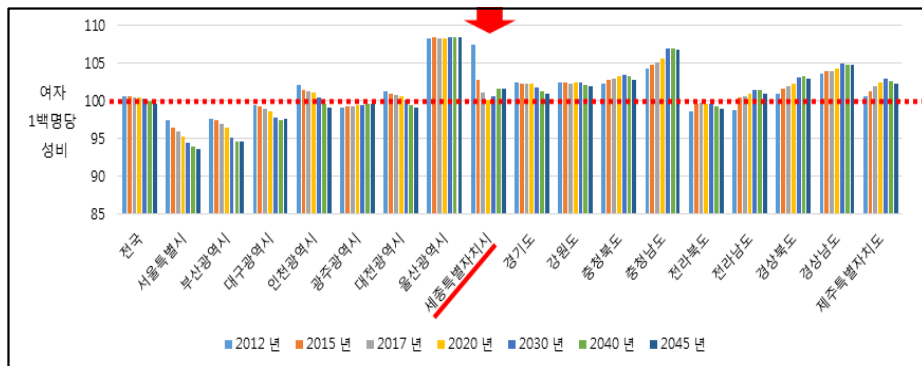
2) 시·도별 남녀 인구비율

[표 2-4] 시·도별 남녀 성비

시·도별	2012년	2015년	2017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45년
전국	100.7	100.6	100.5	100.4	100.3	99.9	99.7
서울특별시	97.4	96.5	95.9	95.3	94.5	93.9	93.7
부산광역시	97.7	97.4	97	96.5	95.2	94.6	94.6
대구광역시	99.4	99.3	99	98.6	97.8	97.5	97.6
인천광역시	102.1	101.4	101.3	101.1	100.5	99.6	99.2
광주광역시	99.2	99.3	99.3	99.4	99.5	99.6	99.7
대전광역시	101.2	100.9	100.8	100.6	100.2	99.5	99.2
울산광역시	108.2	108.4	108.3	108.3	108.4	108.4	108.5
세종특별자치시	107.4	102.8	101.1	100.2	100.7	101.6	101.6
경기도	102.5	102.3	102.2	102.2	101.8	101.2	100.9
강원도	102.4	102.5	102.3	102.5	102.4	102.1	101.9
충청북도	102.3	102.7	103	103.3	103.5	103.2	102.8
충청남도	104.3	104.7	105.1	105.6	106.9	106.9	106.7
전라북도	98.6	99.7	99.8	99.7	99.6	99.3	98.9
전라남도	98.8	100.4	100.7	101	101.5	101.5	101
경상북도	101	101.6	102	102.3	103.1	103.2	103
경상남도	103.6	103.9	103.9	104.2	104.9	104.8	104.7
제주특별자치도	100.7	101.3	102	102.5	102.9	102.6	102.2

주: 성비(여자1백명당)=남자인구/여자인구*100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주요 인구지표(성비, 인구성장률, 인구구조, 부양비 등)/시·도> 자료 재구성



[그림 2-9] 시·도별 남녀 성비(여자 1백명당)

- 2017년 기준, 전국 기준 남녀 성비는 여성 100명당 남성 100.5명이며, 2045년에는 여성 100명당 남성 99.7명으로 남녀 성비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세종시의 경우, 2012년 출범초기에는 남녀 성비가 107.4로 여성인구에 비하여 남성인구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2045년에는 101.6명으로 그 차이가 감소될 전망이다

3) 세종시 인구이동 추이

[표 2-5] 세종시의 성별/연령별 인구이동 현황

(단위: 명, %)

구분	시·도 간 전입			시·도 간 전출			시·도 내 이동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미취학 아동 (7세이하)	14,023 (13.12)	13,421 (12.61)	27,444 (12.86)	3,303 (8.93)	3,186 (9.15)	6,489 (9.04)	6,997 (13.30)	7,050 (13.25)	14,047 (13.28)
19세이하 (학령기)	13,886 (12.99)	13,321 (12.52)	27,207 (12.75)	3,690 (9.98)	3,304 (9.49)	6,994 (9.74)	7,997 (15.20)	8,015 (15.06)	16,012 (15.13)
20대	15,764 (14.75)	16,153 (15.18)	31,917 (14.96)	8,010 (21.66)	7,358 (21.13)	15,368 (21.40)	6,339 (12.05)	6,307 (11.85)	12,646 (11.95)
30대	25,956 (24.28)	26,861 (25.24)	52,817 (24.76)	8,801 (23.80)	7,632 (21.91)	16,433 (22.88)	11,498 (21.86)	11,791 (22.16)	23,289 (22.01)
40대	19,813 (18.53)	16,925 (15.90)	36,738 (17.22)	6,202 (16.77)	5,211 (14.96)	11,413 (15.89)	9,862 (18.75)	8,825 (16.59)	18,687 (17.66)
50대	10,692 (10.00)	10,398 (9.77)	21,090 (9.89)	4,096 (11.08)	3,849 (11.05)	7,945 (11.06)	5,629 (10.70)	5,164 (9.71)	10,793 (10.20)
60대	4,542 (4.25)	5,126 (4.82)	9,668 (4.53)	1,807 (4.89)	2,075 (5.96)	3,882 (5.41)	2,572 (4.89)	2,881 (5.41)	5,453 (5.15)
70대 이상	2,226 (2.08)	4,235 (3.98)	6,461 (3.03)	1,073 (2.90)	2,212 (6.35)	3,285 (4.57)	1,705 (3.24)	3,176 (5.97)	4,881 (4.61)
합계	106,902 (100)	106,440 (100)	213,342 (100)	36,982 (100)	34,827 (100)	71,809 (100)	52,599 (100)	53,209 (100)	105,808 (100)

자료: 최성은 외(2018), <세종시 인구 이동 특성과 정책방향 연구>, 45쪽 참조

- (시·도 간 전입) 30~40대에 해당하는 성인들이 시·도 간 전입의 약 40% 정도를 차지함
 - 30대 시·도 간 전입비율: 남자 24.28%, 여자 25.24%
 - 40대 시·도 간 전입비율: 남자 18.53%, 여자 15.90%
 - 미취학 및 학령기에 해당하는 인구가 시·도 간 전입인구의 약 25.61%를 차지함. 따라서 30~40대의 경우, 자녀를 둔 학부모 세대가 다수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음
- (시·도 간 전출) 30대 남녀 비율이 가장 높으나, 20대의 전출자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 30대 시·도 간 전출비율: 남자 23.8%, 여자 21.91%
 - 20대 시·도 간 전출비율: 남자 21.66%, 여자 21.13%
- 시·도 간 전입의 주 대상자 집단: 학부모 세대의 성인과 그들의 자녀에 해당하는 미취학·학령기 아동·청소년

○ 시·도 간 전출의 주 대상자 집단: 20~30대 젊은 층이 주도함

2. 혼인상태와 결혼의향

1) 연령별 미혼율 추이(전국 기준)

□ 시·도별 미혼율 변화(2010, 2015년)

[표 2-6] 17개 시·도 미혼율*(2010, 2015년)

(단위: %)

행정구역별	2010년			2015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국	29.6	33.7	25.7	30.5	34.6	26.6
서울특별시	34.8	37.8	32.0	34.7	37.5	32.2
부산광역시	30.3	34.8	26.3	31.0	35.5	26.9
대구광역시	29.9	34.3	25.8	30.5	35.2	26.1
인천광역시	30.4	34.6	26.4	30.9	35.0	26.9
광주광역시	32.0	36.1	28.2	32.9	36.7	29.2
대전광역시	32.4	36.3	28.7	33.2	37.5	29.1
울산광역시	27.8	32.5	23.1	29.4	34.4	24.3
세종특별자치시	30.2	35.2	24.9	28.2	31.3	25.2
경기도	29.4	33.0	26.0	30.2	33.8	26.8
강원도	25.4	30.6	20.5	27.5	32.9	22.3
충청북도	27.2	32.1	22.7	29.2	34.0	24.6
충청남도	26.8	31.8	21.9	28.4	33.4	23.5
전라북도	25.8	30.9	21.1	28.1	33.3	23.2
전라남도	21.2	26.7	16.3	24.6	30.2	19.2
경상북도	25.2	30.5	20.3	27.0	32.4	21.7
경상남도	25.4	30.5	20.5	27.3	32.5	22.2
제주특별자치도	27.4	31.2	23.9	29.6	33.6	25.7

주: 2010년의 경우 세종시 출범이전이므로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 특별센서스(2013)> 자료 활용

*미혼율 = 각 성별의 미혼인구/ 각 성별의 전체인구*100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0·2015 인구주택총조사>, '성, 혼인상태 및 활동제한 유형별 인구(15세 이상)-시·도'; 세종시(2013), <세종시 특별센서스(2013)>, '성별/연령별/혼인상태별 인구(15세이상)'

○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2010, 2015년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미혼율은 세종시와 서울시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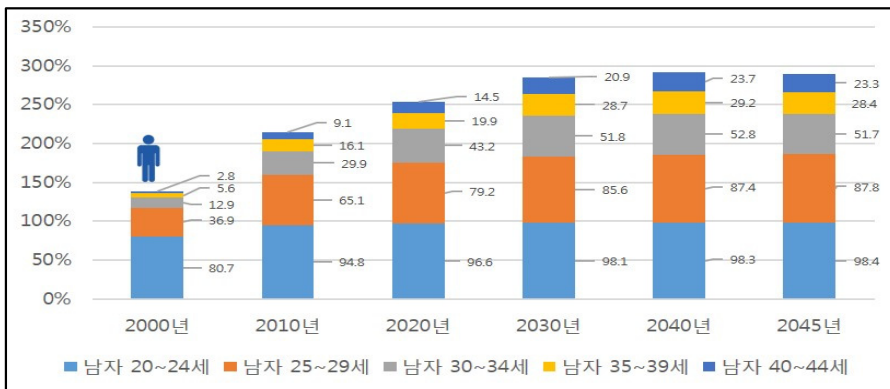
- 세종시의 경우, 2015년 미혼율은 2010년 대비 -2%p 감소함

- 서울시의 경우, 2015년 미혼율은 2010년 대비 -0.1%p 감소함

- (성별 특성) 여성 미혼율은 17개 모든 시·도에서 증가한 반면, 남성의 경우, 세종시와 서울시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 세종시의 경우, 2015년 남성 미혼율은 2010년 대비 -3.9%p 감소함
 - 서울시의 경우, 2015년 남성 미혼율은 2010년 대비 -0.3%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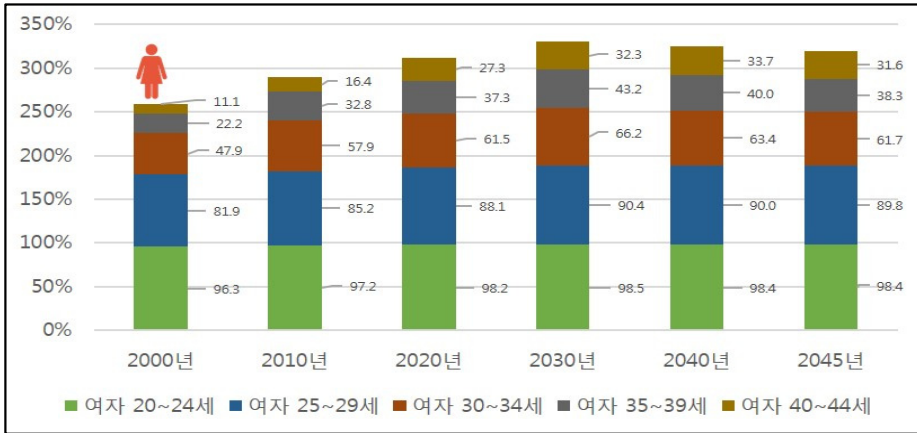
□ **성·연령별 미혼율 전망**

- 성·연령별 미혼율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인구 데이터의 부재로, 통계청이 제공하는 <장래가구추계>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주의 혼인상태로 추정하여 검토함
- 남녀 가구주의 각 연령대별로 미혼인구의 비율을 구하여 살펴봄. 분석 대상인 20~44세에 해당하는 남녀 미혼 가구주는 2000년에서 2045년까지 대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특히, 남자 가구주의 경우 20대 중후반의 미혼율이 높아지고, 여성의 경우 40~44세 여성의 미혼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 2000년도 기준 25~29세의 남자 미혼율은 약 36.9%이었고, 2045년에는 약 87.6%로 예측되어, 약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여성 40~44세 미혼율은 2045년에 31.6%로, 11.1%였던 2000년도에 비해 약 20.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2-10] 전국 연령별 미혼율 추이(남성 가구주)

주: 가구주 미혼율=(각 연령별 및 성별 미혼 가구주 수/ 각 연령별 및 성별 전체 가구주)*100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가구주의 성·연령·혼인상태별 추계가구> 자료 재구성



[그림 2-11] 전국 연령별 미혼율 추이(여성 가구주)

주: 가구주 미혼율=(각 연령별 및 성별 미혼 가구주 수/ 각 연령별 및 성별 전체 가구주)*100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가구주의 성/연령/혼인상태별 추계가구> 자료 재구성

2) 평균 초혼 연령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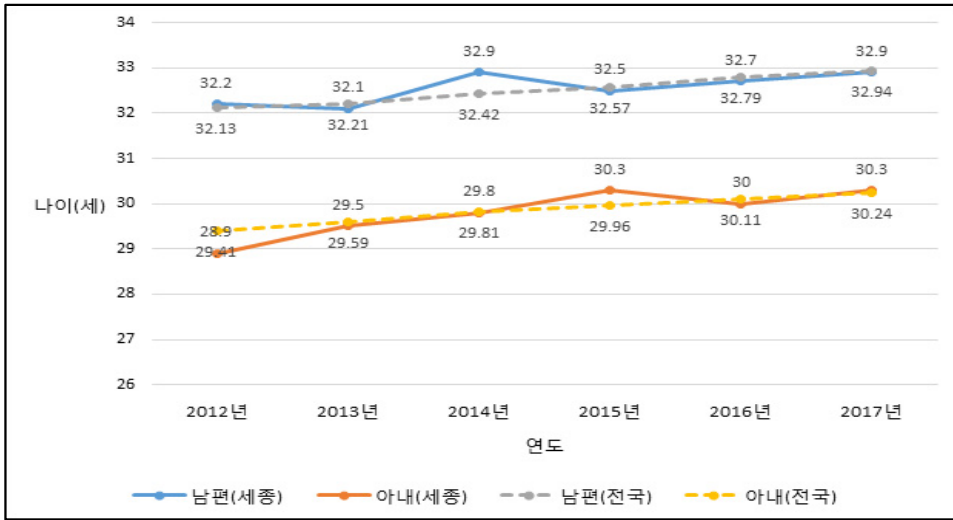
- 전국 평균 초혼연령은 2012년 대비 점차 증가 추세임
 - 2017년 기준, 남편은 32.94세이며, 아내는 30.24세로 6년 전에 비해 각각 0.81세, 0.83세 높아진 것으로 조사됨
- 세종시의 경우 남편과 아내 모두 평균 초혼연령은 증가 추세임. 특히 여성의 초혼연령이 두드러지게 높아짐
 - 2017년 기준, 평균 초혼연령은 남편은 32.9세, 아내는 30.3세임. 아내의 경우, 세종시 출범초기(2012년)에 비하여 1.4세나 증가함. 이는 전국 수준보다 0.57세 높은 수준임

[표 2-7] 평균 초혼 연령 추이

(단위: 세)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7-'12) 증감	
전국	남편(A)	32.13	32.21	32.42	32.57	32.79	32.94	0.81
	아내(B)	29.41	29.59	29.81	29.96	30.11	30.24	0.83
	(A-B)	2.72	2.62	2.61	2.61	2.68	2.70	-0.02
세종	남편(A)	32.2	32.1	32.9	32.5	32.7	32.9	0.7
	아내(B)	28.9	29.5	29.8	30.3	30	30.3	1.4
	(A-B)	3.3	2.6	3.1	2.2	2.7	2.6	-0.7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시·도별 평균초혼연령> 자료 재구성



[그림 2-12] 초혼 연령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시·도별 평균초혼연령> 자료 재구성

3)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전국 기준)

- 이삼식 외(2015)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전국 미혼남녀(20~44세)를 대상으로 결혼 의향을 묻는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설문조사 대상자 중 20~44세 미혼 남성 1,096명과 미혼 여성 1,287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미혼남성의 74.5%, 미혼여성의 64.7%가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미혼남성의 9.9%, 미혼여성의 13.9%는 '현재 결혼할 생각이 없다'라고 응답함. 이는 상대적으로 미혼여성이 미혼남성에 비해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결혼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미혼남녀의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이 조사됨
 -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남성 20%, 여성 23.6%) 라는 응답이 남녀 모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그 다음으로 남성의 경우, 결혼생활비용에 대한 부담(14.5%), 상대방

에게 구속되기 싫어서(9.1%),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9.1%), 소득이 적어서(7.3%), 실업상태(6.4%), 결혼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4.5%) 순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임

- 여성의 경우,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12.9%),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11.8%), 상대방에게 구속되기 싫어서(11.2%),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5.6%), 소득이 적어서(5.6%),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이기 때문에(5.1%),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4.5%) 순으로 높은 응답율을 보였음

-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남녀 격차가 가장 크게 발생한 응답항목은 결혼생활비용에 대한 부담(남성이 여성 응답자보다 11.7%p 더 높은 응답률을 보임)과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여성이 남성응답자에 비하여 7.3% 높은 응답률을 보임)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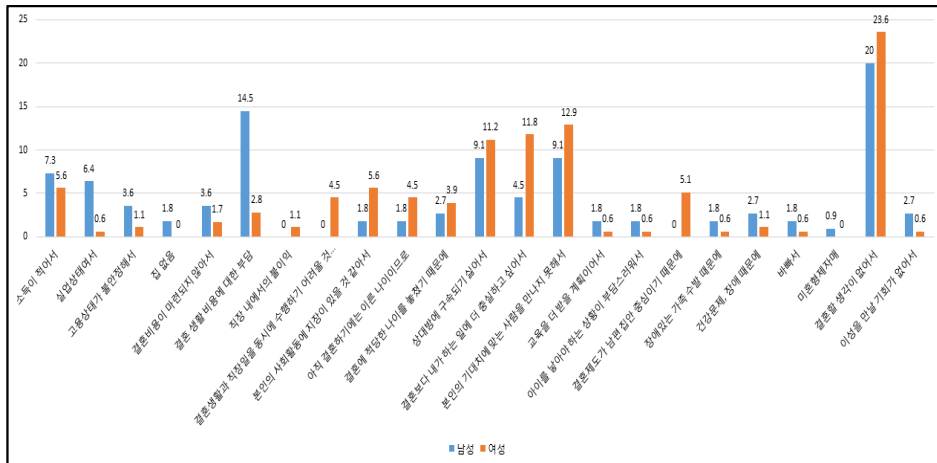
[표 2-8] 미혼남녀의 ‘결혼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남녀격차
경제적 요인	소득이 적어서	6.3	7.3	5.6	1.7
	실업상태여서	2.8	6.4	0.6	5.8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2.1	3.6	1.1	2.5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0.7	1.8	0.0	1.8
	결혼비용이 마련되지 않아서	2.4	3.6	1.7	1.9
	결혼 생활 비용에 대한 부담	7.3	14.5	2.8	11.7
사회적 요인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	0.7	-	1.1	-1.1
	결혼생활과 직장일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2.8	-	4.5	-4.5
	결혼생활로 인해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4.2	1.8	5.6	-3.8
가치관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이므로	3.5	1.8	4.5	-2.7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3.5	2.7	3.9	-1.2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10.4	9.1	11.2	-2.1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	9.0	4.5	11.8	-7.3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11.5	9.1	12.9	-3.8
	교육을 더 받을 계획이어서	1.0	1.8	0.6	1.2
	결혼을 하면 응당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1.0	1.8	0.6	1.2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남녀격차
가족요인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이기 때문에	3.1	-	5.1	-5.1
	장애 또는 만성질환을 경험하는 가족 수발 때문에	1.0	1.8	0.6	1.2
건강	건강문제, 장애 때문에	1.7	2.7	1.1	1.6
기타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1.0	1.8	0.6	1.2
	형이나 언니가 아직 미혼	0.3	0.9	-	0.9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22.2	20.0	23.6	-3.6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1.4	2.7	0.6	2.1
전체		100 (288)	100 (110)	100 (178)	0

자료: 이삼식 외(2015),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표11-6> 395쪽 재구성



[그림 2-13]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이유 남녀 응답

자료: 이삼식 외(2015),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표11-6> 395쪽 재구성

3. 임신·출산·경력단절

1)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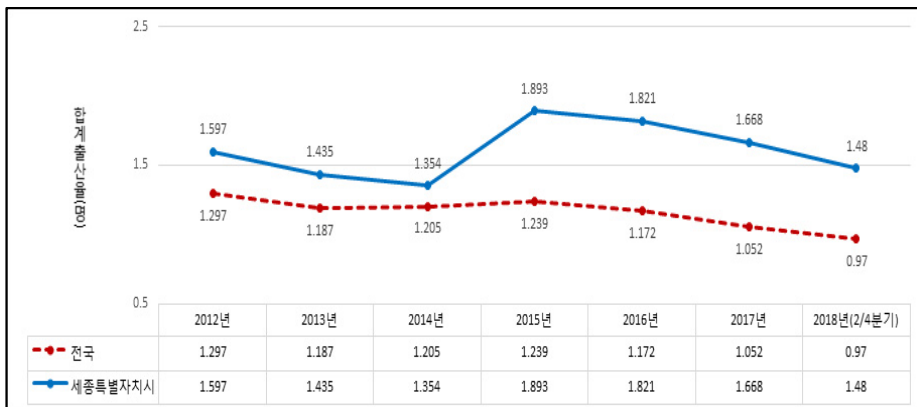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표 2-9] 합계출산율

(단위: 명)

연도 지역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2/4분기
전국	1.297	1.187	1.205	1.239	1.172	1.052	0.97
서울특별시	1.059	0.968	0.983	1.001	0.940	0.836	0.75
부산광역시	1.135	1.049	1.090	1.139	1.095	0.976	0.92
대구광역시	1.217	1.127	1.169	1.216	1.186	1.067	1.01
인천광역시	1.301	1.195	1.212	1.216	1.144	1.007	0.99
광주광역시	1.295	1.170	1.199	1.207	1.168	1.053	1.00
대전광역시	1.315	1.234	1.250	1.277	1.192	1.075	0.99
울산광역시	1.481	1.391	1.437	1.486	1.418	1.261	1.14
세종특별자치시	1.597	1.435	1.354	1.893	1.821	1.668	1.48
경기도	1.355	1.226	1.241	1.272	1.194	1.069	0.99
강원도	1.374	1.249	1.248	1.311	1.237	1.123	1.04
충청북도	1.485	1.365	1.363	1.414	1.358	1.235	1.16
충청남도	1.571	1.442	1.421	1.480	1.395	1.276	1.17
전라북도	1.440	1.320	1.329	1.352	1.251	1.151	1.03
전라남도	1.642	1.518	1.497	1.549	1.466	1.325	1.24
경상북도	1.489	1.379	1.408	1.464	1.396	1.256	1.17
경상남도	1.503	1.367	1.409	1.437	1.358	1.227	1.13
제주특별자치도	1.598	1.427	1.481	1.477	1.432	1.305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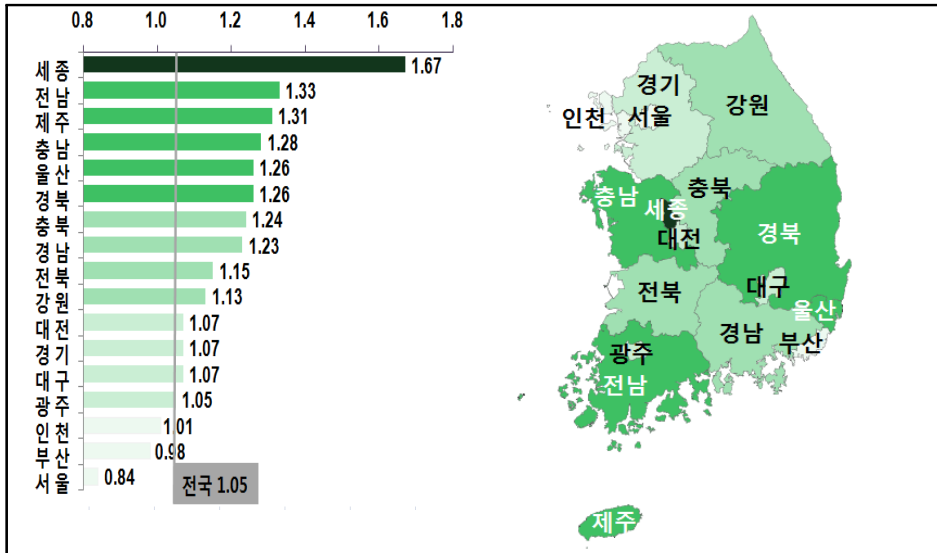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8), <2018년 6월 인구동향>, '합계출산율', 4쪽 재구성



[그림 2-14] 합계출산율 비교(전국 vs. 세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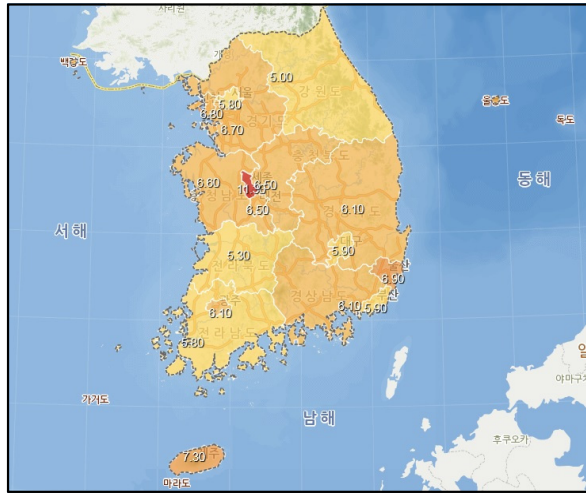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7), <인구동향조사>, '시·도/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자료 재구성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Id=DT_1B81A21&conn_path=I3

[표 2-10] 시·도별 합계출산율(2017년 기준)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8), <2017년 인구동향조사: 출산·사망통계잠정결과>, 11쪽(2018년 2월)

- 2018년 2/4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은 1명 이하로 떨어졌음. 대부분의 시·도가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이거나 1.1명대에 그친 반면, 세종시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1.48명으로 분석됨.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임
 - 전국 합계 출산율은 2012년에 비해 2016년에 약 0.125명 감소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출산율 감소현상에 주목해야 함
 - 세종시의 합계출산율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감소 후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급격히 상승세로 돌아섰음. 그러나 2017년 이후 상승세는 주춤하고 있어 그 변화에 주목해야 함
- **조출생률(crude birth rate)**
 - (조출생률 현황) 세종시의 조출생률은 2018년 6월 기준 11.3명으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높음(전국 평균 6.3명)
 - 조출생률이란, 총 출생아수를 당해년도의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임
 - 광역시·도 중 강원도의 조출생률이 5명으로 가장 낮았고, 세종시의 경우 강원도의 두 배 이상일 정도로 조출생률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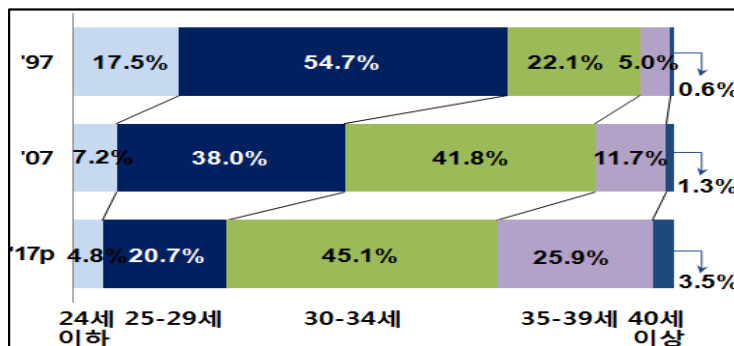


[그림 2-15] 2018년 6월 조출생률 현황

주: 특정인구집단의 출신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의 총 출생아수를 당해년도의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조출생률 = (특정 1년간의 총출생아수)/(당해년도의 연앙 인구) * 1,000

자료: SGIS(통계지리정보서비스) KOSIS(지역통계).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2018년 6월 인구동향 <https://sgis.kostat.go.kr/view/map/interactiveMap/companyView#>

2) 아이 출생 시 엄마 평균 연령 추이



[그림 2-16] 엄마의 연령별 출생아 구성비 (1997, 2007, 2017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8), <2017년 인구동향조사> '출산·사망통계잠정 결과', 6쪽(2018년 2월)

- 전국 엄마들의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첫째 자녀 출생 평균연령도 높아지고 있음
- 통계청 보도자료(2018)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엄마의 평균 출산연령은

- 첫째아 기준 31.6세, 둘째아 기준 33.4세, 셋째아 기준 34.9세로 조사됨
- 35세 이상을 고령 산모라고 분류할 때, 해당 산모구성비는 29.4%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3) 불임치료 경험 있는 남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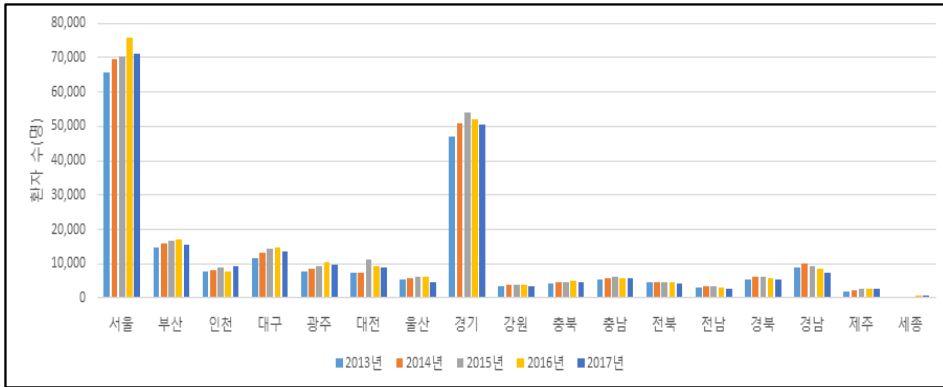
- 전국적으로 불임치료를 경험한 환자의 수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함. 2017년에 이르러 전년 대비 약 4.7% 감소함
- 2017년 세종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불임치료를 경험한 남녀의 경우 전국 208,703명 중 633명(약 0.3%)으로 집계됨
- 한편, 세종시의 경우 2017년의 불임치료 경험 남녀 수가 2016년 대비 약 10.1% 증가 한 것으로 조사됨

[표 2-11] 불임치료 경험 남녀 수

(단위: 환자 수)

요양기관 소재지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서울	65,636	69,411	70,251	75,642	71,305
부산	14,778	15,843	16,806	17,117	15,534
인천	7,732	8,259	8,754	7,934	9,420
대구	11,840	13,019	14,211	14,876	13,736
광주	7,641	8,368	9,283	10,508	9,737
대전	7,437	7,456	11,428	9,402	9,002
울산	5,319	5,957	6,277	6,018	4,687
경기	47,095	51,056	54,016	52,018	50,686
강원	3,433	3,853	3,811	3,769	3,482
충북	4,073	4,648	4,837	4,900	4,609
충남	5,514	5,690	6,054	5,740	5,963
전북	4,644	4,785	4,794	4,481	4,227
전남	3,132	3,585	3,350	3,079	2,802
경북	5,544	6,208	6,219	5,985	5,427
경남	8,790	10,075	9,145	8,369	7,479
제주	1,817	2,229	2,572	2,761	2,883
세종	82	176	406	575	633
합계	192,457	208,005	217,905	219,110	208,703

주: <국민관심질병 요양기관 소재지별 현황(심사년도별)> 자료 중 '불임'항목의 환자 수
 자료: 보건 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 <국민관심질병 요양기관 소재지별 현황> 자료 재구성



[그림 2-17] 불임 치료 경험자 추이

주: <국민관심질병 영양기관 소재지별 현황(심사년도별)> 자료 중 '불임' 항목의 환자 수
 자료: 보건 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 <국민관심질병 영양기관 소재지별 현황> 자료 재구성

4) 기대자녀수와 실제 자녀수 차이

□ 부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아이 수와 계획한 아이수

- 기대자녀수(Expected number of children)는 실제 자녀수와 향후 부부가 추가 계획하는 자녀수를 합한 값을 의미함. 비교적 최근에 결혼한 부부일수록 기대자녀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1950년에서 1954년 사이에 결혼한 부부의 기대자녀수: 4.5명
 - 2005년에서 2009년 사이에 결혼한 부부의 기대자녀수: 1.9명
- 출생아수도 크게 감소했으며, 2005년에서 2009년 사이 결혼한 부부의 실제 출생아수는 1.77명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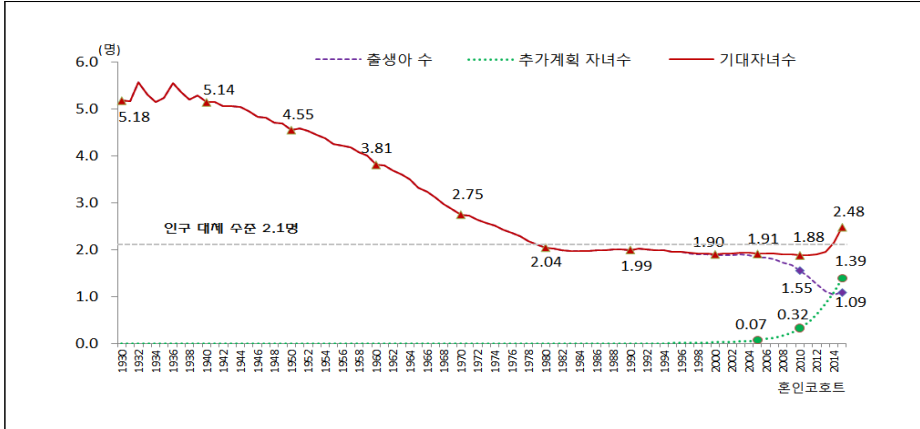
[표 2-12] 혼인 코호트별 출생아수 vs. 기대 자녀수

(단위: 명)

혼인 코호트	'50~ '54	'55~ '59	'60~ '64	'65~ '69	'70~ '74	'75~ '79	'80~ '84	'85~ '89	'90~ '94	'95~ '99	'00~ '04	'05~ '09	'10~ '15
출생아 수	4.49	4.14	3.68	3.09	2.64	2.26	2.0	1.99	2.0	1.93	1.88	1.77	1.32
기대 자녀수	4.49	4.14	3.68	3.09	2.64	2.26	2.0	1.99	2.0	1.94	1.92	1.91	2.07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i쪽(2017년 11월)

[표 2-13] 혼인 코호트별 출생아수와 기대자녀수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i쪽(2017년 11월)

5) 경력단절

기혼여성이 희망하는 일 지속기간

[표 2-14] 기혼여성 희망 일 지속기간

(단위: %)

구분	출산, 양육 관계없이	임신	출산	자녀					기타	합계
				초등학교	대학교 진학	대학교 졸업	취업	결혼		
기혼여성	74.0%	1.1%	1.1%	1.8%	2.8%	6.1%	3.6%	6.6%	3.0%	100% (6,216명)

자료: 이삼식 외(2015),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재구성

- 기혼여성이 희망하는 일의 지속기간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기혼여성 6,216명 중 약 74%가 출산과 양육에 관계없이 일을 계속하기를 희망함
- 그 다음으로 '자녀의 결혼시까지 일을 계속하기를 원한다'는 응답자가 약 6.6%, '자녀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일하기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6.1%로 조사됨

□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사유

[표 2-15] 기혼여성(15~49세) 경력단절 사유 조사결과

(단위: %)

구분	일하고 싶지 않아서	육아 전념 희망	가사	남편, 시댁 반대	직장-집 먼 거리	인사상 불이익	기타	합계
결혼 전후 6개월 내	20.1	16.1	30.8	9.6	11.5	4.1	7.8	100.0 (1,838명)
첫째아 출산 전후 6개월 내	0.0	82.3	4.6	3.1	3.3	2.0	4.8	100.0 (1,823명)
둘째아 출산 전후 6개월 내	0.0	89.7	3.0	1.1	0.7	3.1	2.4	100.0 (1,823명)

자료: 이삼식 외(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269~275쪽 재구성

○ 전국 기혼여성(15~49세)를 대상으로 결혼 전후 6개월 내, 첫째아 출산 전후 6개월 내, 둘째아 출산 전후 6개월 내에 경력단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이삼식 외, 2015, 269~275쪽)

- 결혼 전후 6개월 내 경력단절 사유: 가사 > 일하고 싶지 않아서 > 육아 전념 희망 > 직장-집 먼 거리 순으로 조사됨
- 첫째아 출산 전후 6개월 내 경력단절 사유: 육아전념희망 > 기타 > 가사 순으로 조사됨
- 둘째아 출산 전후 6개월 내 경력단절 사유: 육아전념희망 > 인사상 불이익 > 가사 순으로 조사됨

○ 기혼여성의 육아 부담이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임을 확인 할 수 있음. 결혼 초기 경력단절이 발생한 기혼여성의 사유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편이나, 자녀 출산 이후 발생한 경력단절의 경우, '육아전념'사유가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음

□ 세종시 여성 경력단절 현황

- 세종시 여성 취업자 특성을 살펴보면 중·고령 저학력 여성중심으로 일자리가 매칭되고 있어 30~40대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구인처 발굴 및 알선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최성은 외, 2018, 116쪽)
- 30대~40대 및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고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세종 새일센터 구직자 연령별 건수를 살펴보면 40~49세, 30~39세 순으로 가장 많고, 학력별 구직자 건수는 초대졸에서 대졸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된 바 있음
- 반면 취업연령별 건수는 40~49세, 50~59세 순이며, 취업자 학력별 건수는, 전문대졸 이상의 구직건수에 비해 고졸의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함

4. 소결

- (시·도별 인구 변화 특성) 세종시의 경우, 장래인구변화, 남녀 인구 밸런스, 인구 이동 측면에서 타 시·도에 비하여 안정적인 상태임
 - (인구 증감) 2040년부터 총인구가 감소 될 전망으로, 17개 시·도 중 2번째로 총인구 감소가 늦게 시작될 것으로 보임
 - (남녀 인구 밸런스) 출범 초기와는 달리,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해 남녀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편임
 - (인구 이동) 시·도 간 유입 인구가 시·도 간 유출 인구보다 많은 순이동 (+)이 높게 유지될 전망이나, 20~30대 젊은 층 유출에 대한 대응 정책이 필요함
- (혼인상태와 결혼의향 특성) 미혼인구 증가와 만혼화 현상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미혼 인구 특징) 전국적으로 20~44세 남녀 미혼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40~44세 여성 미혼율이 증가될 전망이다. 따라서 만혼화·비혼현상 심화와 더불어 초혼연령과 첫 아이 출산연령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초혼 연령 특징) 세종시의 경우 출범초기인 2012년에 비하여 남녀 초혼연령이 전국 수준보다 높은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임
- (임신·출산 특성) 지속적인 출산율 제고 방안 및 첫 아이 출산 엄마 연령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 대응정책 마련이 필요함

- (합계출산율)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출범이후 약 2년간은 감소추세에 있다가, 2014년부터 증가추세에 들어섰음. 전국 평균과의 비교에서는 월등히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나, 출산율 자체가 높은 것은 아니므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불임치료 경험자) 불임치료를 받은 남녀 비율은 타 광역시·도에 비하여 그 정도가 높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향후 저출산 대책에 불임치료와 관련한 정책지원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경력단절 특성) 세종시의 경우,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이 많은 지역임. 이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함

출산감소 지역 유형 분류

제1절 유형 분류 개요

제2절 그룹별 특징 분석 및 장래 인구 추계

제3절 소결

제3장 출산감소 지역 유형분류

제1절 유형 분류 개요

1. 유형 분류를 위한 지표 선정

□ 지표 선정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 본 연구에서는 가케이 유스케(2016)가 그의 연구에서 일본의 인구감소의 3대 원인으로 지목한 ‘기혼율 저하, 젊은 여성의 감소, 부부 평균 아이 수 감소’가 우리나라 인구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고 전제함
- 이에 우리나라 17개 광역시·도의 출산감소 유형분류를 위하여 3가지 지표를 사용하고자 함
 - (X축) 20~44세의 젊은 여성이 각 시·도에서 차지하는 비율
 - (Y축) 각 시·도에 거주하는 20~44세 여성의 기혼 비율
 - (Z축) 각 시·도의 출산 가능한 15~49세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합계출산율)

□ 지표 측정 방법

- 유형화 분류의 기준년도는 2017년임.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출범초기부터 세종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었기 때문에, 속한 그룹에 변화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2012년도와 2015년도의 유형분류를 추가로 실시하여 제시함
- (X축) 20~44세 여성 비율([부표 1-4, 1-5, 1-6] 참조)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 제공하는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 (1세, 5세별/시·도)’ 자료를 활용함. 해당 자료는 통계청이 2017년 6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임(자료 검색일: 2018년 7월 26일)²⁾

2) 작성 대상 인구는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인구(외국인 포함)이며, 해당 자료의 경우 1970년부터 2015년까지는 확정인구를 포함하고, 2016년 이후는 다음 인구 추계 시 변경 가능성을 밝히고 있음

- 장래인구추계는 저, 중, 고위추계로 이루어 제공됨. 고위추계는 최대인구, 저위추계는 최소인구추계임. 본 연구에서는 기본추계인 ‘중위추계 인구’ 자료를 활용함
- 해당 자료에서 제공하는 각 시·도별 전체인구대비 20~44세 여성의 인구 비율을 ‘20~44세의 젊은 여성이 각 시·도에서 차지하는 비율(X축)’의 대리 변수로 사용하고자 함

○ (Y축) 20~44세 기혼여성 비율([부표 1-7, 1-8] 참조)

- 통계청의 <2010년 인구총조사> 전수조사, <2015년 인구총조사> 20%표본 자료를 활용함. 세종시의 경우, 2013년 <2013 세종시 특별센서스> 자료를 활용함
- 혼인상태별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임
- 본 연구에서는 ‘Y축 20~44세 기혼여성 비율지표’의 대리변수로서, 각 연도별 조사자료 응답대상자 중 20~44세 여성 인구 대비 20~44세 배우자 있는 여성 인구 비율을 사용하고자 함

- 2012년 여성 기혼율 산출: <2010년 인구총조사> 전수자료 활용. 20~44세 여성 인구 대비 20~44세 ‘배우자 있음’여성 비율로 구함. 세종시의 경우, <2010년 인구총조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2013년 특별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기혼율을 산출하여 포함하였음
- 2015년 여성 기혼율 산출: <2015년 인구총조사> 20% 표본조사자료 활용. 혼인상태별 정보는 20% 표본조사 자료만 제공 되고 있음. 이에, 표본대상 20~44세 여성인구 대비 20~44세 ‘배우자 있음’여성 비율로 구함
- 2017년 여성 기혼율 산출: 인구총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조사로, 이후 자료 구득이 어려움. 이에, <2015년 인구총조사> 20% 표본조사 자료 결과를 대리변수로 활용함

○ (Z축) 합계출산율([부표 1-9] 참조)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동향조사(2000~2017년): 시군구/합계출산율, 모의연령별 출산율’ 자료 활용(자료 검색일: 2018년 10월 19일)

출산감소 지역 유형 분류 및 시각화를 위한 지표값 산출방식

○ (정육면체 시각화) 출산감소 3가지 지표 변수값을 아래와 같이 표준화함

- (X축) 50으로 표준화: 17개 시·도별 전체인구 대비 20~44세 여성인구 비율에 대하여 평균을 구한 후, 50으로 환산한 값
- (Y축) 50으로 표준화: 각 시·도별 20~44세 여성 인구 대비 20~44세 배우자

- 있는 여성인구 비율에 대하여 평균을 구한 후, 50으로 환산한 값
 - (Z축) 50으로 표준화: 17개 시·도별 합계출산율의 평균값을 50으로 환산한 값
- (직육면체 시각화) 17개 광역시·도별 X, Y, Z축 환산값 산출
 - 예: 세종시 (X축) 20~44세 여성비율 = (2017년 기준 비율 값(20.5)/17개 광역시·도 평균비율(16.6))×50 = 61.8
-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산출된 3개 지표 값의 고저에 따라 그룹화를 시·도하고, '과거(2012년) - 현재(2017년) - 미래(2045년)'의 P 지수를 산출하여, 시각화 함([부표 1-10, 1-11] 참조)
 - P 지수란, 각 광역시·도별 2017년 전체 인구를 100으로 산정하여, 비교 대상 연도의 인구를 상대적으로 표기한 수치임. 2017년 P 지수를 기준 (현재)으로 하여, 세종시 출범년도인 2012년(과거)과 2045년 장래 인구 시나리오(미래)를 비교하여 그 특징을 도출함
 - 2017년 인구수가 각 시·도별로 상이하므로, P 지수값 100이 의미하는 인구수는 지자체별로 상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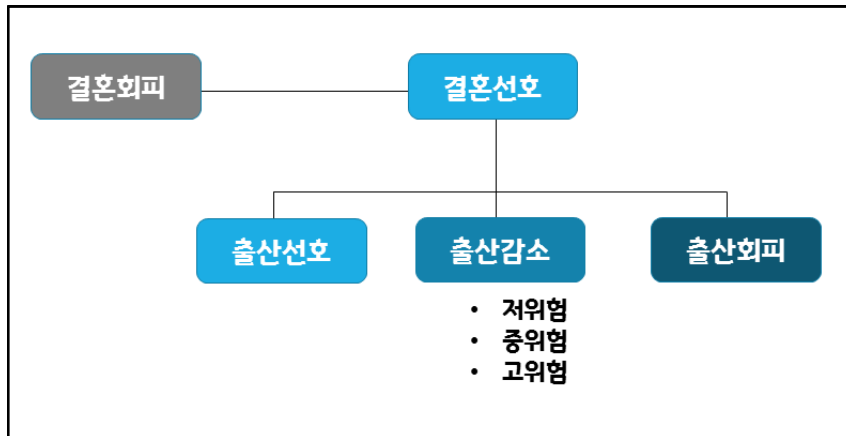
2. 유형화 방법

- (제1단계) 17개 광역시·도의 3개 지표 수치를 표준화함
 - 각각의 지표별 평균값을 구하고, 지표별 평균값을 50으로 환산 한 후, 17개 광역시·도의 편차 값을 구함
- (제2단계) 3개 지표의 평균을 중심으로 지표수준의 고(高)-저(低)를 구분 하여 8가지 경우의 수로 1차 그룹화(2×2×2의 8개 그룹)
 - 각 지표별 50미만은 '저'수준으로, 각 지표별 50이상은 '고'수준으로 분류하여 유형화

[표 3-1] 각 지표 수준별 8개 유형

1차 그룹유형	20~44세 여성 비율 (X축)	20~44세 여성 기혼율 (Y축)	합계출산율 (Z축)	2차 그룹유형*
G1	저	저	고	출산감소 중위험
G2	저	고	고	출산감소 중위험
G3	저	고	저	출산감소 고위험
G4	저	저	저	출산감소 고위험
G5	고	고	저	출산회피
G6	고	고	고	출산선호
G7	고	저	고	출산감소 저위험
G8	고	저	저	결혼회피

주*: 가케이 유스케(2016), <표3-1> 인구감소 그룹유형방식을 차용하여 재구성



[그림 3-1] 2차 그룹 재유형화 명칭 개념도

- (제3단계) 각 지표별 수준에 따라 2차 그룹 재유형화 실시(그림 3-11 2차 그룹 재유형화 명칭 개념도 참조)
 - G1과 G2: 두 그룹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모두 높은 수준을 나타냄. 기혼여성비율은 차이가 있으나, 가임기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여성비율이 낮은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판단되어, 2차 그룹에서는 ‘출산감소 중위험’ 으로 재유형화함
 - G3와 G4: 두 그룹은 합계출산율과 20~44세 여성이 모두 낮은 상황으로, 기혼여성비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차 그룹에서는 ‘출산감소 고위험’ 유형으로 분류함
 - G5: 이 그룹의 경우, 20~44세 젊은 여성 비율이 높고, 기혼비율도 높으나, 합계출산율이 낮은 특성을 보여, 부부 평균 자녀 수를 늘리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음. 이에 단독으로 ‘출산회피’ 유형으로 분류함
 - G6: 이 그룹의 경우, 모든 지표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시급함이 다른 여타 그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출산선호’ 유형으로 분류함
 - G8: 20~44세 기혼여성비율과 합계출산율이 낮으나 해당 연령대의 여성 비율은 높으므로, 이 그룹은 ‘결혼회피’ 유형으로 분류함
 - 한편, G7의 경우, 여성의 기혼율은 낮는데, 합계출산율과 젊은 여성 비율은 높기 때문에, G7그룹과 G8 그룹 중간 정도로 구분하여 ‘출산감소 저위험’ 유형으로 분류함
- (제4단계) 정육면체와 직육면체로 시각화하여 제시
 - 지표별 평균값은 길이가 50인 정육면체로 시각화 하여 제시됨. 6개 그룹의 지표 편차 값을 X축, Y축, Z축으로 하여, 17개 광역시·도에 해당하는 총 17개의 직육면체를 시각화함
 - 두 개의 도형을 중복하여 표출함으로써, 자치단체별로 평균대비 출산감소 유형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함

3. 연도별 유형화 결과와 세종시의 변화

[표 3-2] 세종시 연도별 소속 유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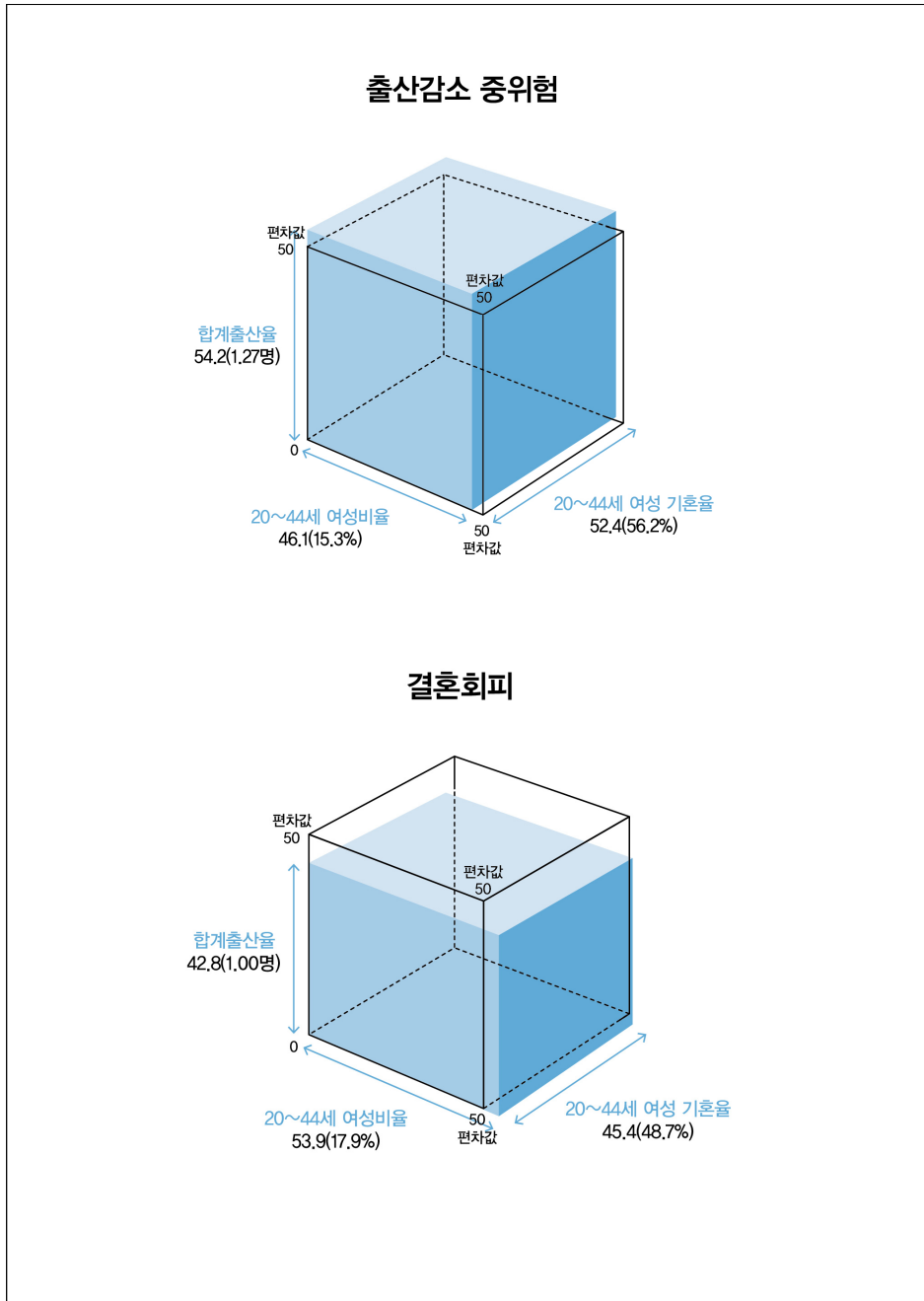
연도 유형구분	2012년	2015년	2017년
출산감소 중위험 (G1:저-저-고)	없음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출산감소 중위험 (G2:저-고-고)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출산감소 고위험 (G3:저-고-저)	강원도	강원도, 전라북도	강원도
출산감소 고위험 (G4:저-저-저)	없음	없음	전라북도
출산회피 (G5:고-고-저)	경기도	광주광역시, 경기도	경기도
출산선호 (G6: 고-고-고)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출산감소 저위험 (G7:고-저-고)	없음	없음	없음
결혼회피 (G8:고-저-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주: [부표 1-12] 연도별 소속 유형 변화(지표 상세표기)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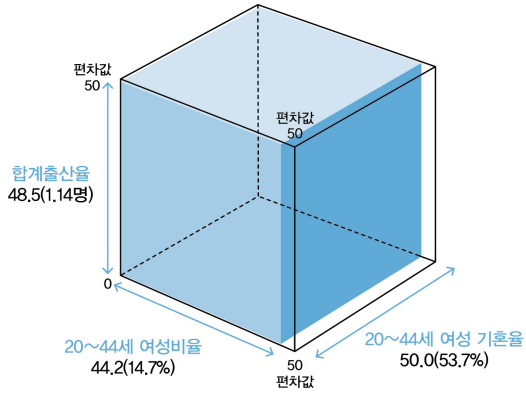
- 연도별 유형분석 결과, 세종시의 경우 2012년 출범당시 '출산감소 중 위험군'에 속했으나 2015년에 울산광역시와 함께 출산선호 유형으로 이동함. 2017년에 이르러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출산선호'그룹으로 분류됨
 - 세종시의 경우, 2012년에는 20~44세 여성 중 기혼율(배우자 있는 해당 연령 여성인구 비율)과 합계출산율은 높은 상황이었으나 20~44세 여성 비율이 낮아, 출산감소 중위험군으로 분류되었음
 - 그러나 2015년에는 20~44세 젊은 여성 인구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선호 유형으로 분류됨
 - 2017년에도 출산선호 유형으로 분류됨

제2절 그룹별 특징 분석 및 장래 인구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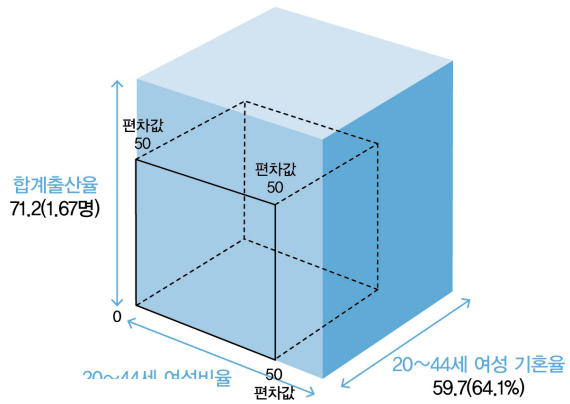
[표 3-3] 출산감소 유형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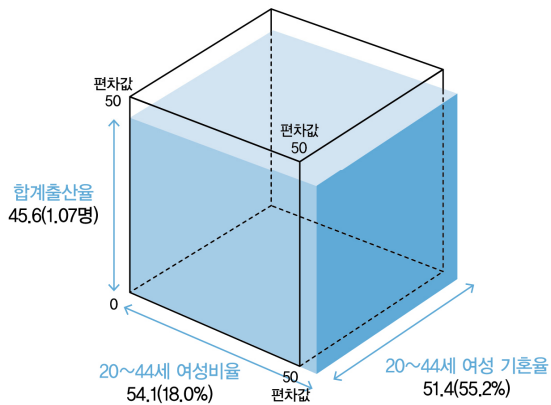
출산감소 고위험



출산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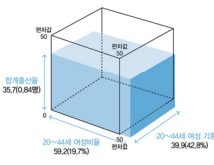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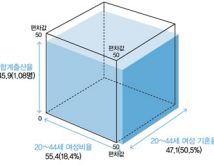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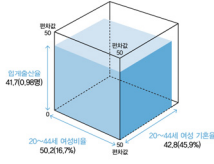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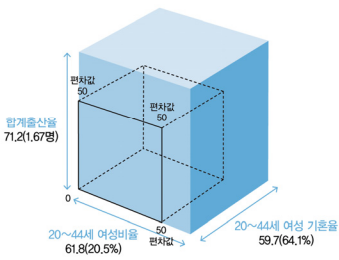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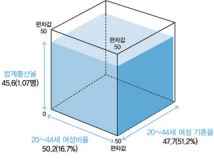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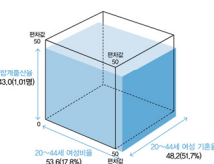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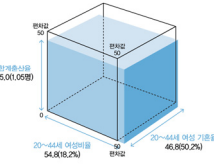


출산회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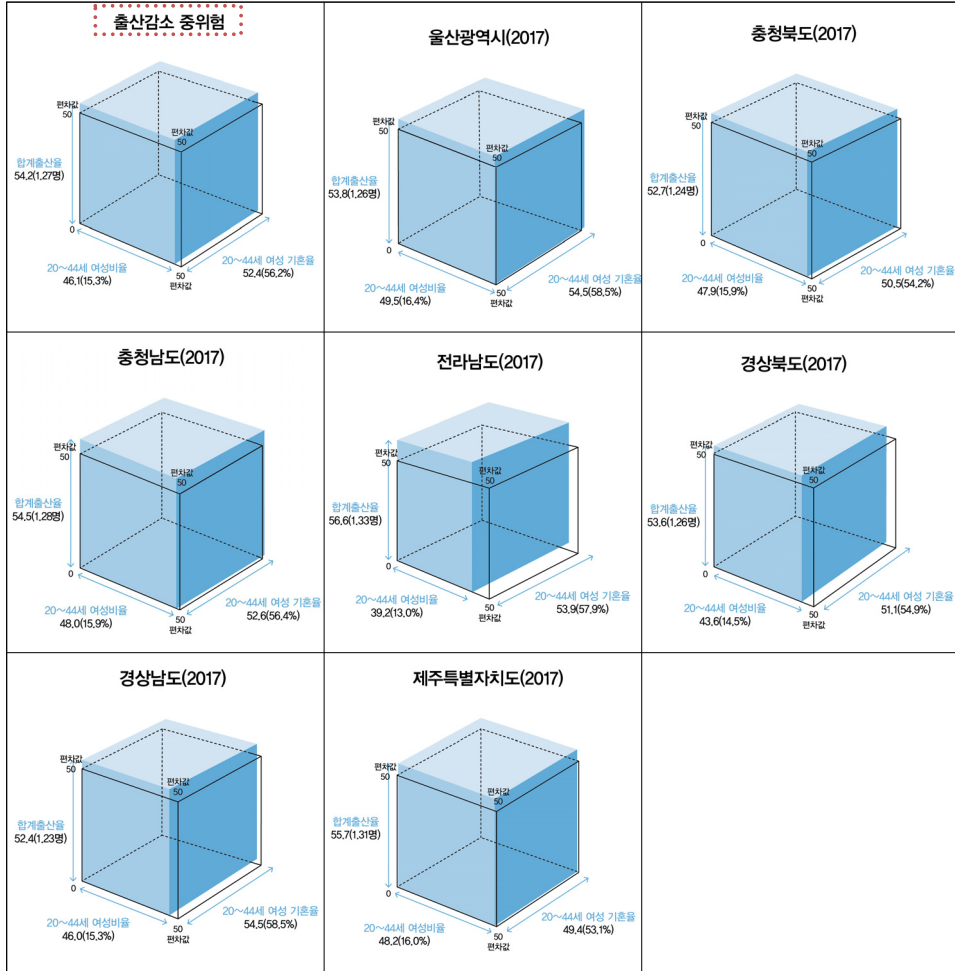
[표 3-4] 출산감소 유형화 결과(17개 시·도 비교)

출산감소 중위험		출산감소 고위험		출산회피	
<p>출산광역시(2017)</p> <p>합계출산율: 53.8(1.20%) 20~44세 여성비율: 49.5(16.4%) 20~44세 여성 기준율: 54.5(58.9%)</p>	<p>경상남도(2017)</p> <p>합계출산율: 52.4(1.22%) 20~44세 여성비율: 46.0(15.3%) 20~44세 여성 기준율: 54.5(58.9%)</p>	<p>강원도(2017)</p> <p>합계출산율: 47.8(1.12%) 20~44세 여성비율: 43.5(14.5%) 20~44세 여성 기준율: 50.8(54.4%)</p>	<p>경기도(2017)</p> <p>합계출산율: 45.6(1.07%) 20~44세 여성비율: 54.1(18.0%) 20~44세 여성 기준율: 59.4(55.2%)</p>		
<p>충청북도(2017)</p> <p>합계출산율: 52.7(1.24%) 20~44세 여성비율: 47.8(15.9%) 20~44세 여성 기준율: 50.5(54.2%)</p>	<p>제주특별자치도(2017)</p> <p>합계출산율: 55.7(1.31%) 20~44세 여성비율: 48.2(16.0%) 20~44세 여성 기준율: 49.4(53.1%)</p>	<p>전라북도(2017)</p> <p>합계출산율: 49.1(1.19%) 20~44세 여성비율: 44.8(14.9%) 20~44세 여성 기준율: 49.4(53.0%)</p>			
<p>충청남도(2017)</p> <p>합계출산율: 54.9(1.28%) 20~44세 여성비율: 48.0(15.9%) 20~44세 여성 기준율: 52.0(56.4%)</p>					
<p>전라남도(2017)</p> <p>합계출산율: 56.6(1.33%) 20~44세 여성비율: 39.2(13.0%) 20~44세 여성 기준율: 53.9(57.9%)</p>					
<p>경상북도(2017)</p> <p>합계출산율: 53.6(1.20%) 20~44세 여성비율: 43.6(14.5%) 20~44세 여성 기준율: 51.1(54.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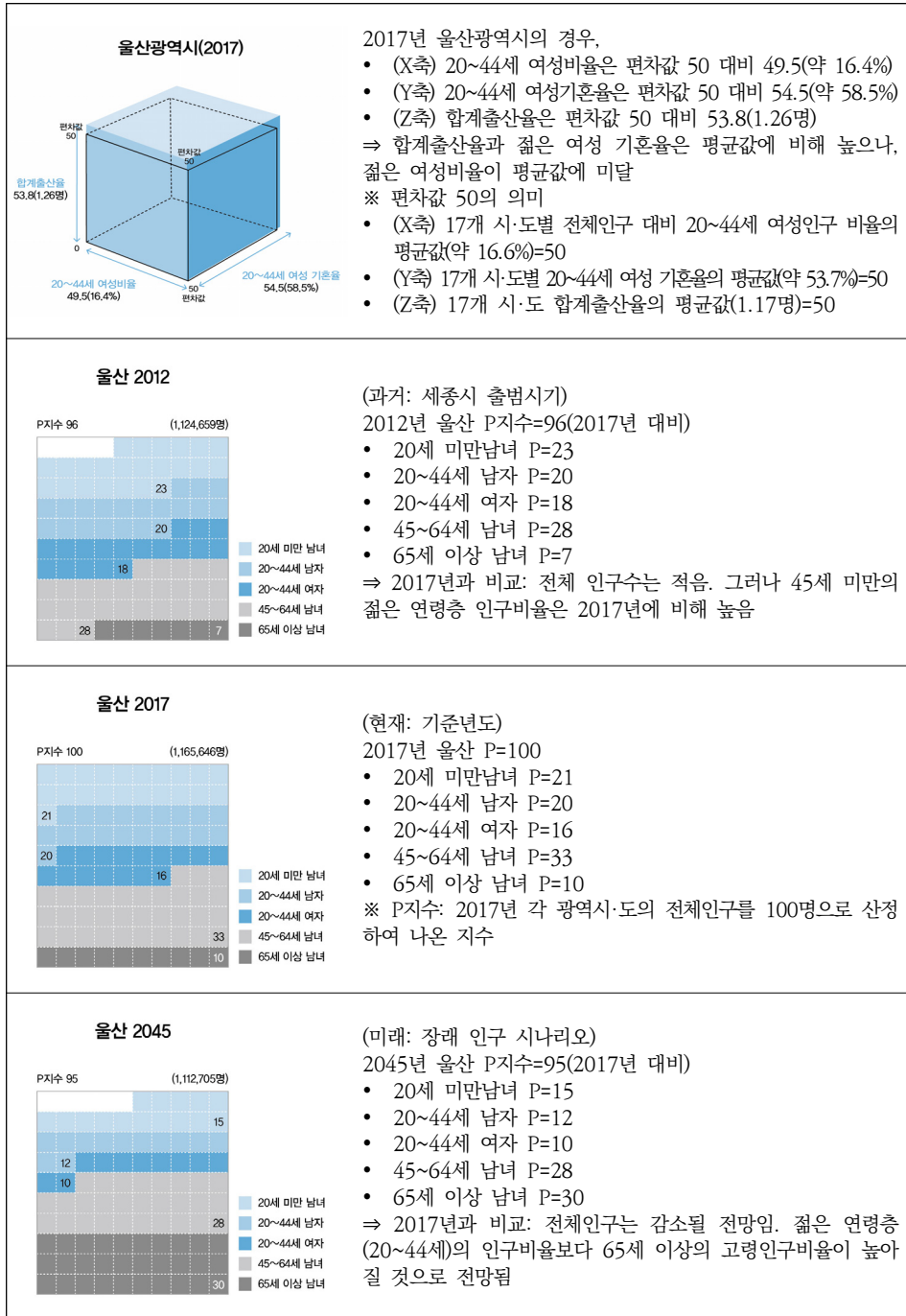
출산전호	결혼희피	
	<p>서울특별시(2017)</p>  <p>합계출산율 35.70(84명) 20~44세 여성비율 59.21(6.7%)</p>	<p>대전광역시(2017)</p>  <p>합계출산율 45.01(99명) 20~44세 여성비율 55.41(8.4%)</p>
	<p>부산광역시(2017)</p>  <p>합계출산율 41.70(86명) 20~44세 여성비율 50.21(6.7%)</p>	
<p>세종특별자치시(2017)</p>  <p>합계출산율 71.21(1.67명) 20~44세 여성비율 61.8(20.5%)</p>	<p>대구광역시(2017)</p>  <p>합계출산율 45.61(97명) 20~44세 여성비율 50.21(6.7%)</p>	
	<p>인천광역시(2017)</p>  <p>합계출산율 43.01(91명) 20~44세 여성비율 53.01(7.8%)</p>	
	<p>광주광역시(2017)</p>  <p>합계출산율 45.01(99명) 20~44세 여성비율 54.81(8.2%)</p>	

1. 유형 ① 출산감소 중(中)위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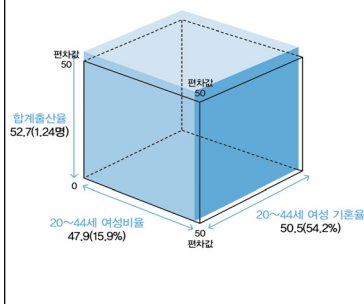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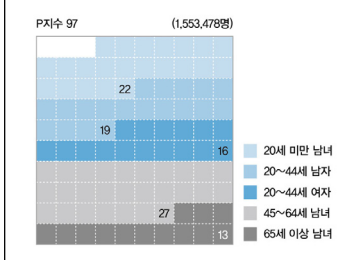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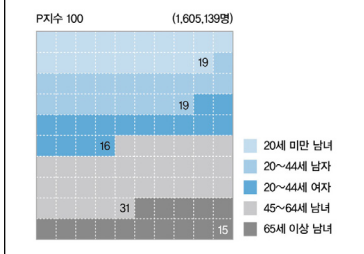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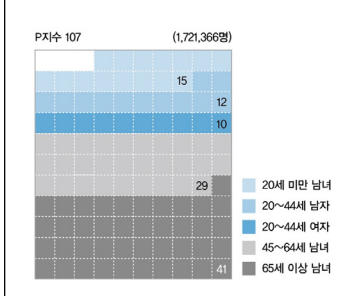
[표 3-5] 출산감소 중위험 유형 지자체(7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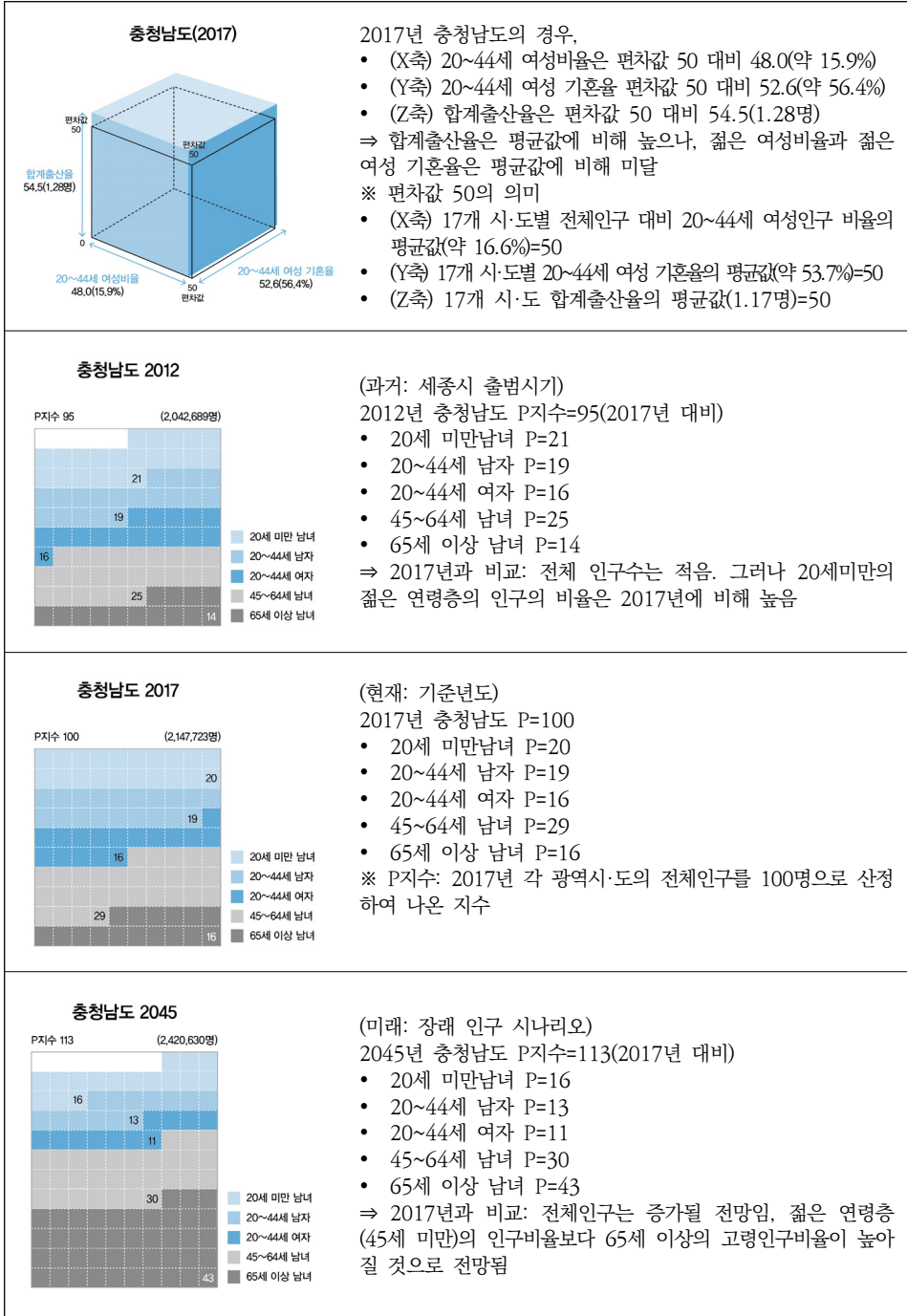
[표 3-6] 출산감소 중위험(울산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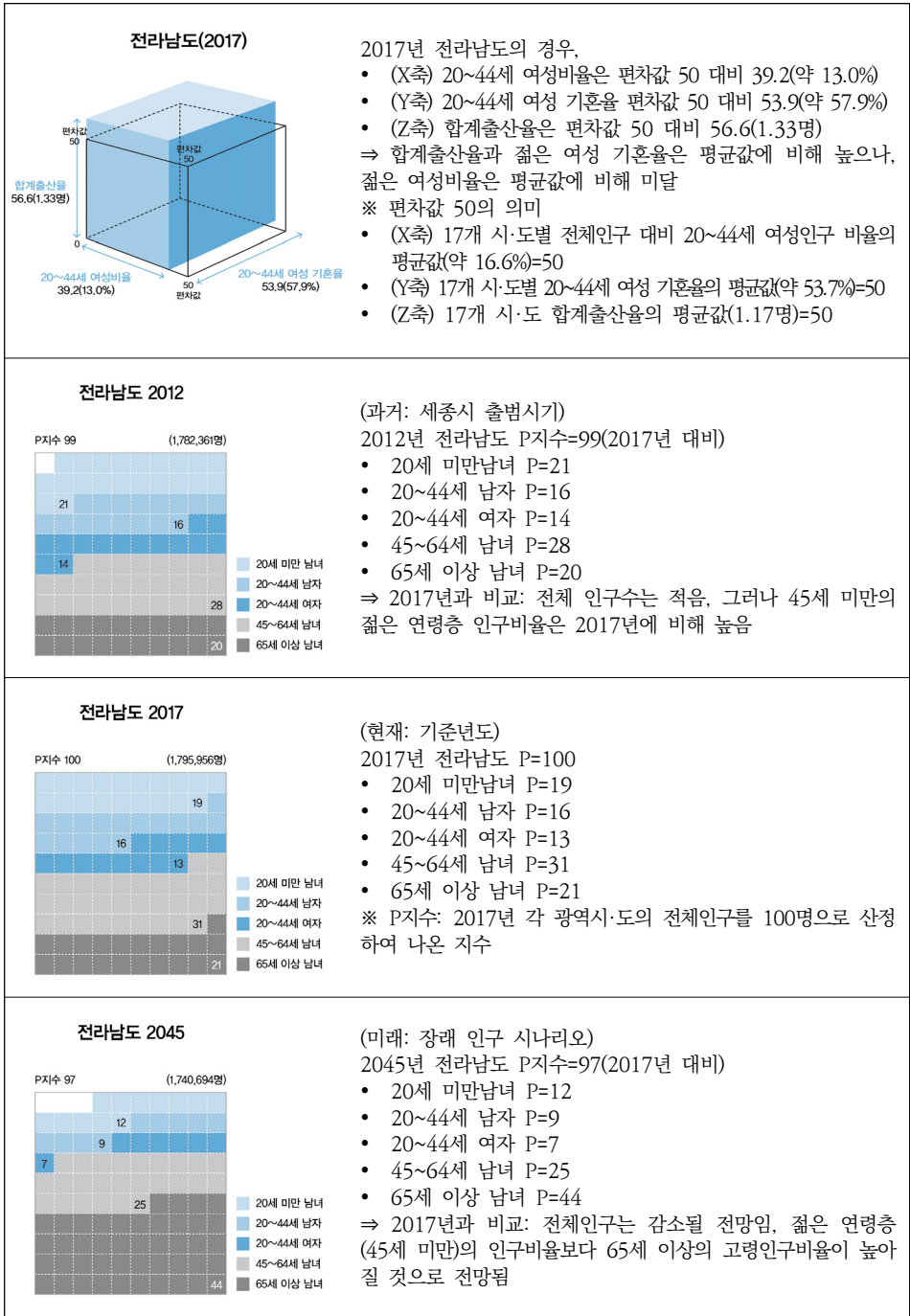
[표 3-7] 출산감소 중위험(충청북도)

<p>충청북도(2017)</p>  <p>편차값 50 합계출산율 52.71(1.24명) 20~44세 여성비율 47.9(15.9%) 편차값 50 20~44세 여성 기혼율 50.5(54.2%) 편차값 50</p>	<p>2017년 충청북도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축) 20~44세 여성비율은 편차값 50 대비 47.9(약 15.9%) • (Y축) 20~44세 여성기혼율은 편차값 50 대비 50.5(약 54.2%) • (Z축) 합계출산율은 편차값 50 대비 52.7(1.24명) <p>⇒ 합계출산율과 젊은 여성 기혼율은 평균값에 비해 높으나, 젊은 여성비율이 평균값에 미달</p> <p>※ 편차값 50의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축) 17개 시·도별 전체인구 대비 20~44세 여성인구 비율의 평균값(약 16.6%)=50 • (Y축) 17개 시·도별 20~44세 여성 기혼율의 평균값(약 53.7%)=50 • (Z축) 17개 시·도 합계출산율의 평균값(1.17명)=50
<p>충청북도 2012</p> <p>P지수 97 (1,553,478명)</p>  <p>20세 미만 남녀 22 20~44세 남자 19 20~44세 여자 16 45~64세 남녀 27 65세 이상 남녀 13</p>	<p>(과거: 세종시 출범시기)</p> <p>2012년 충청북도 P지수=97(2017년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미만남녀 P=22 • 20~44세 남자 P=19 • 20~44세 여자 P=16 • 45~64세 남녀 P=27 • 65세 이상 남녀 P=13 <p>⇒ 2017년과 비교: 전체 인구수는 적음. 그러나 2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 인구비율은 2017년에 비해 높음</p>
<p>충청북도 2017</p> <p>P지수 100 (1,605,139명)</p>  <p>20세 미만 남녀 19 20~44세 남자 19 20~44세 여자 16 45~64세 남녀 31 65세 이상 남녀 15</p>	<p>(현재: 기준년도)</p> <p>2017년 충청북도 P=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미만남녀 P=19 • 20~44세 남자 P=19 • 20~44세 여자 P=16 • 45~64세 남녀 P=31 • 65세 이상 남녀 P=15 <p>※ P지수: 2017년 각 광역시·도의 전체인구를 100명으로 산정하여 나온 지수</p>
<p>충청북도 2045</p> <p>P지수 107 (1,721,366명)</p>  <p>20세 미만 남녀 15 20~44세 남자 12 20~44세 여자 10 45~64세 남녀 29 65세 이상 남녀 41</p>	<p>(미래: 장래 인구 시나리오)</p> <p>2045년 충청북도 P지수=107(2017년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미만남녀 P=15 • 20~44세 남자 P=12 • 20~44세 여자 P=10 • 45~64세 남녀 P=29 • 65세 이상 남녀 P=41 <p>⇒ 2017년과 비교: 전체인구는 증가될 전망이다. 젊은 연령층(45세 미만)의 인구비율보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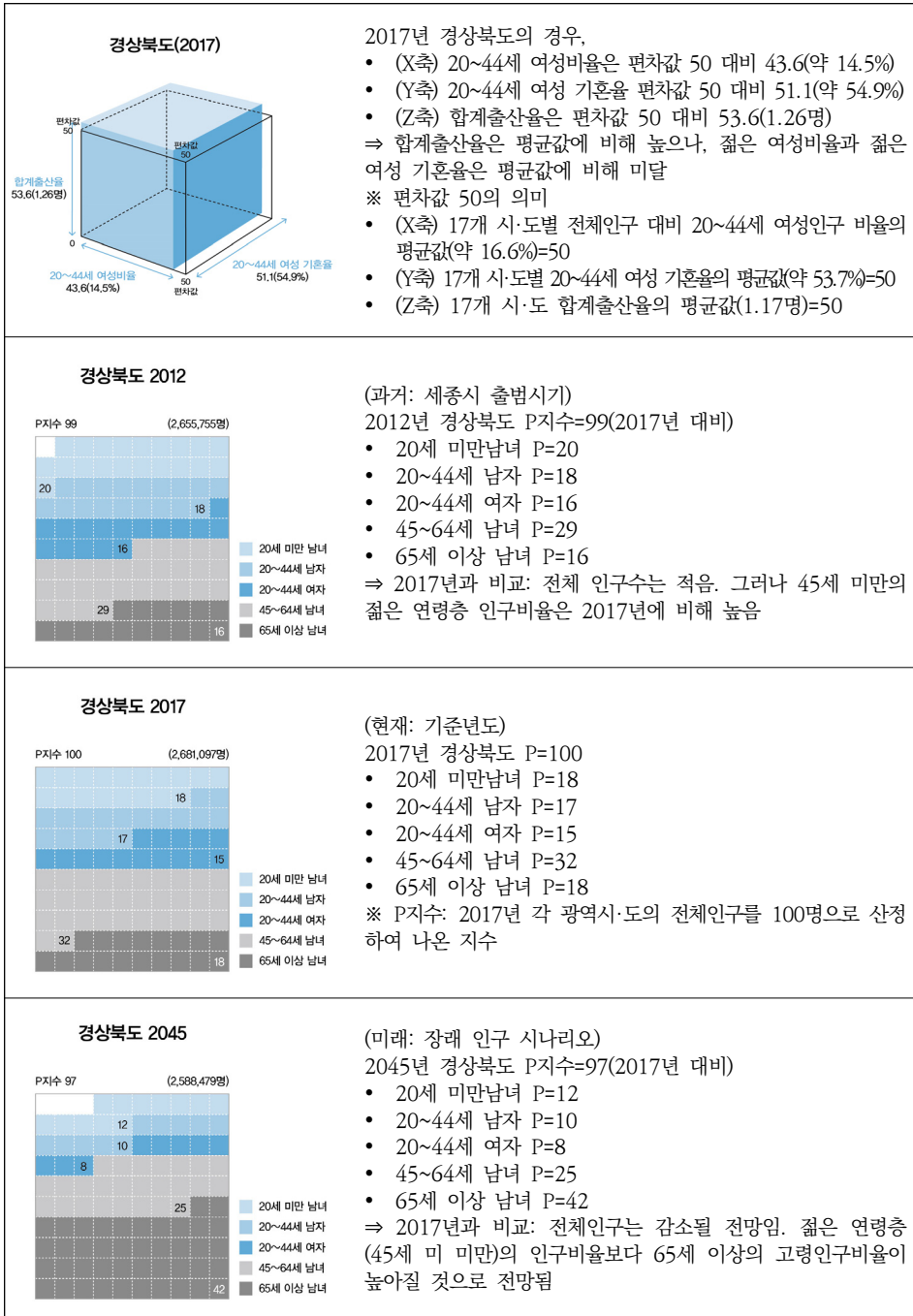
[표 3-8] 출산감소 중위험(충청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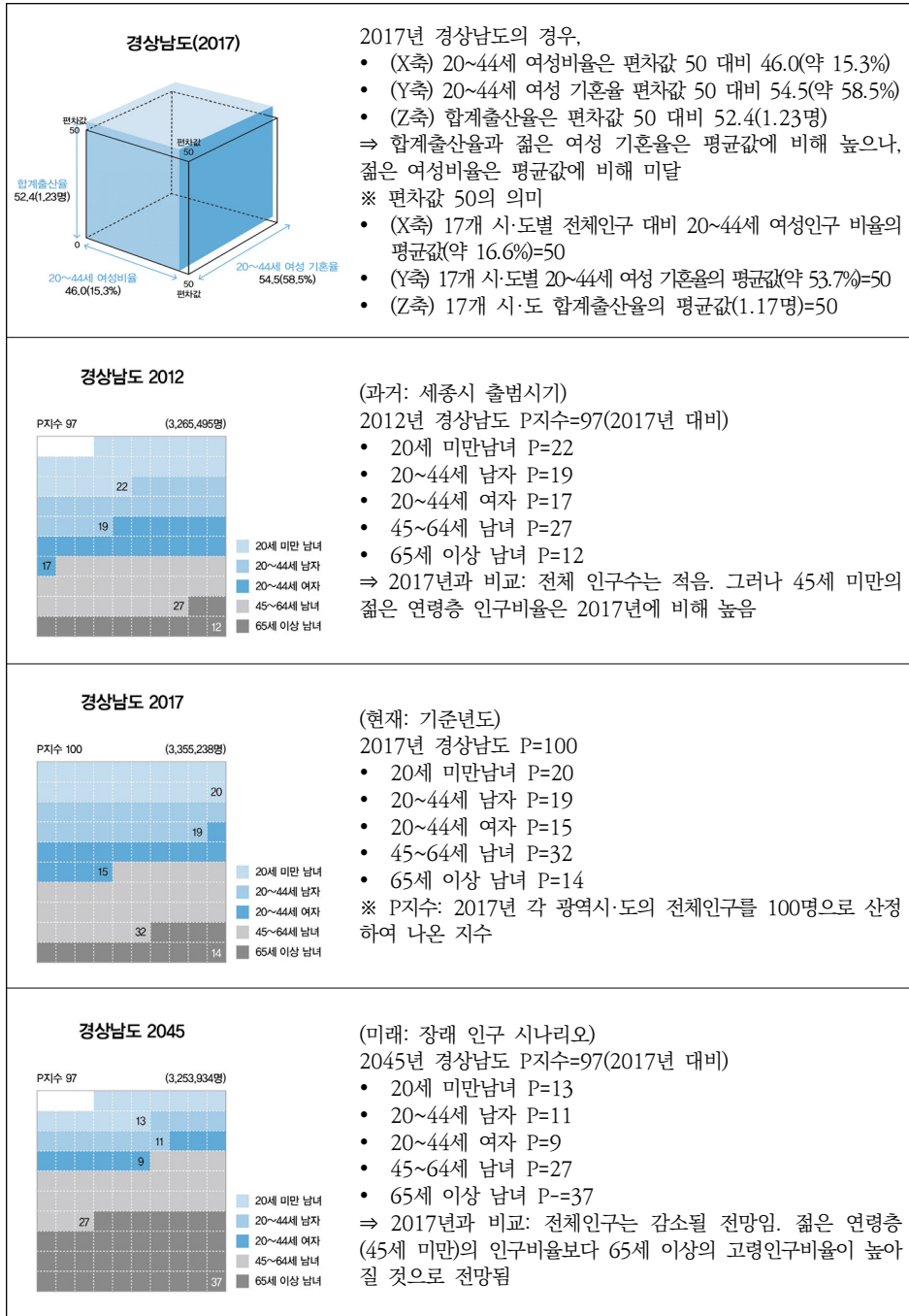
[표 3-9] 출산감소 중위험(전라남도)



[표 3-10] 출산감소 중위험(경상북도)



[표 3-11] 출산감소 중위험(경상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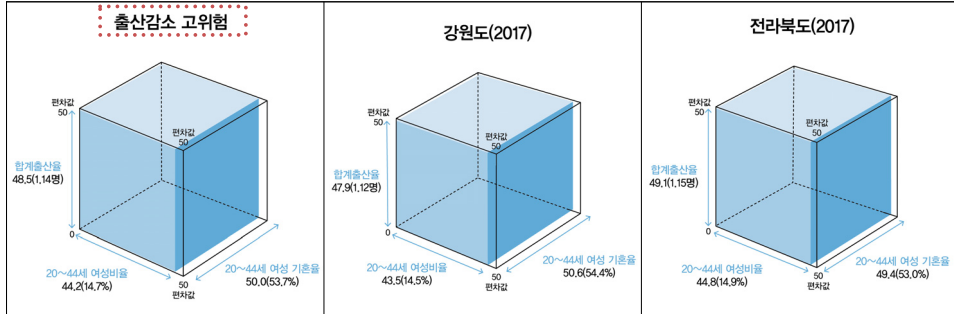


[표 3-12] 출산감소 중위험(제주특별자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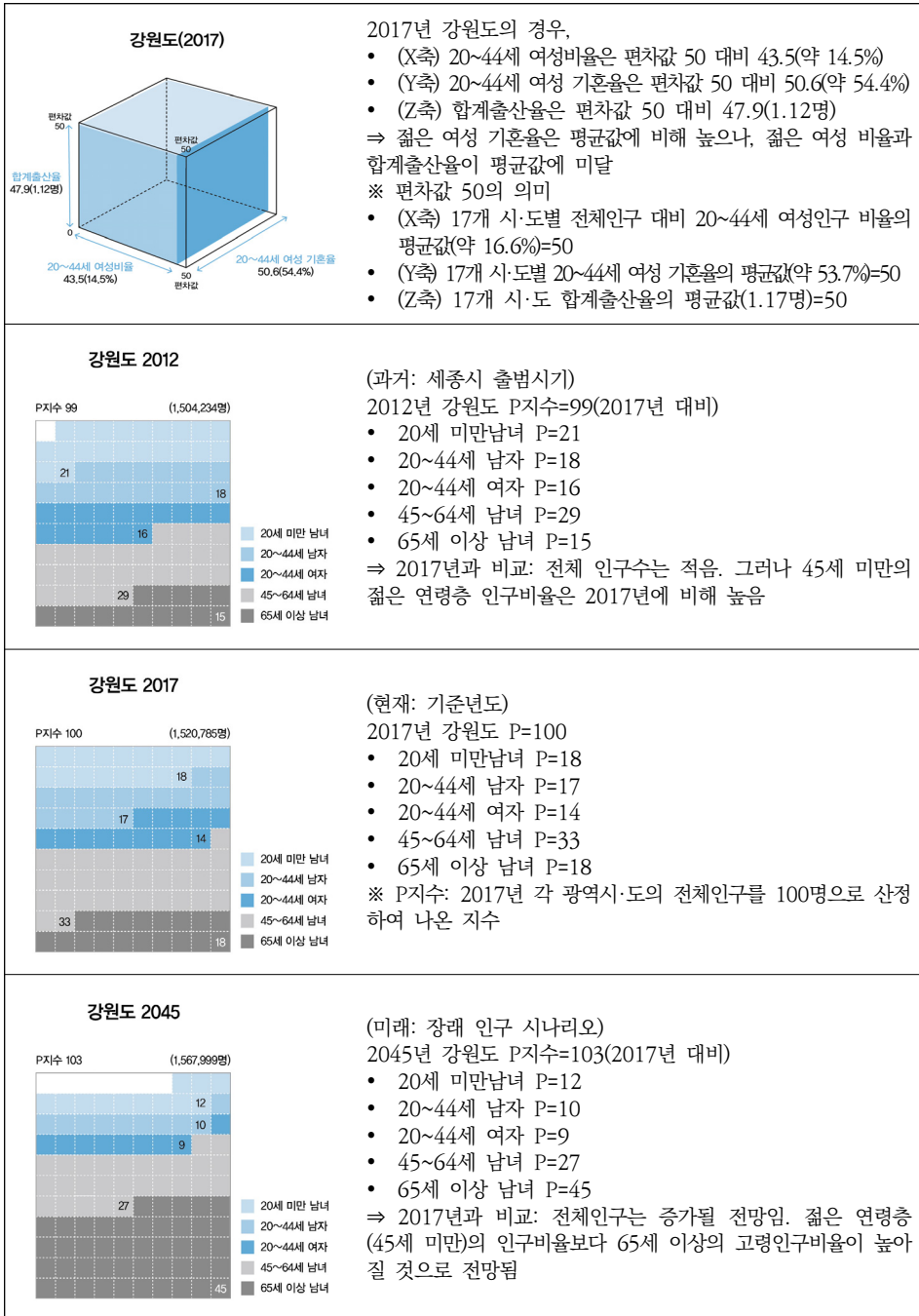
<p>제주특별자치도(2017)</p>	<p>2017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축) 20~44세 여성비율은 편차값 50 대비 48.2(약 16.0%) • (Y축) 20~44세 여성 기혼율 편차값 50대비 49.4 (약 53.1%) • (Z축) 합계출산율은 편차값 50 대비 55.7(1.31명) <p>⇒ 합계출산율은 평균값에 비해 높으며, 젊은 여성 기혼율은 평균값과 비슷하고, 젊은 여성비율은 평균값보다 미달</p> <p>※ 편차값 50의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축) 17개 시·도별 전체인구 대비 20~44세 여성인구 비율의 평균값(약 16.6%)=50 • (Y축) 17개 시·도별 20~44세 여성 기혼율의 평균값(약 53.7%)=50 • (Z축) 17개 시·도 합계출산율의 평균값(1.17명)=50
<p>제주 2012</p> <p>P지수 88 (560,818명)</p>	<p>(과거: 세종시 출범시기)</p> <p>2012년 제주도 P지수=88(2017년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미만남녀 P=22 • 20~44세 남자 P=16 • 20~44세 여자 P=15 • 45~64세 남녀 P=23 • 65세 이상 남녀 P=12 <p>⇒ 2017년과 비교: 전체 인구수는 적음. 그러나 20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 인구비율은 2017년과 비슷함</p>
<p>제주 2017</p> <p>P지수 100 (634,161명)</p>	<p>(현재: 기준년도)</p> <p>2017년 제주도 P=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미만남녀 P=22 • 20~44세 남자 P=18 • 20~44세 여자 P=16 • 45~64세 남녀 P=30 • 65세 이상 남녀 P=14 <p>※ P지수: 2017년 각 광역시·도의 전체인구를 100명으로 산정하여 나온 지수</p>
<p>제주 2045</p> <p>P지수 127 (804,013명)</p>	<p>(미래: 장래 인구 시나리오)</p> <p>2045년 제주도 P지수=127(2017년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미만남녀 P=20 • 20~44세 남자 P=13 • 20~44세 여자 P=12 • 45~64세 남녀 P=36 • 65세 이상 남녀 P=46 <p>⇒ 2017년과 비교: 전체인구는 증가될 전망이다. 젊은 연령층(45세 미만)의 인구비율보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비율이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됨</p>

2. 유형 ② 출산감소 고(高)위험군

[표 3-13] 출산감소 고위험 유형 지자체(2개)



[표 3-14] 출산감소 고위험(강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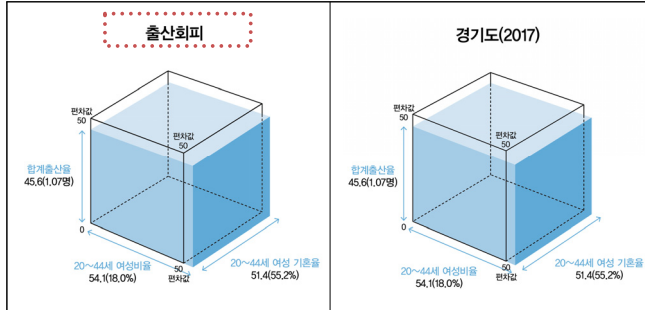


[표 3-15] 출산감소 고위험(전라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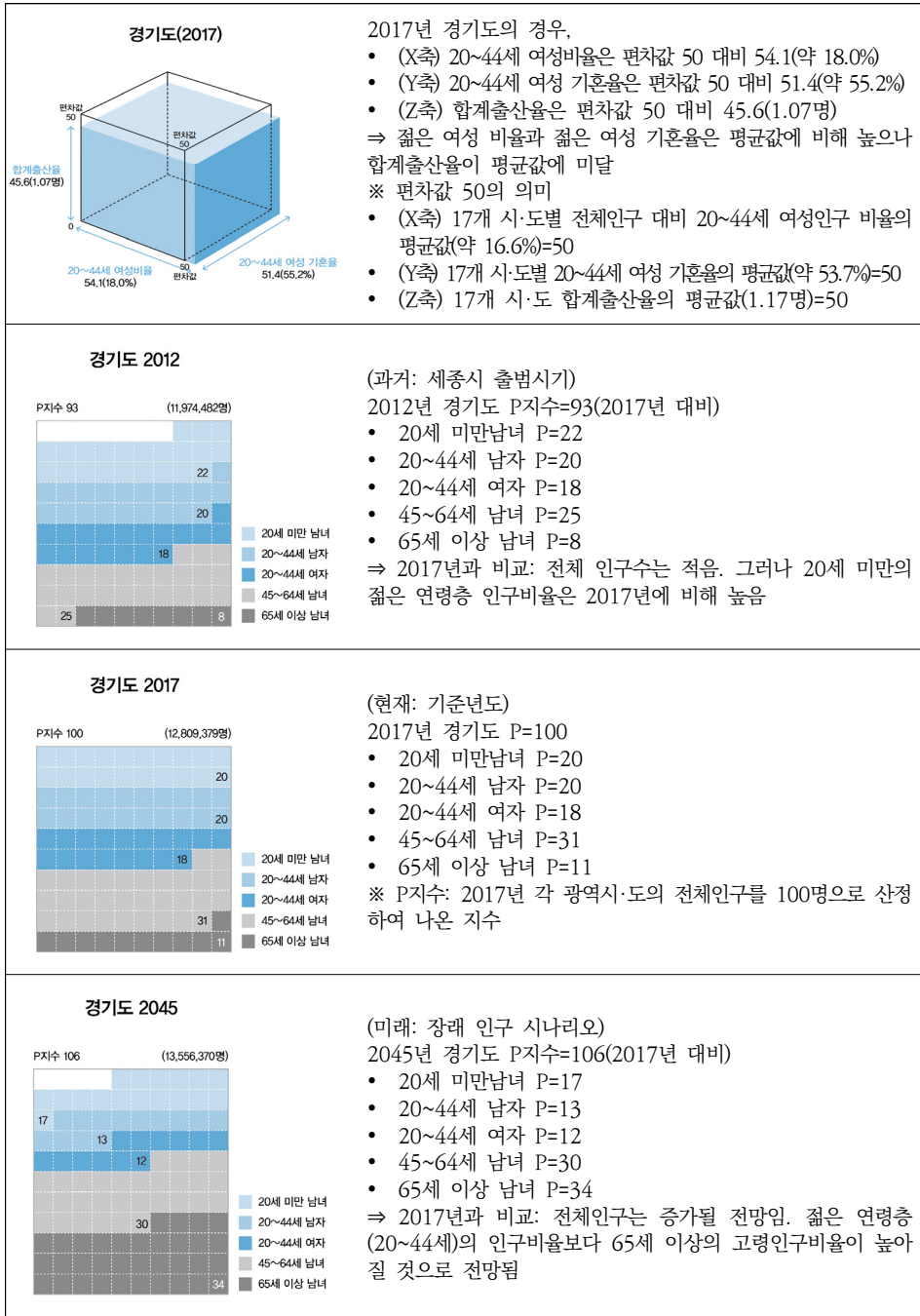
<p>전라북도(2017)</p>	<p>2017년 전라북도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축) 20~44세 여성비율은 편차값 50 대비 44.8(약 14.9%) • (Y축) 20~44세 여성 기혼율은 편차값 50 대비 49.4(약 53.0%) • (Z축) 합계출산율은 편차값 50 대비 49.1(1.15명) <p>⇒ 젊은 여성 기혼율은 평균값에 비해 높으나, 젊은 여성 비율과 합계출산율이 평균값에 미달</p> <p>※ 편차값 50의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축) 17개 시·도별 전체인구 대비 20~44세 여성인구 비율의 평균값(약 16.6%)=50 • (Y축) 17개 시·도별 20~44세 여성 기혼율의 평균값(약 53.7%)=50 • (Z축) 17개 시·도 합계출산율의 평균값(1.17명)=50
<p>전라북도 2012</p>	<p>(과거: 세종시 출범시기)</p> <p>2012년 전라북도 P지수=99(2017년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미만남녀 P=22 • 20~44세 남자 P=17 • 20~44세 여자 P=16 • 45~64세 남녀 P=28 • 65세 이상 남녀 P=16 <p>⇒ 2017년과 비교: 전체 인구수는 적음. 그러나 45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 인구비율은 2017년에 비해 높음</p>
<p>전라북도 2017</p>	<p>(현재: 기준년도)</p> <p>2017년 전라북도 P=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미만남녀 P=19 • 20~44세 남자 P=17 • 20~44세 여자 P=15 • 45~64세 남녀 P=31 • 65세 이상 남녀 P=18 <p>※ P지수: 2017년 각 광역시·도의 전체인구를 100명으로 산정하여 나온 지수</p>
<p>전라북도 2045</p>	<p>(미래: 장래 인구 시나리오)</p> <p>2045년 전라북도 P지수=95(2017년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미만남녀 P=13 • 20~44세 남자 P=9 • 20~44세 여자 P=8 • 45~64세 남녀 P=25 • 65세 이상 남녀 P=40 <p>⇒ 2017년과 비교: 전체인구는 감소될 전망이다. 젊은 연령층(45세 미만)의 인구비율보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p>

3. 유형 ③ 출산회피 유형

[표 3-16] 출산회피 유형 지자체(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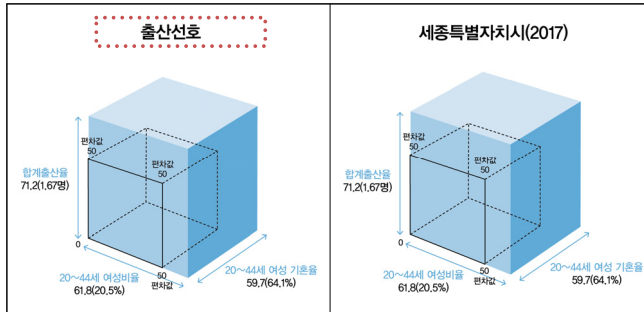


[표 3-17] 출산회피(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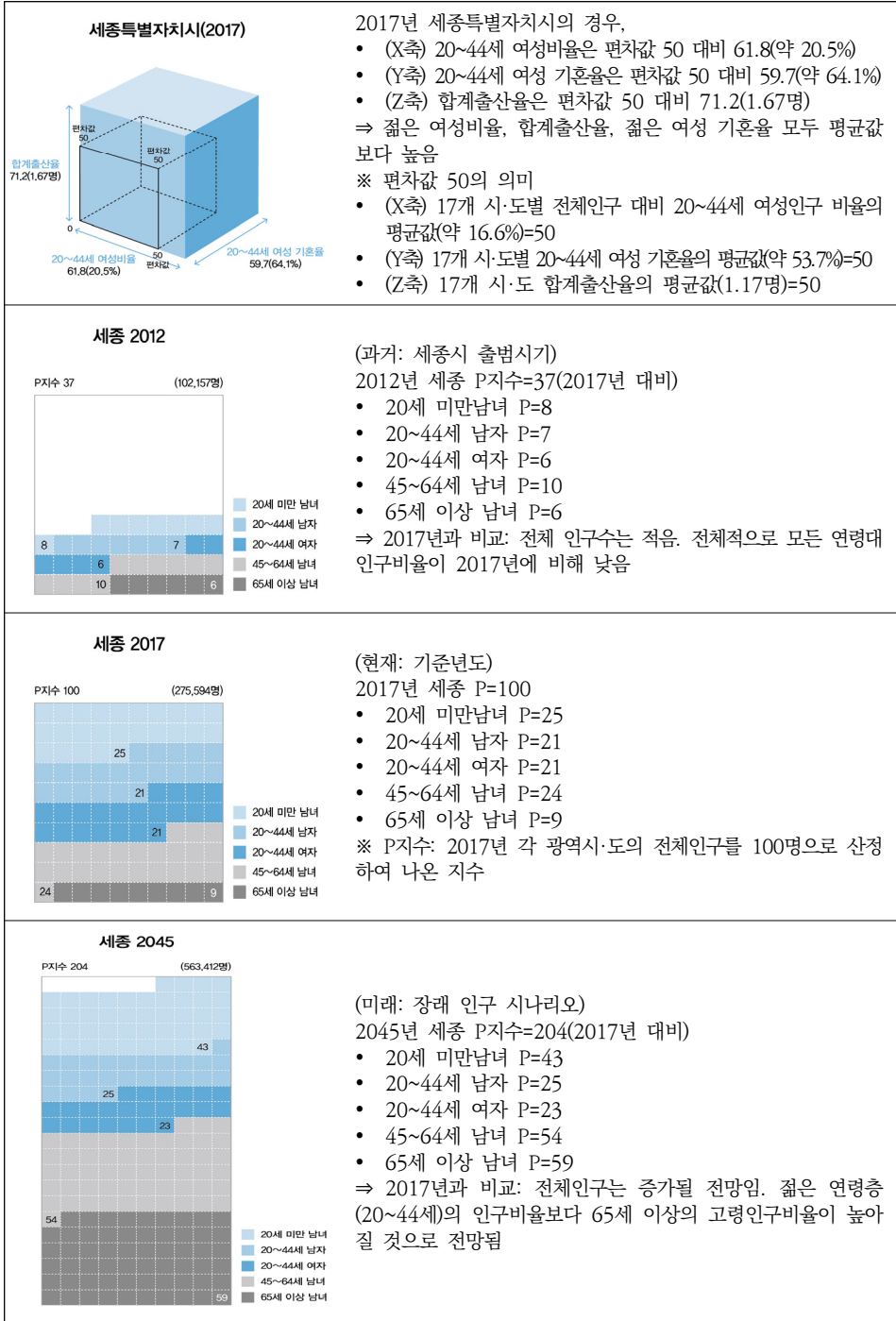


4. 유형 ④ 출산선호 유형

[표 3-18] 출산선호 유형 지자체(세종시 단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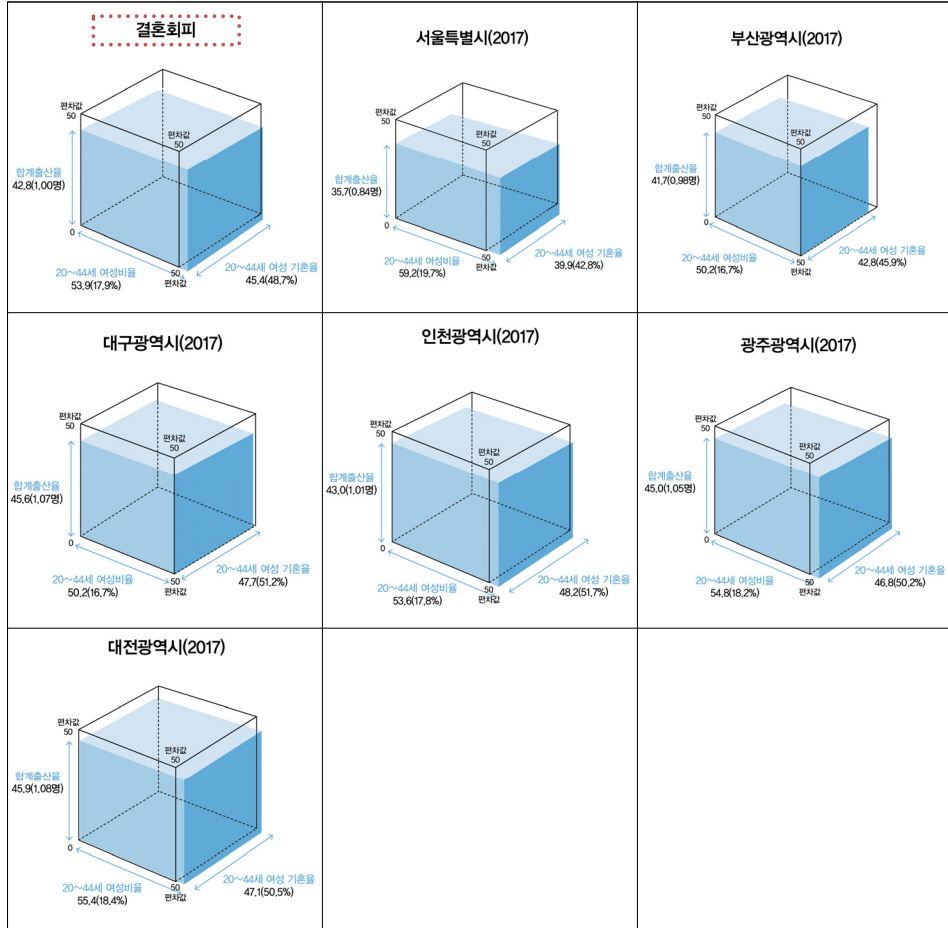


[표 3-19] 출산선호(세종특별자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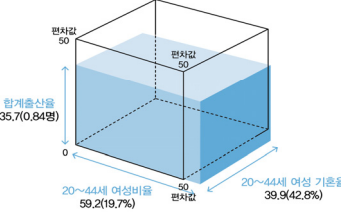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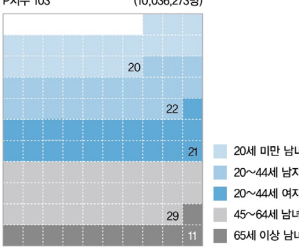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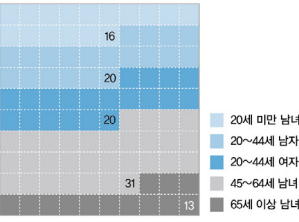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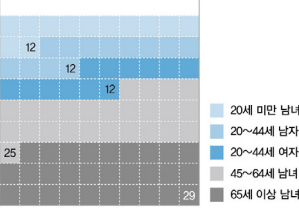


5. 유형 ⑤ 결혼회피 유형

[표 3-20] 결혼회피 유형 지자체(6개)



[표 3-21] 결혼회피(서울특별시)

<p>서울특별시(2017)</p>  <p>평균결혼회피 50 합계출산율 35.7(0.84명) 20~44세 여성비율 59.2(19.7%) 20~44세 여성 기혼율 39.9(42.8%)</p>	<p>2017년 서울특별시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X축) 20~44세 여성비율은 편차값 50 대비 59.2(약 19.7%) (Y축) 20~44세 여성 기혼율은 편차값 50 대비 39.9(약 42.8%) (Z축) 합계출산율은 편차값 50 대비 35.7(0.84명) <p>⇒ 젊은 여성 비율은 평균값에 비해 높으나, 합계출산율과 젊은 여성 기혼율은 평균값보다 미달</p> <p>※ 편차값 50의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X축) 17개 시·도별 전체인구 대비 20~44세 여성인구 비율의 평균값(약 16.6%)=50 (Y축) 17개 시·도별 20~44세 여성 기혼율의 평균값(약 53.7%)=50 (Z축) 17개 시·도 합계출산율의 평균값(1.1명)=50
<p>서울 2012</p>  <p>P지수 103 (10,036,27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세 미만 남녀 20~44세 남자 20~44세 여자 45~64세 남녀 65세 이상 남녀 	<p>(과거: 세종시 출범시기)</p> <p>2012년 서울 P지수=103(2017년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세 미만남녀 P=20 20~44세 남자 P=22 20~44세 여자 P=21 45~64세 남녀 P=29 65세 이상 남녀 P=11 <p>⇒ 2017년과 비교: 전체 인구수 많음. 45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 인구비율도 2017년에 비해 높음</p>
<p>서울 2017</p>  <p>P지수 100 (9,776,305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세 미만 남녀 20~44세 남자 20~44세 여자 45~64세 남녀 65세 이상 남녀 	<p>(현재: 기준년도)</p> <p>2017년 서울 P=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세 미만남녀 P=16 20~44세 남자 P=20 20~44세 여자 P=20 45~64세 남녀 P=31 65세 이상 남녀 P=13 <p>※ P지수: 2017년 각 광역시·도의 전체인구를 100명으로 산정하여 나온 지수</p>
<p>서울 2045</p>  <p>P지수 90 (8,813,150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세 미만 남녀 20~44세 남자 20~44세 여자 45~64세 남녀 65세 이상 남녀 	<p>(미래: 장래 인구 시나리오)</p> <p>2045년 서울 P지수=90(2017년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세 미만남녀 P=12 20~44세 남자 P=12 20~44세 여자 P=12 45~64세 남녀 P=25 65세 이상 남녀 P=29 <p>⇒ 2017년과 비교: 전체인구는 감소될 전망이다. 젊은 연령층(20~44세)의 인구비율보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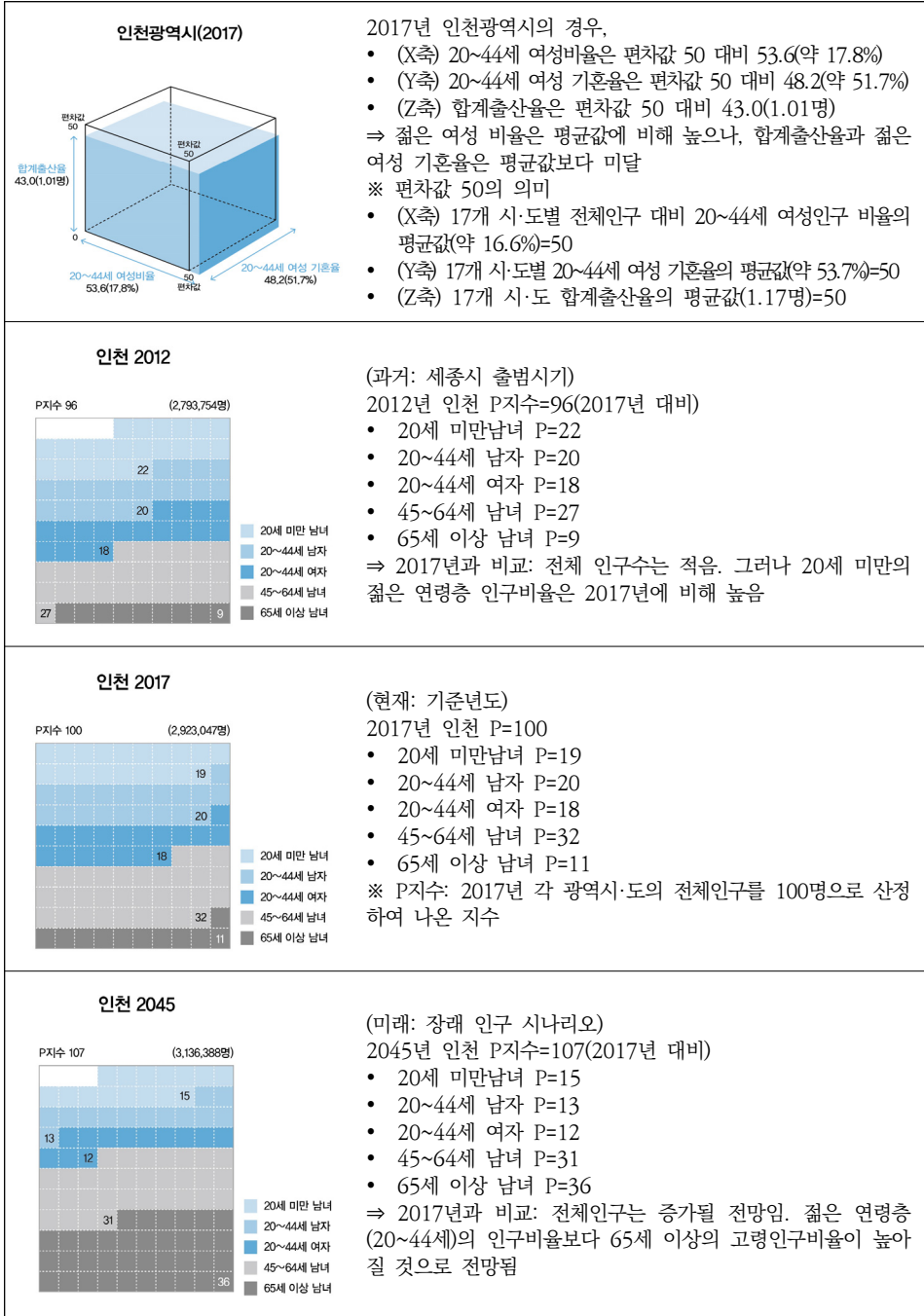
[표 3-22] 결혼회피(부산광역시)

<p>부산광역시(2017)</p> <p>평균결혼율 41,710,988명</p> <p>20~44세 여성 기혼율 50.2(16.7%)</p> <p>20~44세 남성 기혼율 42.8(45.9%)</p> <p>평균결혼율 50</p>	<p>2017년 부산광역시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축) 20~44세 여성비율은 편차값 50 대비 50.2(약 16.7%) • (Y축) 20~44세 여성 기혼율은 편차값 50 대비 42.8(약 45.9%) • (Z축) 합계출산율은 편차값 50 대비 41.7(0.98명) <p>⇒ 젊은 여성 비율은 평균값에 비해 높으나, 합계출산율과 젊은 여성 기혼율은 평균값보다 미달</p> <p>※ 편차값 50의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축) 17개 시·도별 전체인구 대비 20~44세 여성인구 비율의 평균값(약 16.6%)=50 • (Y축) 17개 시·도별 20~44세 여성 기혼율의 평균값(약 53.7%)=50 • (Z축) 17개 시·도 합계출산율의 평균값(1.17명)=50
<p>부산 2012</p> <p>P지수 101 (3,461,881명)</p> <p>20세 미만 남녀</p> <p>20~44세 남자</p> <p>20~44세 여자</p> <p>45~64세 남녀</p> <p>65세 이상 남녀</p>	<p>(과거: 세종시 출범시기)</p> <p>2012년 부산 P지수=101(2017년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미만남녀 P=20 • 20~44세 남자 P=19 • 20~44세 여자 P=18 • 45~64세 남녀 P=32 • 65세 이상 남녀 P=12 <p>⇒ 2017년과 비교: 전체 인구수는 많음. 그리고 45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 인구비율도 2017년에 비해 높음</p>
<p>부산 2017</p> <p>P지수 100 (3,428,923명)</p> <p>20세 미만 남녀</p> <p>20~44세 남자</p> <p>20~44세 여자</p> <p>45~64세 남녀</p> <p>65세 이상 남녀</p>	<p>(현재: 기준년도)</p> <p>2017년 부산 P=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미만남녀 P=17 • 20~44세 남자 P=18 • 20~44세 여자 P=17 • 45~64세 남녀 P=32 • 65세 이상 남녀 P=16 <p>※ P지수: 2017년 각 광역시·도의 전체인구를 100명으로 산정하여 나온 지수</p>
<p>부산 2045</p> <p>P지수 87 (2,978,044명)</p> <p>20세 미만 남녀</p> <p>20~44세 남자</p> <p>20~44세 여자</p> <p>45~64세 남녀</p> <p>65세 이상 남녀</p>	<p>(미래: 장래 인구 시나리오)</p> <p>2045년 부산 P지수=87(2017년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미만남녀 P=11 • 20~44세 남자 P=10 • 20~44세 여자 P=9 • 45~64세 남녀 P=24 • 65세 이상 남녀 P=33 <p>⇒ 2017년과 비교: 전체인구는 감소될 전망이다. 젊은 연령층(45세 미만)의 인구비율보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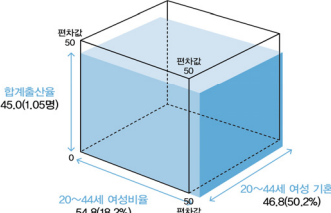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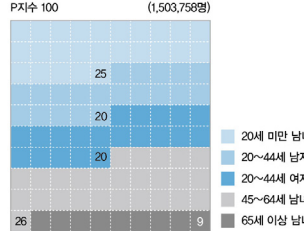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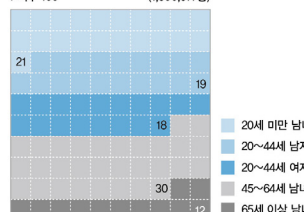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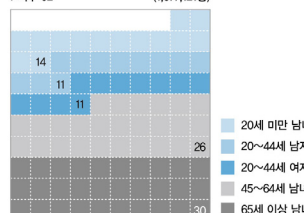
[표 3-23] 결혼회피(대구광역시)

<p>대구광역시(2017)</p>	<p>2017년 대구광역시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축) 20~44세 여성비율은 편차값 50 대비 50.2(약 16.7%) • (Y축) 20~44세 여성 기혼율은 편차값 50 대비 47.7(약 51.2%) • (Z축) 합계출산율은 편차값 50 대비 45.6(1.07명) <p>⇒ 젊은 여성 비율은 평균값에 비해 높으나, 합계출산율과 젊은 여성 기혼율은 평균값보다 미달</p> <p>※ 편차값 50의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축) 17개 시·도별 전체인구 대비 20~44세 여성인구 비율의 평균값(약 16.6%)=50 • (Y축) 17개 시·도별 20~44세 여성 기혼율의 평균값(약 53.7%)=50 • (Z축) 17개 시·도 합계출산율의 평균값(1.17명)=50
<p>대구 2012</p> <p>P지수 101 (2,480,493명)</p>	<p>(과거: 세종시 출범시기)</p> <p>2012년 대구 P지수=101(2017년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미만남녀 P=22 • 20~44세 남자 P=19 • 20~44세 여자 P=19 • 45~64세 남녀 P=30 • 65세 이상 남녀 P=11 <p>⇒ 2017년과 비교: 전체 인구수는 많음. 그리고 45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 인구비율도 2017년에 비해 높음</p>
<p>대구 2017</p> <p>P지수 100 (2,465,268명)</p>	<p>(현재: 기준년도)</p> <p>2017년 대구 P=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미만남녀 P=19 • 20~44세 남자 P=18 • 20~44세 여자 P=17 • 45~64세 남녀 P=32 • 65세 이상 남녀 P=14 <p>※ P지수: 2017년 각 광역시·도의 전체인구를 100명으로 산정하여 나온 지수</p>
<p>대구 2045</p> <p>P지수 87 (2,153,737명)</p>	<p>(미래: 장래 인구 시나리오)</p> <p>2045년 대구 P지수=87(2017년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미만남녀 P=12 • 20~44세 남자 P=10 • 20~44세 여자 P=9 • 45~64세 남녀 P=24 • 65세 이상 남녀 P=32 <p>⇒ 2017년과 비교: 전체인구는 감소될 전망이다. 젊은 연령층(45세 미만)의 인구비율보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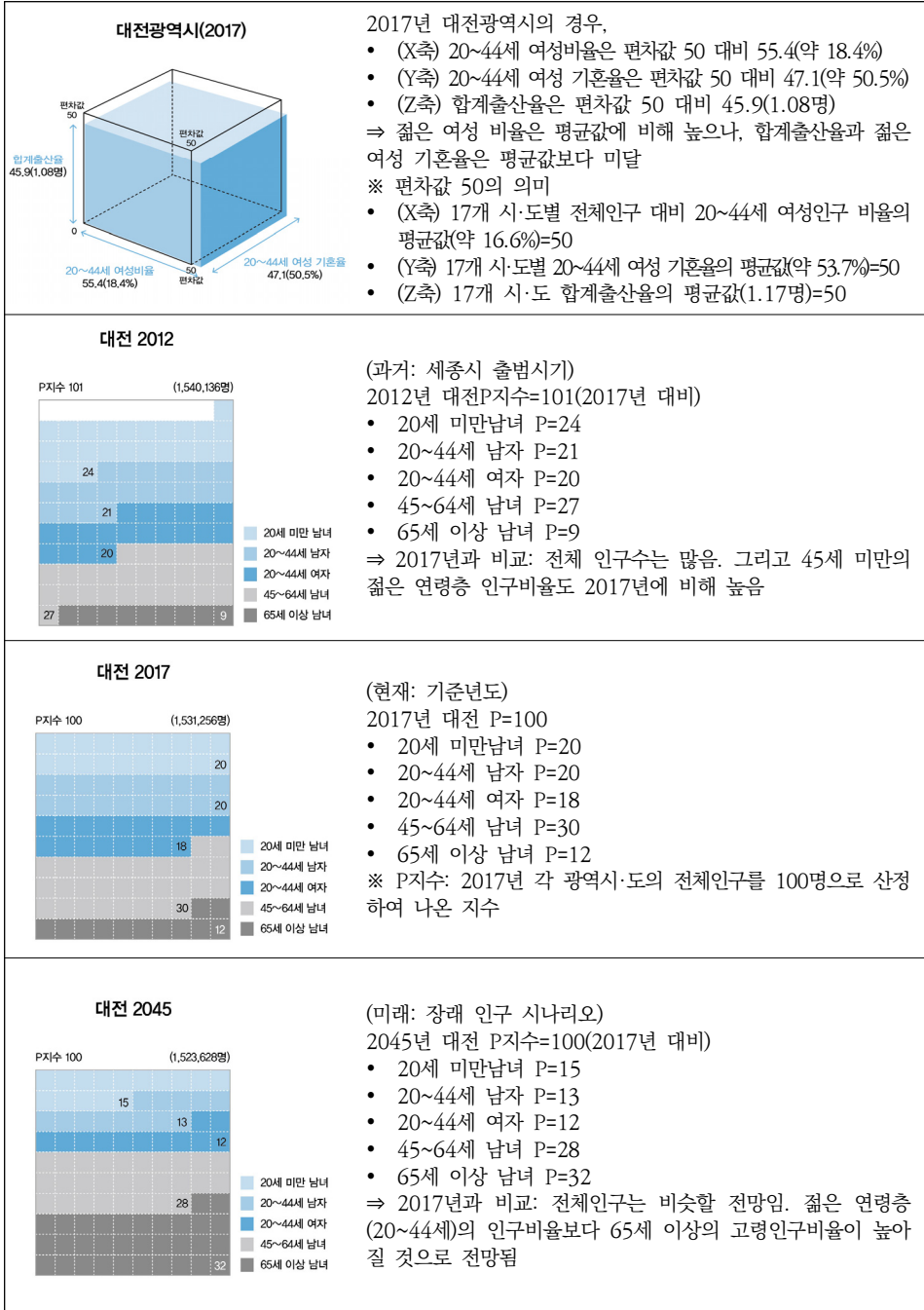
[표 3-24] 결혼회피(인천광역시)



[표 3-25] 결혼회피(광주광역시)

<p>광주광역시(2017)</p>  <p>편차값 50 합계출산율 45.0(1.05명) 20~44세 여성비율 54.8(18.2%) 20~44세 여성 기혼율 46.8(50.2%)</p>	<p>2017년 광주광역시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축) 20~44세 여성비율은 편차값 50 대비 54.8(약 18.2%) • (Y축) 20~44세 여성 기혼율은 편차값 50 대비 46.8(약 50.2%) • (Z축) 합계출산율은 편차값 50 대비 45.0(1.05명) <p>⇒ 젊은 여성 비율과 젊은 여성 기혼율은 평균값에 비해 높으나 합계출산율이 평균값에 미달</p> <p>※ 편차값 50의 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X축) 17개 시·도별 전체인구 대비 20~44세 여성인구 비율의 평균값(약 16.6%)=50 • (Y축) 17개 시·도별 20~44세 여성 기혼율의 평균값(약 53.7%)=50 • (Z축) 17개 시·도 합계출산율의 평균값(1.17명)=50
<p>광주 2012</p> <p>P지수 100 (1,503,758명)</p>  <p>20세 미만 남녀 20~44세 남자 20~44세 여자 45~64세 남녀 65세 이상 남녀</p>	<p>(과거: 세종시 출범시기)</p> <p>2012년 광주 P지수=100(2017년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미만남녀 P=25 • 20~44세 남자 P=20 • 20~44세 여자 P=20 • 45~64세 남녀 P=26 • 65세 이상 남녀 P=9 <p>⇒ 2017년과 비교: 전체 인구수는 비슷함. 그러나 45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 인구비율은 2017년에 비해 높음</p>
<p>광주 2017</p> <p>P지수 100 (1,500,977명)</p>  <p>20세 미만 남녀 20~44세 남자 20~44세 여자 45~64세 남녀 65세 이상 남녀</p>	<p>(현재: 기준년도)</p> <p>2017년 광주 P=1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미만남녀 P=21 • 20~44세 남자 P=19 • 20~44세 여자 P=18 • 45~64세 남녀 P=30 • 65세 이상 남녀 P=12 <p>※ P지수: 2017년 각 광역시·도의 전체인구를 100명으로 산정하여 나온 지수</p>
<p>광주 2045</p> <p>P지수 92 (1,377,121명)</p>  <p>20세 미만 남녀 20~44세 남자 20~44세 여자 45~64세 남녀 65세 이상 남녀</p>	<p>(미래: 장래 인구 시나리오)</p> <p>2045년 광주 P지수=92(2017년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미만남녀 P=14 • 20~44세 남자 P=11 • 20~44세 여자 P=11 • 45~64세 남녀 P=26 • 65세 이상 남녀 P=30 <p>⇒ 2017년과 비교: 전체인구는 감소될 전망이다. 젊은 연령층(20~44세)의 인구비율보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p>

[표 3-26] 결혼회피(대전광역시)



제3절 소결

1. 유형별 특징에 따른 정책 방향 제안(출산선호 유형 제외)

출산감소 중위험 유형

- (출산감소 중위험) 이 유형에 속하는 지자체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높으나 가임기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 20~44세 젊은 여성 비율이 낮은 것이 출산감소의 위험을 높이는 원인으로 분석됨. 장기적으로는 출산감소 고위험군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므로, 젊은 세대의 지속적인 유입과 정주환경 개선책이 필요함

출산감소 고위험 유형

- (출산감소 고위험) 이 유형의 경우, 합계출산율과 20~44세 젊은 여성 비율이 모두 낮은 경우로써, 여성의 높은 기혼율에도 불구하고 출산감소가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젊은 세대들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출산회피 유형

- (출산회피) 젊은 여성과 여성의 기혼율이 높으나 합계출산율이 낮은 지자체에 해당함. 따라서 부부 평균 자녀수를 늘리기 위한 출산장려정책과 더불어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한 돌봄의 사회화 정책 강화가 요청됨

결혼회피 유형

- (결혼회피) 젊은 세대의 미혼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시에, 일자리, 대학교육 등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되는 지자체이기도 함. 미혼의 젊은 세대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건마련을 위해 다 각도로 노력해야 할 것임

2. 세종시 유형분석 결과에 따른 정책 방향 제안

출산선호 유형, 세종시의 정책 방향 제안

- (세종시의 궤적) 2012년 ‘출산감소 중위험’ 유형 ⇒ 2015년 ‘출산선호’ 유형

으로 변경됨 ⇒ 2017년 ‘출산선호’ 유형 계속 유지 중임

- (출산선호) 17개 시·도 중 세종시만 해당됨. 출산감소 정도를 측정하는 3가지 지표 모두 17개 광역시·도의 평균이상으로 분석됨. 따라서 타 유형에 속하는 지자체에 비하여 저출산 문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됨. 최성은 외(2018) 연구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타 시·도에서 세종시로 전입해 온 인구(누계기준)를 연령대별로 볼 때, 남녀 모두 30~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됨(최성은 외, 2018, 45쪽)
 - 따라서 결혼과 출산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30~40대의 인구 유입이 세종시가 2012년 출범당시 ‘출산감소 중위험군’에서 2015년 ‘출산선호’ 유형으로 급격한 변화를 이끈 주된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앞으로 세종시의 정책방향은 도시계획이 마무리되어 인구 유입이 정체기에 이르게 될 미래를 고려하여 설정해야 할 것임
 -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임신, 출산, 육아(돌봄) 지원 정책을 유지·확대하되, 상대적으로 인구 유출이 집중되는 20대 젊은 세대의 정주환경 마련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동기 부여를 진작시킬 정책대응을 다 차원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임

3. P 지수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

- 본 연구에서는 2017년 각 시·도의 인구를 기준으로 P 지수를 산출하여, 세종시 출범초기인 2012년을 ‘과거’로, 2017년을 ‘현재’로, 2045년을 ‘미래’로 특정하여, 그 변화를 시각화하여 비교하였음
- 그 결과, 모든 17개 시·도에서 2045년에 이르러,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20~44세에 해당하는 인구비율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따라서 모든 지방정부에서 고령화에 따른 정책적 대응도 저출산 분야만큼 필요함을 보여줌

[표 3-27] 출산감소 유형 분류 결과

유형별	과거(2012년)		현재(2017년)		미래(2045년)	
	지역 구분	P 지수 해석	지역 구분	직업면제와 P 지수 해석	지역 구분	P 지수 해석
출산감소 중위험	(G1:자-자-고)	없음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합계출산율과 젊은 여성 기혼율은 평균값에 비해 높으나, 젊은 여성비율이 평균값에 미달인 지자체(울산, 충북, 전남, 제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평균보다 높고, 미달(충남, 경북)	제주특별자치도	(2017년 대비) 전체인구수는 지자체별로 다소 상이함(전체인구수 증가: 충북, 전남, 경북, 경남)
	(G2:자-고-고)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출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출산감소 고위험	(G3:자-고-저)	강원도	강원도, 전라북도	젊은 여성 기혼율은 평균보다 높고, 젊은 여성비율과 합계출산율은 평균에 미달	강원도	(2017년 대비) 전체인구수는 지자체별로 다소 상이함(전체인구수 증가: 강원도/감소: 전북)
	(G4:자-자-저)	없음	없음	없음	전라북도	
출산회피 (G5:고-고-저)	출산회피 (G5:고-고-저)	경기도	광주광역시, 경기도	젊은 여성비율과 젊은 여성 기혼율은 평균값에 비해 높으나, 합계출산율이 평균값에 미달인 지자체	경기도	(2017년 대비) 전체인구수 감소된 전망(광주)/전체인구수 증가될 전망(경기)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출산소호 (G6:고-고-고)	출산소호 (G6:고-고-고)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젊은 여성비율과 젊은 여성 기혼율 합계출산율 모두 평균보다 높음	세종특별자치시	(2017년 대비) 전체인구수 증가될 전망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결혼회피 (G8:고-자-저)	결혼회피 (G8:고-자-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젊은 여성비율은 평균에 비해 높으나, 젊은 여성 기혼율 합계출산율 모두 평균에 미달	없음	(2017년 대비) 전체인구수 감소될 전망(서울, 부산, 대구, 세종) 인구수 증가(인천/전체 인구수) (비수(대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공통적) 젊은 연령층 (20~44세)의 인구비율보다 0.5% 이상의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세종시 저출산 대응정책 분석

제1절 세종시 저출산 대응정책 분석 개요

제2절 유형화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제4장 세종시 저출산 대응정책 분석

제1절 세종시 저출산 대응정책 분석 개요

1. 저출산 정책 유형화를 위한 기준 근거와 범위

- (선행연구 검토) 하연희 외(2007)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을 정부가 특정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직접성’과 정책의 효과가 즉각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나는 정도를 의미하는 ‘적극성’으로 유형화한 바 있음([표 4-1] 참조)
 - 해당 연구는 1960년부터 2000년대 중반정도의 인구정책변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정책대응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담고 있지 않음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따라서 본 연구는 하연희 외(2007)의 유형화 기준을 차용하되, 최근의 저출산 정책 흐름에 맞추어 사회적 규제와 같은 일부 기준을 삭제³⁾하고, 정책도구의 종류를 재구성하여 유형화를 시도함
 - 정책도구의 종류: 근로제도, 직접 공급(교육사업 포함), 보조금, 바우처
- 세종시의 2013~2018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을 분석함(세종시는 2012년 출범 후 2013년부터 해당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음)

2. (저출산 정책 유형화 I) 정책 도구 유형별 유형화 기준

정책 도구 유형별 유형화

- (근로제도) 근무시간 조정(대체근무 포함)과 관련된 정책지원 사업을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함

3) 하연희 외(2007)의 경우, 간접도구에서 사회적 규제, 조세지출, 정부보험도 포함함. 그러나 사회적 규제의 경우, 출산정책 기조가 ‘억제’에서 ‘장려’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제외함. 또한, 본 연구는 세종시의 자체재원을 통해 진행되는 자체사업이 주 연구대상이므로 간접도구 중 조세지출과 정부보험도 제외함

- 1980년대 이전까지는 출산억제를 위한 사회적 규제가 간접수단으로서의 영향력이 컸으나, 최근에는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저출산 대응정책과 연계된 사회적 규제는 찾기 어려움
- 최근의 출산장려 정책기조 아래에서는 일-가정양립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이 상당히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 근로시간이나 대체인력과 관련된 정책지원이 매우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음
- (정부 직접 공급) 정부에 의해 전달, 보유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함 (Salamon, 2002). 직접 도구에 지방정부가 실시하는 교육 사업을 추가하여 분류함
- (보조금 직접보조) 현금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서비스 대상자인 '시민'에게 직접 전달되는 방식과 위탁기관 등 사업수행기관(서비스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보조방식을 분리하여 유형화함
- (보조금 간접보조) 비금전적 보조(권리 또는 우선권 부여 등)사업에 해당함
- (바우처) 정부가 요건을 갖춘 사회서비스 대상자에게 '쿠폰 등'을 지급하는 방식. 바우처는 수요자(시민)으로 하여금 여러 개의 공급자 중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선택권이 넓다는 장점이 있음. 공급자는 바우처 사용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방식

[표 4-1] 출산관련 정책도구 유형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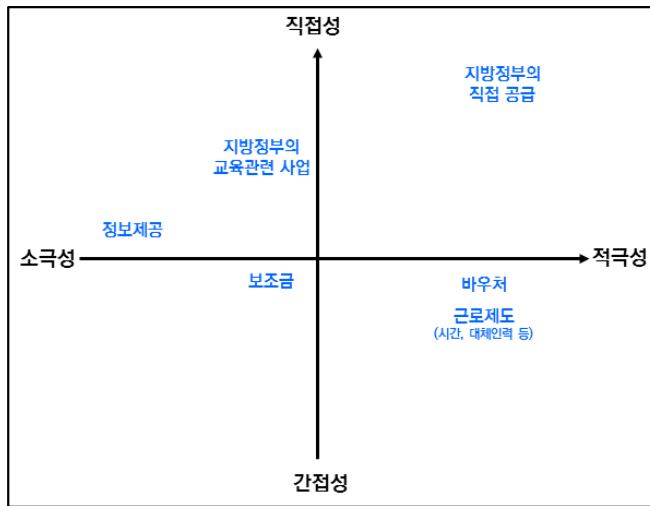
구분		정책도구의 종류		주요사례
직접성 (Directness)	적극성 (Proactiveness)	하연희 외(2007)	변경	
직접도구	높음(H)	정부의 직접공급	동일	도시가족계획사업(1974) 정부무료피임 보급 축소: 저소득층, 장애인 등으로 범위 한정(1989)
	중간(M)	없음	정부의 교육사업 (변경)	임신·출산 교육, 기타 교육사업 등
	낮음(L)	정보제공	동일	저출산 인구정책 포어 공모, TV 홍보CF, 라디오, 신문, 잡지, 옥외전광판, 현수막,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 활용

구분		정책도구의 종류		주요사례	
직접성 (Directness)	적극성 (Proactiveness)	하연희 외(2007)	변경		
간접도구	높음(H)	사회적 규제	근로제도 (변경)	유연근무제 활성화, 대체인력 지원 등	
	중간(M)	보조금	직접 보조*	수혜자 대상 (변경) 서비스 공급자 보조 (변경)	2자녀 이상 보육·교육비지원 등 (사업수행기관에 인건비 등 보조하는 경우) 학생·원아 보호인력 운영
			간접 보조**	동일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등
		높음(H)	바우처	동일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기타: 관련법령 및 제도 변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2005년 9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등	

주*: 현금형태의 보조금 지급

** : 비금전적 보조(권리 또는 우선권 부여 등)

자료: 하연희·문명재(2007), 99쪽, '〈표 3〉 출산장려정책기의 정책도구' 재구성



[그림 4-1] 저출산 정책 유형화를 위한 정책도구의 분류

3. (저출산 정책 유형화 II) 정책 지원 분야별 유형화 기준

□ 정책 지원 분야별 유형화

- 한편, 최근의 세종시 저출산 정책지원 분야 변화를 살펴, 미흡한 부분을 찾고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정책들이 어느 영역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8개 정책분야로 각 연도별 사업들을 분석해 보고자 함
- (저출산 정책 8개 분야 선정) 정책지원 분야는 임신, 출산, 자녀양육(돌봄), 자녀 교육환경, 결혼 및 정주여건, 가정생활(다문화·입양가정, 위기가정, 가정폭력 등), 일자리, 기타(관리체계, 조직개편 등) 분야로 나누어 연도별 시행계획 사업들을 분석함

□ 정책 분류상의 한계

- 한 사업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별로 정책도구 유형 및 정책지원 분야가 다수일 수 있음
 - (예시)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의 경우, 학생에게 전달되는 자유수강권 사업과 초등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경우, 바우처와 직접보조(서비스 공급자)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코딩함
 - (예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양육·교육비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정책 지원분야 중 자녀양육과 자녀교육 분야에 모두 해당됨
- 간접도구에서 보조금과 바우처의 차이가 다소 불분명할 수 있음. 시행 계획 자료의 경우, 사업 예산 집행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취득 가능한 사업정보 내에서 서비스 수혜자에게 현금이나 권리, 우선권이 아닌, 쿠폰 등을 지급한 것이 명시된 경우, 바우처로 코딩하였음을 밝힘

제2절 유형화 분석 결과

1. 정책 도구 유형별 유형화 분석 결과

- (직접도구 vs. 간접도구) 정책집행 시 간접도구 방식을 활용한 사업이 직접 도구 방식보다 약 4배 정도 많았음. 직접도구 해당 사업 68개, 간접도구 해당 사업 273개로 조사됨

[표 4-2] 세종시 정책 도구 유형별 저출산 정책 유형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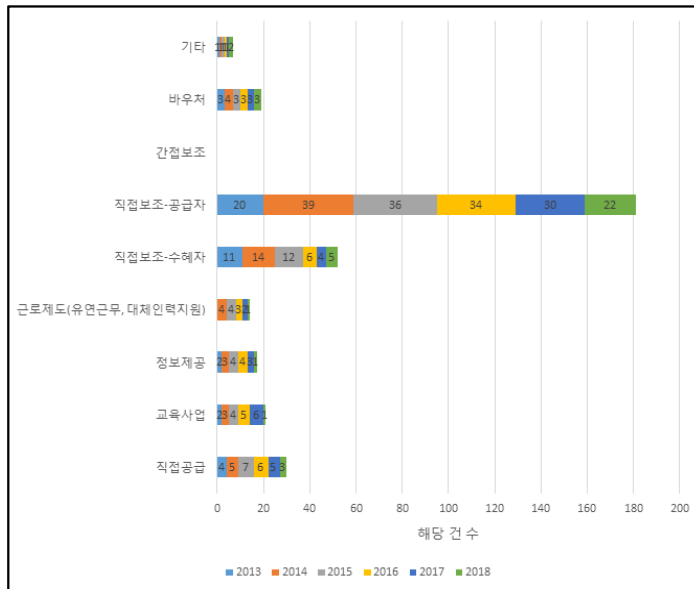
(단위: 건)

구분	직접도구				간접도구						
	직접 공급	교육 사업	정보 제공	계	근로 제도	직접보조		간접 보조	바우처	기타	계
						수혜자	공급자				
2013	4	2	2	8		11	20		3	1	35
2014	5	3	3	11	4	14	39		4	1	62
2015	7	4	4	15	4	12	36		3	1	56
2016	6	5	4	15	3	6	34		3	1	47
2017	5	6	3	14	2	4	30		3	1	40
2018	3	1	1	5	1	5	22		3	2	33
합계	30	21	17	68	14	52	181		19	7	273

주: 세부사업내용에 따라 중복 처리(예: 육아지원종합센터의 경우, 다양한 사업 프로그램이 있음)
(중복사업: 엄마건강, 아기사랑 프로젝트, 예방접종과 함께 책임기, 방과후학교 운영, 아이돌봄 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학생건강증진관리)

- (직접도구 종류별 특징) 정부의 직접공급 > 교육사업 > 정보제공 순으로 정책도구 활용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간접도구 종류별 특징) 간접도구 중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집행 방식 (직접보조)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사용빈도가 많았음
 - 직접보조(공급자) > 직접보조(수혜자) > 바우처 > 근로제도 > 기타⁴⁾ 순으로 조사됨

4) 행복맘 윈스톱 통합지원센터 설치, 아동친화도시 조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합의 및 정책추진체계 구축 사업



[그림 4-2] 정책 도구 유형별 저출산 정책 유형화 결과

2. 정책 지원 분야별 유형화 분석 결과

- 정책 지원 분야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의 자체사업은 그 동안 자녀 교육 > 자녀양육 > 출산지원 > 임신지원 > 가정생활, 일자리 > 결혼 및 정주여건 > 기타) 순으로 많이 실행 된 것으로 조사됨
 -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이 실시된 횟수의 누적 결과임
- 연도별 정책지원 집중 분야 변화 추이
 - 2013년: 자녀교육 > 임신, 출산, 자녀양육 > 결혼 및 정주여건 > 일자리 > 기타 순으로 많이 실시됨
 - 2014년: 자녀교육 > 자녀양육 > 출산지원 > 임신지원 > 일자리 > 결혼 및 정주여건, 가정생활 순으로 많이 실시됨
 - 2015년: 자녀교육 > 자녀양육 > 임신지원 > 출산지원 > 일자리 > 결혼 및 정주여건, 가정생활 > 기타 순으로 많이 실시됨

5) 기타사업: 지역아동센터 직무연찬회,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합의 및 정책추진체계 구축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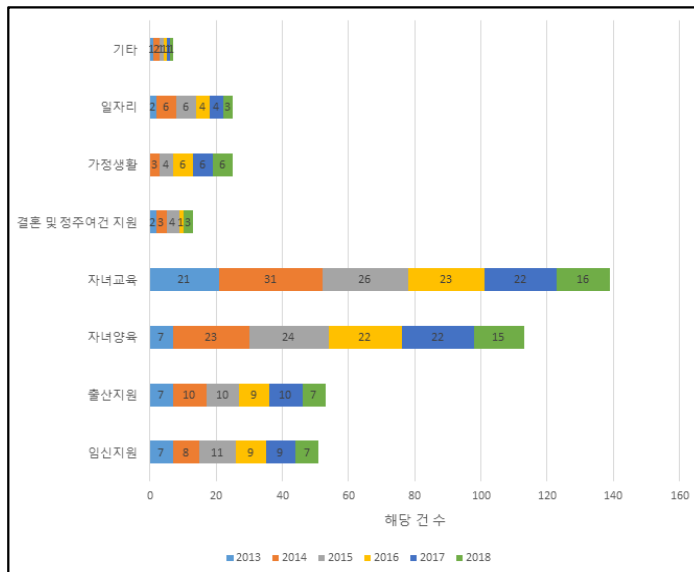
- 2016년: 자녀교육 > 자녀양육 > 임신, 출산지원 > 가정생활 > 일자리 > 결혼 및 정주여건 > 기타 순으로 많이 실시됨
- 2017년: 자녀교육, 자녀양육 > 임신지원 > 출산지원 > 가정생활 > 일자리 > 기타 순으로 많이 실시됨
- 2018년: 자녀교육 > 자녀양육 > 임신, 출산지원 > 가정생활 > 결혼 및 정주여건, 일자리 > 기타 순으로 많이 실시됨

[표 4-3] 세종시 정책 지원 분야별 저출산 정책 유형화 결과

(단위: 건)

구분	임신 지원	출산 지원	자녀 양육	자녀 교육	결혼 및 정주여건	가정 생활	일자리	기타
2013	7	7	7	21	2	-	2	1
2014	8	10	23	31	3	3	6	2
2015	11	10	24	26	4	4	6	1
2016	9	9	22	23	1	6	4	1
2017	9	10	22	22	-	6	4	1
2018	7	7	15	16	3	6	3	1
합계	51	53	113	139	13	25	25	7

주: 세부사업내용에 따라 중복 처리(중복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출산준비교실 운영, 유축기 대여, 임신출산영유아 부모교육, 맘편한 산후조리지원사업, 엄마건강아기사랑 프로젝트,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육아휴직자 업무대행수당 지급 등)



[그림 4-3] 정책 지원 분야별 저출산 정책 유형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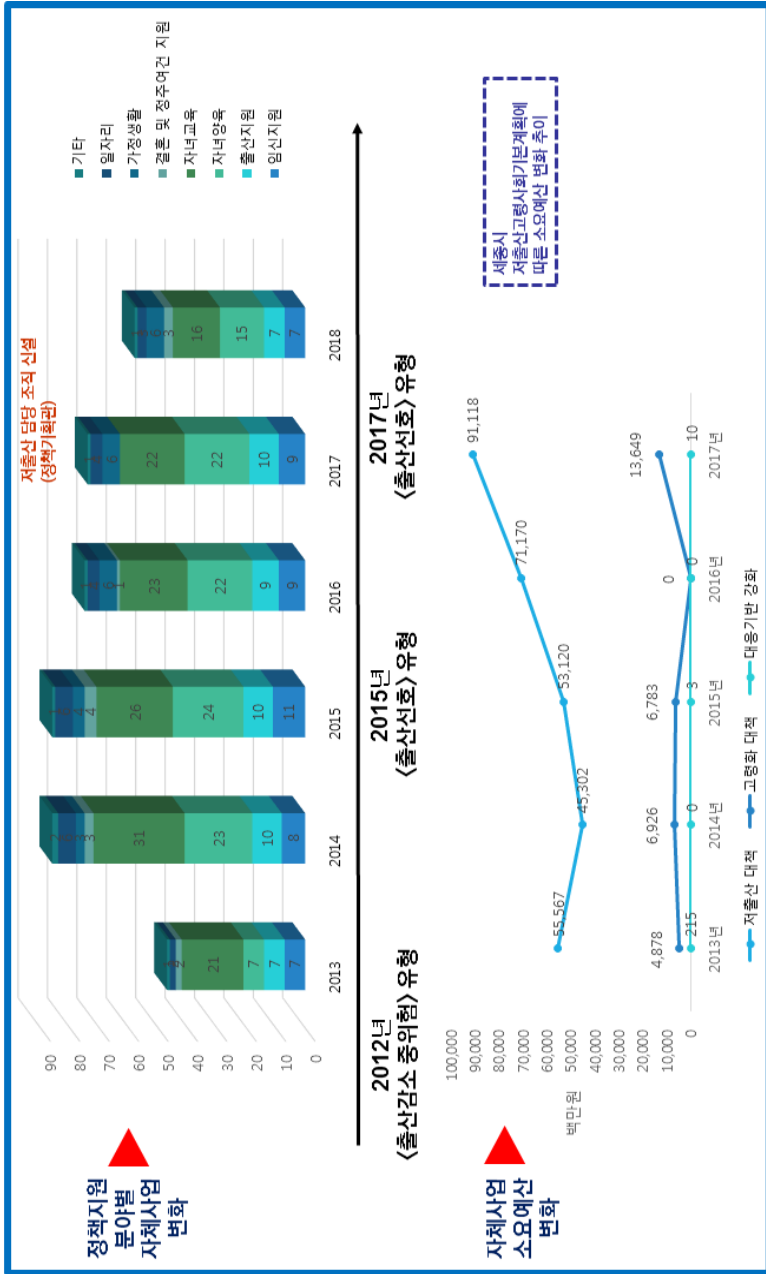
제3절 소결

□ 도구별 유형화 특징

- 2013년~2018년까지 세종시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자체사업은 주로 간접 도구 방식을 활용하여 시행되었음
- 특히, 보조금 지급 방식을 선호해 온 것으로 파악됨. 공급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 왔음
- 이는 세종시 자체사업의 추진이 향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향후, 근로제도의 적극적 활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방식에서의 정책적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임

□ 정책 지원 분야별 특징

- 정책 지원 분야의 경우, 임신과 출산, 자녀 돌봄(양육과 교육) 분야에 자체 사업이 치중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지자체 시책이 임신·출산정책에 치중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함
- 세종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유일한 ‘출산 선호’ 지역으로, 20~44세 여성 비율과 기혼율이 높고, 출산율 또한 매우 높은 지역임
- 그러나 장래 인구 시나리오 분석 결과처럼, 세종시도 2045년에는 고령 인구비율이 젊은 연령층(20~44세)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 지금의 저출산 정책추진 방향에서 벗어나 출산 선호 지역으로써의 선제적인 저출산 정책방향을 설정해야할 필요가 있음
- 인구이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30대 청년층의 인구 유출도 상당하여 선제적으로 출산 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저출산 시책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임



[그림 4-4] 세종시 자체사업 정책지원분야와 소요예산 변화 추이

주: 자체사업은 <세종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2013년~2018년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분석한 결과를 도식화 함. 자체사업 소요예산은 세종시 내부자료(2018)를 재구성하여 제시함

세종시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

제1절 세종 시민의 견해

제2절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SWOT 분석

제3절 정책 환경에 따른 정책 방향

제5장 세종시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

제1절 세종 시민의 견해

1. 조사개요

-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결과물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시민의 견해를 수집함
 - 본 연구는 출산과 관련된 세종 시민의 견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양적연구결과를 대표하는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보고서>와 질적연구결과를 대표하는 <세종시 저출산 극복 정책 마련 타운홀미팅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여,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음
- 제1단계: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결과보고서> 미시데이터 활용
 - 2017년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보고서>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세종 시민의 출산관련 인식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고자 함
 - 세종시 사회조사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음. 시민의 사회적 관심,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지표부문별로 2년 주기로 추진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득 가능한 가장 최근년도의 조사 자료인 2017년 사회조사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세종시민의 견해를 담고자 하였음
 - (응답자 수) 1,800명의 세종시민
 - (주요 조사부문) 2017년 사회조사문항 6개 부문(가구와 가족, 교육, 보건, 환경, 안전, 행복도시) 중 '가구와 가족' 부문에서 주요 지표를 추출
 - (추출된 주요 지표) 선호하는 가족형태, 희망 자녀 수, 출산율 증가 방안
- 제2단계: <세종시 저출산 극복 정책 마련 타운홀미팅 결과보고서> 활용
 - 2017년 <세종시 저출산 극복 정책 마련을 위한 타운홀 미팅 결과보고서>를 통해 시민의 출산관련 인식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고자 함

- 2017년 11월 21일(화) 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에서 약 3시간에 걸쳐 타운홀 미팅이 진행되었음
- 결혼적령기, 학생, 부모,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약 1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음
- 주제는 크게 임신과 출산 분야, 육아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음

2. 사회조사 주요 지표 분석

□ 선호하는 가족형태

- (전체 특성)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가족형태를 조사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형태는 '부부와 자녀가 같이 거주'로서, 약 49.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채택률을 보임. 그 다음으로는 '부부만 거주'하는 형태가 약 21.8%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냄
- (성별 특성) 남녀 모두 '부부와 자녀'가 같이 거주하는 형태가 각각 약 49.9%, 47.6%로 가장 높게 조사됨
- (연령별 특성) 10~50대까지는 모두 '부부와 자녀가 같이 거주'하는 가족 형태를 선호하나, 60세 이상의 연령은 '부부만 거주'하는 가족형태가 약 39.1%로 '부부와 자녀가 같이 거주하는 가족형태(약 31.7%)'보다 높게 집계됨
- (혼인상태별 특성) 혼인상태별 차이가 크게 없으며, 미혼·배우자 있음·사별·이혼 모두 '부부와 자녀가 같이 거주'하는 가족형태를 가장 선호함
- (경제활동 유무별 특성) 경제활동 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음
 - 경제활동 유무와 상관없이 응답자 모두 '부부와 자녀가 같이 거주하는 형태'를 가장 선호함
- (가구소득별 특성) 소득수준에 따라 2순위 선호 가족형태는 다소 상이함
 - (1순위 동일) 가구소득별 1순위 응답은 '부부와 자녀가 같이 거주하는 형태'임
 - 100만원 미만·100~200만원 미만·200~300만원 미만의 소득층 2순위: '부부만 사는 가족'형태 선호(각각 약 29.5%, 32%, 21%로 높게 집계됨)
 - 300~400만원 미만·400~500만원 미만·500~600만원·600~700만원

미만의 소득층 2순위: '부모님과 부부 그리고 자녀가 같이 거주'하는 가족형태 선호

- 700만원 미만의 소득층 2순위: '부부만 거주하는 가족'형태와 '부모님과 부부, 자녀가 같이 거주'하는 가족형태가 각각 약 14.9%로 높음

[표 5-1] 세종시민이 선호하는 가족형태

(단위: 명, (%))

구 분		계	부모님 +미혼 자녀	부부 부부	부모님+ 부부+자 녀	부부	부부+ 자녀	혼자	기타
전 체		1,800 (100.0)	114 (6.3)	50 (2.8)	310 (17.2)	393 (21.8)	887 (49.3)	46 (2.6)	0 (0.0)
성별	남자	1,327 (100.0)	84 (6.3)	39 (2.9)	240 (18.1)	282 (21.3)	662 (49.9)	20 (1.5)	0 (0.0)
	여자	473 (100.0)	30 (6.3)	11 (2.3)	70 (14.8)	111 (23.5)	225 (47.6)	26 (5.5)	0 (0.0)
연령	13~19세	30 (100.0)	6 (20.0)	0 (0.0)	0 (0.0)	2 (6.7)	19 (63.3)	3 (10.0)	0 (0.0)
	20~29세	139 (100.0)	24 (17.3)	2 (1.4)	9 (6.5)	19 (13.7)	82 (59.0)	3 (2.2)	0 (0.0)
	30~39세	333 (100.0)	20 (6.0)	6 (1.8)	59 (17.7)	32 (9.6)	208 (62.5)	8 (2.4)	0 (0.0)
	40~49세	439 (100.0)	23 (5.2)	6 (1.4)	81 (18.5)	45 (10.3)	280 (63.8)	4 (0.9)	0 (0.0)
	50~59세	284 (100.0)	13 (4.6)	14 (4.9)	66 (23.2)	70 (24.6)	116 (40.8)	5 (1.8)	0 (0.0)
	60세 이상	575 (100.0)	28 (4.9)	22 (3.8)	95 (16.5)	225 (39.1)	182 (31.7)	23 (4.0)	0 (0.0)
혼인 상태	미혼	281 (100.0)	38 (13.5)	5 (1.8)	40 (14.2)	42 (14.9)	140 (49.8)	16 (5.7)	0 (0.0)
	배우자 있음	1,239 (100.0)	66 (5.3)	36 (2.9)	217 (17.5)	283 (22.8)	631 (50.9)	6 (0.5)	0 (0.0)
	사별	184 (100.0)	6 (3.3)	3 (1.6)	38 (20.7)	50 (27.2)	68 (37.0)	19 (10.3)	0 (0.0)
	이혼	96 (100.0)	4 (4.2)	6 (6.3)	15 (15.6)	18 (18.8)	48 (50.0)	5 (5.2)	0 (0.0)
경제 활동 유무	경제활동 유	1,301 (100.0)	74 (5.7)	40 (3.1)	232 (17.8)	260 (20.0)	678 (52.1)	17 (1.3)	0 (0.0)
	경제활동 무	499 (100.0)	40 (8.0)	10 (2.0)	78 (15.6)	133 (26.7)	209 (41.9)	29 (5.8)	0 (0.0)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47 (100.0)	31 (6.9)	9 (2.0)	71 (15.9)	132 (29.5)	177 (39.6)	27 (6.0)	0 (0.0)
	100~200만원 미만	225 (100.0)	16 (7.1)	12 (5.3)	35 (15.6)	72 (32.0)	85 (37.8)	5 (2.2)	0 (0.0)
	200~300만원 미만	272 (100.0)	17 (6.3)	11 (4.0)	44 (16.2)	57 (21.0)	138 (50.7)	5 (1.8)	0 (0.0)
	300~400만원 미만	299 (100.0)	14 (4.7)	7 (2.3)	62 (20.7)	55 (18.4)	156 (52.2)	5 (1.7)	0 (0.0)
	400~500만원 미만	210 (100.0)	10 (4.8)	4 (1.9)	44 (21.0)	27 (12.9)	123 (58.6)	2 (1.0)	0 (0.0)
	500~600만원 미만	143 (100.0)	12 (8.4)	2 (1.4)	21 (14.7)	19 (13.3)	88 (61.5)	1 (0.7)	0 (0.0)
	600~700만원 미만	83 (100.0)	4 (4.8)	1 (1.2)	15 (18.1)	13 (15.7)	50 (60.2)	0 (0.0)	0 (0.0)
	700만원 이상	121 (100.0)	10 (8.3)	4 (3.3)	18 (14.9)	18 (14.9)	70 (57.9)	1 (0.8)	0 (0.0)

자료: 세종시(2017), <2017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보고서> 재구성

□ 희망 자녀수

[표 5-2] 희망 자녀수

(단위: 명, (%))

구 분		계	0명	1명	2명	3명	4명 이상
전 체		1,800 (100.0)	74 (4.1)	155 (8.6)	999 (55.5)	363 (20.2)	209 (11.6)
성별	남자	1,327 (100.0)	51 (3.8)	113 (8.5)	750 (56.5)	274 (20.6)	139 (10.5)
	여자	473 (100.0)	23 (4.9)	42 (8.9)	249 (52.6)	89 (18.8)	70 (14.8)
연령	13~19세 미만	30 (100.0)	4 (13.3)	2 (6.7)	18 (60.0)	4 (13.3)	2 (6.7)
	20~29세 미만	139 (100.0)	12 (8.6)	18 (12.9)	84 (60.4)	20 (14.4)	5 (3.6)
	30~39세 미만	333 (100.0)	20 (6.0)	44 (13.2)	206 (61.9)	51 (15.3)	12 (3.6)
	40~49세 미만	439 (100.0)	16 (3.6)	56 (12.8)	261 (59.5)	79 (18.0)	27 (6.2)
	50~59세 미만	284 (100.0)	6 (2.1)	19 (6.7)	176 (62.0)	55 (19.4)	28 (9.9)
	60세 이상	575 (100.0)	16 (2.8)	16 (2.8)	254 (44.2)	154 (26.8)	135 (23.5)
혼인상태	미혼	281 (100.0)	38 (13.5)	36 (12.8)	159 (56.6)	39 (13.9)	9 (3.2)
	배우자 있음	1239 (100.0)	26 (2.1)	101 (8.2)	709 (57.2)	264 (21.3)	139 (11.2)
	사별	184 (100.0)	5 (2.7)	5 (2.7)	76 (41.3)	45 (24.5)	53 (28.8)
	이혼	96 (100.0)	5 (5.2)	13 (13.5)	55 (57.3)	15 (15.6)	8 (8.3)
경제활동 유무	경제활동 유	1,301 (100.0)	50 (3.8)	126 (9.7)	748 (57.5)	256 (19.7)	121 (9.3)
	경제활동 무	499 (100.0)	24 (4.8)	29 (5.8)	251 (50.3)	107 (21.4)	88 (17.6)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447 (100.0)	24 (5.4)	19 (4.3)	209 (46.8)	98 (21.9)	97 (21.7)
	100~200만원 미만	225 (100.0)	12 (5.3)	17 (7.6)	122 (54.2)	47 (20.9)	27 (12.0)
	200~300만원 미만	272 (100.0)	12 (4.4)	32 (11.8)	157 (57.7)	53 (19.5)	18 (6.6)
	300~400만원 미만	299 (100.0)	11 (3.7)	39 (13.0)	160 (53.5)	65 (21.7)	24 (8.0)
	400~500만원 미만	210 (100.0)	8 (3.8)	19 (9.0)	127 (60.5)	39 (18.6)	17 (8.1)
	500~600만원 미만	143 (100.0)	4 (2.8)	12 (8.4)	96 (67.1)	21 (14.7)	10 (7.0)
	600~700만원 미만	83 (100.0)	1 (1.2)	6 (7.2)	50 (60.2)	17 (20.5)	9 (10.8)
	700만원 이상	121 (100.0)	2 (1.7)	11 (9.1)	78 (64.5)	23 (19.0)	7 (5.8)

자료: 세종시(2017), <2017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보고서> 재구성

- (전체 특성) 희망자녀수 조사결과, 표본 1,800명 중 약 55.5%인 999명이 자녀 2명을 가장 희망하는 자녀수로 응답함
- (성별 특성) 남녀 응답자별로 희망자녀 수에는 큰 차이는 없음. 남녀 모두 2명을 가장 선호하며 그 다음으로는 3명(약 20.2%)을 희망함

- (연령별 특성) 응답자 연령별로 희망자녀 수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자녀 2명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 (혼인상태별 특성) 혼인상태와 상관없이 대부분이 자녀 2명을 가장 희망함
- (경제활동 유무별 특성) 경제활동의 유무에 따라 희망자녀 수의 큰 차이는 없음. 대부분이 자녀 2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별 특성) 대부분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자녀 2명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됨

[표 5-3] 세종시민이 선호하는 출산율 증기방안

(단위: 명, (%))

구분	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증대	유아유치 활성화	여성 근무여건 개선	공공육 영입증대	출산에 대한 개인식	의료비 지원	치안강화 (아동범죄 감소)	가구 소득 증대	기타
성별	전 계	1,800 (100.0)	505 (28.1)	281 (15.6)	155 (8.6)	209 (11.6)	163 (9.1)	73 (4.1)	12 (0.7)	174 (9.7)	6 (0.3)
	남자	1,327 (100.0)	371 (28.0)	203 (15.3)	104 (7.8)	146 (11.0)	170 (12.8)	121 (9.1)	59 (4.4)	140 (10.6)	3 (0.2)
연령	여자	473 (100.0)	134 (28.3)	78 (16.5)	51 (10.8)	63 (13.3)	52 (11.0)	42 (8.9)	14 (3.0)	34 (7.2)	3 (0.6)
	13~19세 미만	30 (100.0)	13 (43.3)	2 (6.7)	3 (10.0)	4 (13.3)	1 (3.3)	1 (3.3)	3 (10.0)	2 (6.7)	1 (3.3)
	20~29세 미만	139 (100.0)	33 (23.7)	23 (16.5)	14 (10.1)	10 (7.2)	12 (8.6)	22 (15.8)	10 (7.2)	13 (9.4)	2 (1.4)
	30~39세 미만	333 (100.0)	95 (28.5)	78 (23.4)	31 (9.3)	39 (11.7)	21 (6.3)	25 (7.5)	11 (3.3)	4 (1.2)	28 (8.4)
	40~49세 미만	439 (100.0)	94 (21.4)	61 (13.9)	29 (6.6)	59 (13.4)	87 (19.8)	47 (10.7)	13 (3.0)	3 (0.7)	45 (10.3)
	50~59세 미만	284 (100.0)	69 (24.3)	35 (12.3)	17 (6.0)	49 (17.3)	44 (15.5)	28 (9.9)	9 (3.2)	0 (0.0)	33 (11.6)
혼인 상태	60세 이상	575 (100.0)	201 (35.0)	82 (14.3)	61 (10.6)	48 (8.3)	57 (9.9)	27 (4.7)	5 (0.9)	53 (9.2)	1 (0.2)
	미혼	281 (100.0)	67 (23.8)	48 (17.1)	27 (9.6)	32 (11.4)	25 (8.9)	16 (5.7)	0 (0.0)	29 (10.3)	4 (1.4)
경제활동 유무	배우자 있음	1,239 (100.0)	336 (27.1)	195 (15.7)	97 (7.8)	152 (12.3)	169 (13.6)	45 (3.6)	10 (0.8)	121 (9.8)	2 (0.2)
	사별	184 (100.0)	71 (38.6)	29 (15.8)	24 (13.0)	16 (8.7)	14 (7.6)	8 (4.3)	7 (3.8)	14 (7.6)	0 (0.0)
경제활동 유무	이혼	96 (100.0)	31 (32.3)	9 (9.4)	7 (7.3)	9 (9.4)	14 (14.6)	5 (5.2)	1 (1.0)	10 (10.4)	0 (0.0)
	경제활동 유	1,301 (100.0)	338 (26.0)	210 (16.1)	108 (8.3)	168 (12.9)	168 (12.9)	48 (3.7)	9 (0.7)	130 (10.0)	4 (0.3)
경제활동 무	499 (100.0)	167 (33.5)	71 (14.2)	47 (9.4)	41 (8.2)	54 (10.8)	45 (9.0)	25 (5.0)	3 (0.6)	44 (8.8)	2 (0.4)

구 분	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증대	육아휴직 활성화	여성 근무여건 개선	공교육 역할증대	출산에 대한 개인의식	의료비 지원	치안경화 (아동범죄 감소)	가구 소득 증대	기타
100만원 미만	447 (100.0)	159 (35.6)	57 (12.8)	61 (13.6)	34 (7.6)	44 (9.8)	29 (6.5)	23 (5.1)	1 (0.2)	37 (8.3)	2 (0.4)
100~200만원 미만	225 (100.0)	76 (33.8)	34 (15.1)	18 (8.0)	20 (8.9)	17 (7.6)	22 (9.8)	10 (4.4)	2 (0.9)	25 (11.1)	1 (0.4)
200~300만원 미만	272 (100.0)	82 (30.1)	50 (18.4)	15 (5.5)	29 (10.7)	34 (12.5)	29 (10.7)	11 (4.0)	2 (0.7)	19 (7.0)	1 (0.4)
300~400만원 미만	299 (100.0)	77 (25.8)	62 (20.7)	18 (6.0)	44 (14.7)	34 (11.4)	23 (7.7)	12 (4.0)	3 (1.0)	26 (8.7)	0 (0.0)
400~500만원 미만	210 (100.0)	55 (26.2)	18 (8.6)	18 (8.6)	35 (16.7)	30 (14.3)	20 (9.5)	8 (3.8)	0 (0.0)	24 (11.4)	2 (1.0)
500~600만원 미만	143 (100.0)	28 (19.6)	31 (21.7)	7 (4.9)	21 (14.7)	25 (17.5)	7 (4.9)	4 (2.8)	1 (0.7)	19 (13.3)	0 (0.0)
600~700만원 미만	83 (100.0)	10 (12.0)	8 (9.6)	7 (8.4)	14 (16.9)	18 (21.7)	12 (14.5)	4 (4.8)	2 (2.4)	8 (9.6)	0 (0.0)
700만원 이상	121 (100.0)	18 (14.9)	21 (17.4)	11 (9.1)	12 (9.9)	20 (16.5)	21 (17.4)	1 (0.8)	1 (0.8)	16 (13.2)	0 (0.0)

자료: 세종시(2017), <2017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보고서> 재구성

□ 출산율 증가 방안

- (전체 특성) 세종시민을 대상으로 선호하는 출산율 증가방안을 조사한 결과, '보육료 지원'이 약 28.1%로 가장 높게 집계됨
- (성별 특성) 남녀 모두 '보육료 지원'을 가장 선호하는 출산율 증가방안으로 응답함(남자: 28%, 여자: 28.3%)
- (연령별 특성) 설문에 응답한 모든 연령대에서 '보육료 지원'을 가장 선호하는 출산율 증가방안으로 지목함
 - 하지만, 30대에 비하여 40대의 경우 '공교육의 역할 확대'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남. 이는 자녀 연령에 따른 결과로 추정됨
- (혼인상태별 특성) 응답자의 혼인상태별(미혼·배우자 있음·사별·이혼) 차이가 없음. 모두 '보육료 지원' 방안을 가장 선호한다고 응답함
- (경제활동 유무별 특성) 경제활동 유무에 따라 응답을 분석한 결과, '보육료 지원' 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가구소득별 특성) 가장 선호하는 출산율 증가방안에 대해 가구소득별 응답을 분석한 결과, 소득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 100만원 미만~500만원 미만의 소득층: '보육료 지원' 방안이 가장 높게 집계됨
 - 500~600만원 미만의 소득층: 대부분 '보육시설 증대'의 방안이 약 21.7%로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600~700만원 미만의 소득층: 공교육의 역할증대 방안이 가장 선호하는 출산율 증가방안으로 나왔고, 그 다음으로 '여성 근무여건 개선'을 선호함
 - 700만원 이상의 소득층: '보육시설 증대' 방안과 '출산에 대한 개인의식'이 각각 약 17.4%로 가장 선호함

3. 타운홀 미팅 결과 분석

타운홀 미팅 결과를 중요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여 제시함(아래[표 5-4] 참조)

[표 5-4] 임신·출산정책 분야 우선순위 결과

순위	정책제안명	내용	정책지원분야*
1	지원금 up! 출산율 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제혜택 • 아이가 성장할 때 맞춤형 지원 •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마련하여 적재적소에 지원 	자녀양육
2	일자리 창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출산 이후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 • 임신부 직장이 없어서, 맞벌이→외벌이가 힘들기 때문에 • 일자리 창출 확대 	일자리
3	임신 여건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여건 조성, 직장, 돈 등 현실적 조건 충족 • 임신부 의료지원 혜택 	일자리, 결혼 및 정주여건, 임신지원, 출산지원,
4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의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 • 막연한 부정적인 결혼관 • 육아 문제에 따른 부정적 결혼 인식 	결혼 및 정주여건
5	홀로 육아 NO, 공동 육아 Y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 공동 육아, 아빠가 참여해야 아이도 행복 • 육아, 자녀양육의 스트레스 공감 필요 	자녀양육
6	나도 아이 놓고 싶어요(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지원 확대 • 기업의 인식 변화 • 난임 시술 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 	임신지원
7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환경 • 범죄 없는 마을 	결혼 및 정주여건
8	선배님 도와주세요.(육아 는 행복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 경험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 • 주위나 가족 등 선배 맘에게 도움과 조언을 받으며 극복 	자녀양육
9	부모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공동 역할 부여, 부모가 되는 철저한 준비 • 육아 및 산전후 관리법 교육필요 	출산지원, 자녀양육
10	여성들의 인식 변화	여성들의 인식 변화	기타

주*: 디모스(2017)의 타운홀 미팅 결과자료를 기초로, 연구자가 제4장 분석에 사용한 정책 지원 분야별로 구분함

자료: 디모스(2017), <세종특별자치시 저출산 극복 정책마련 타운홀 미팅 결과보고서> 일부 재구성

임신과 출산정책 분야 우선순위 결과

- 시민의 임신과 출산정책 분야 정책제안을 정책 지원 분야별로 구분한 결과, 자녀양육 4건, 결혼 및 정주여건 3건, 임신 지원 2건, 출산지원 2건, 일자리 1건, 기타 1건(여성들의 인식변화) 순으로 조사됨(중복 허용)

- 그러나 중요도를 기반으로 분석한 우선순위 결과로 보면, 1위가 자녀양육, 2위가 일자리, 3위가 일자리 등(일자리, 결혼 및 정주여건, 임신지원, 출산지원 복합) 4위가 결혼 및 정주여건으로 분류됨
- 세종시민의 경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육아정책 분야 우선순위 결과**

- 시민의 육아정책 분야 정책제안을 정책 지원 분야별로 구분한 결과, 자녀양육(13건), 일자리(4건), 기타(2건, 조부모 양육비 지원) 순으로 조사됨 (중복 허용)
- 육아정책 분야 우선순위의 특징은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시민의 수요가 상당히 크며, 일자리와 연계된 정책수요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임
 - 시민들이 육아휴직사용 시 일자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함
 - 육아휴직제도의 의무화,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에 대한 요구가 크다고 분석됨
 - 직장에서의 인식 개선에 대한 필요를 강조하고 있음
- 특히, 기타 사항에 언급된 조부모 양육비 지원은 중요도 순서상 8위에 그쳤으나, 이 결과는 가정에 있어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돌봄 부담이 존재함을 보여줌
 - 노부모 돌봄에 따른 가정 내 돌봄 비용의 증가는 저출산으로도 연결될 우려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임

[표 5-5] 육아정책 분야 우선순위 결과

순위	정책제안명	내용	정책지원 분야*
1	육아휴직으로 불이익 없애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복귀 후 인사상의 불이익 발생 	일자리, 자녀양육
2	육아시설 확충 방안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맞벌이 부부) 육아 전담 인력 확대 육아시설 공동사용 확대 	자녀양육
3	입시제도 재정비 사교육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시 시험(수능) 개선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지원 확대→의무교육기간 확대 	자녀교육
4	육아수당 지원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 수당 확대 셋째만 지원이 아닌 첫아이부터 육아지원 신생아 유아 의료비 확대 	자녀양육
5	육아휴직 (일반기업체) 의무기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 휴직 보장 육아휴직 양쪽 동시 지원 중소기업 직장인 출산휴가 및 육아 돌봄 휴가 지원 	자녀양육
6	아빠의 육아 보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빠의 육아 참여 시 정부 예산으로 보너스 등 금전적 지원 남편의 육아휴직 사용 시 승진에 가산이 되는 제도 마련 	자녀양육, 일자리
7	실질적인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산부와 남편의 단기 육아 휴직 의무화 육아휴직 중 수당 지급 첫 아이만 출산해도 150만 원 지급 	자녀양육, 일자리
7	교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 교육비 지원 	자녀교육
7	직장 내 인식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의 가족친화 인증 확대(혜택) 회사나 기업 내에 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일자리
8	조부모 양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부모 부양에 따른 비용 지원 	기타
9	오후 6시 이후 자녀 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근 시간 후 돌봄 공백 채우기 필요 	자녀양육
9	노인 베이비시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과 아이의 일대일 매칭 육아 담당자 같은 전문가 양성 및 확대 학생 원아 보호 인력 양성 확대 운영 	자녀양육
9	사교육비 담합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교육비 담합 금지 학원비 과다 지출 노후 준비 미비 	자녀교육
9	의료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응급의료기관 확충 예방접종 지원 확대 	자녀양육
10	아동안전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안전망 시스템 예방 지킴이 맞벌이 가정 돌봄 시간 확대 지니콜 시스템 직장 여성 응급 아동 돌봄 	자녀양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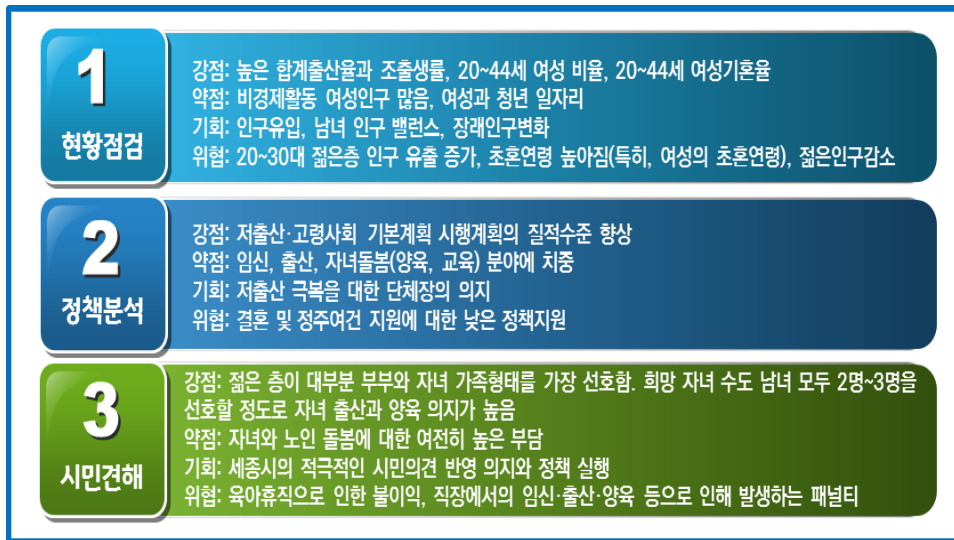
주*: 디모스(2017)의 타운홀 미팅 결과자료를 기초로, 연구자가 제4장 분석에 사용한 정책 지원 분야별로 구분함

자료: 디모스(2017), <세종특별자치시 저출산 극복 정책마련 타운홀 미팅 결과보고서> 일부 재구성

제2절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SWOT 분석

1. 세종형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SWO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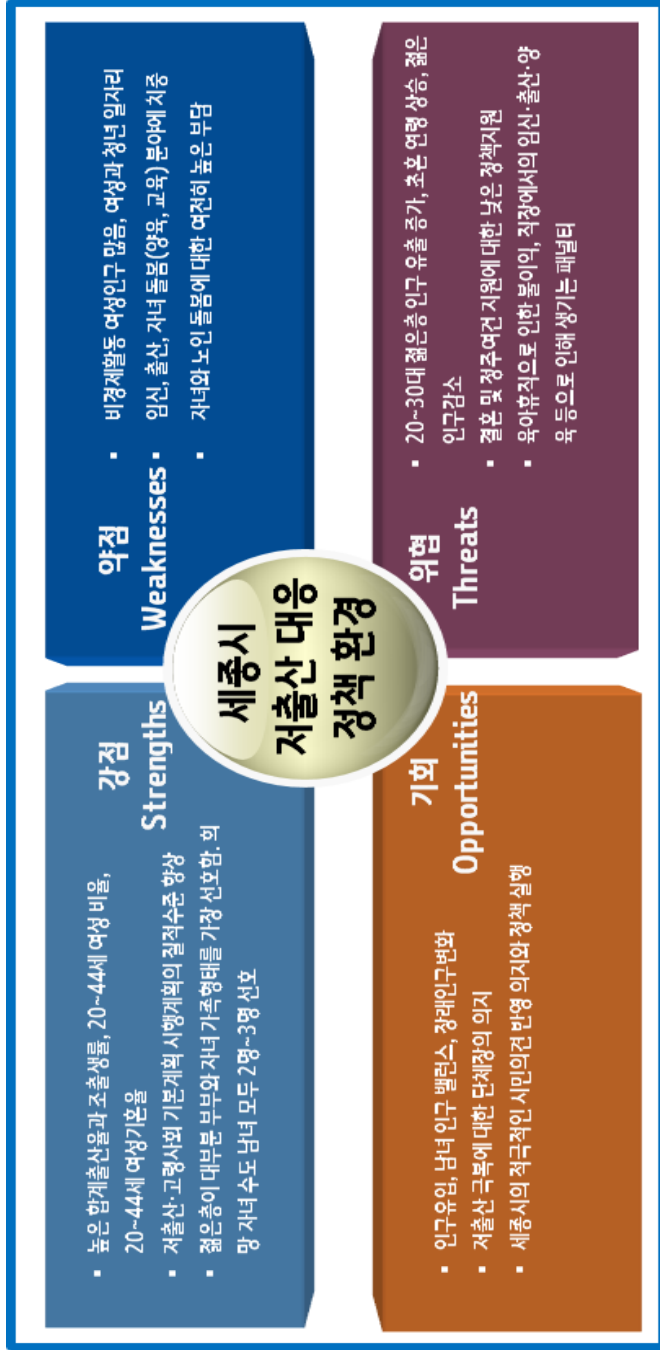
- 주요 연구 결과별 강점요인, 약점요인, 기회요인, 위협요인을 도출
 - 현황점검 결과: 본 연구의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3장 출산감소 지역 유형분류를 토대로 SWOT 분석
 - 세종시 저출산 대응정책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제4장 세종시 저출산 대응 정책 분석 결과를 토대로 SWOT 분석
 - 세종 시민의 견해: 본 연구의 제5장 중 사회조사와 타운홀 미팅 보고서를 토대로, SWOT 분석
 - 분석 결과는 아래 [그림 5-1]로 같음함



[그림 5-1] 주요 점검 지표별 SWOT 분석 결과

2. 세종시 저출산 대응관련 정책환경

□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통해 본 세종시 저출산 대응관련 정책환경(그림 5-2) 참조)



[그림 5-2] 세종시 저출산 대응 관련 정책 환경

제3절 정책 환경에 따른 정책 방향

1. 강점요인과 기회요인을 활용한 정책 방향

- 높은 출산율과 젊은 미혼남녀와 30~40대 젊은 부부가 많은 인구특성, 지속적인 인구 유입 등은 세종시가 ‘출산선호’ 유형그룹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2045년 장래 인구 시나리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종시도 다른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44세 미만의 젊은 인구층이 감소될 전망이다
- 향후 몇 년 간의 출산율 증가는 도시계획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발생하는 ‘이주효과’에 의한 증가일 수 있음
- 따라서 도시계획상의 인구 유입이 점차 감소될 경우를 미리 대비해야 함

2. 차별화된 자체사업 추진 필요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자체사업 분야 차별화 전략이 필요
 - 세종시의 강점요인과 기회요인을 통해 타 시·도와 현격히 차이나는 정책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임신·출산·자녀 돌봄 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결혼 및 정주여건 지원, 일자리 지원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3. 약점요인과 위협요인을 고려한 정책 방향

- 여전히 ‘돌봄’영역에 있어 사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문화 개선 노력이 필요함
 - 기존의 돌봄 관련 정책의 확대와 내실화

-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맞춘 일자리 마련 노력이 필요**
 - 여성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 20~30대 젊은층 인구 유출을 줄이고, 세종시에서 결혼하고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일자리의 문제는 비단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 최선의 대안은 아님. 그러나 결혼과 출산을 경제적 비용 문제로 두려워하는 20~30대 젊은 미혼남녀와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에게는 결혼과 출산을 결정 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
- **일자리 및 근로환경 변화를 이끌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동기 부여**
 - 일자리 마련과 더불어,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문화 개선 및 육아휴직 제도의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
 - 공공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이 어려운 민간 기업에게 인센티브와 그에 따른 감시·감독을 통해 근로자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결론

1. 연구 요약
2. 정책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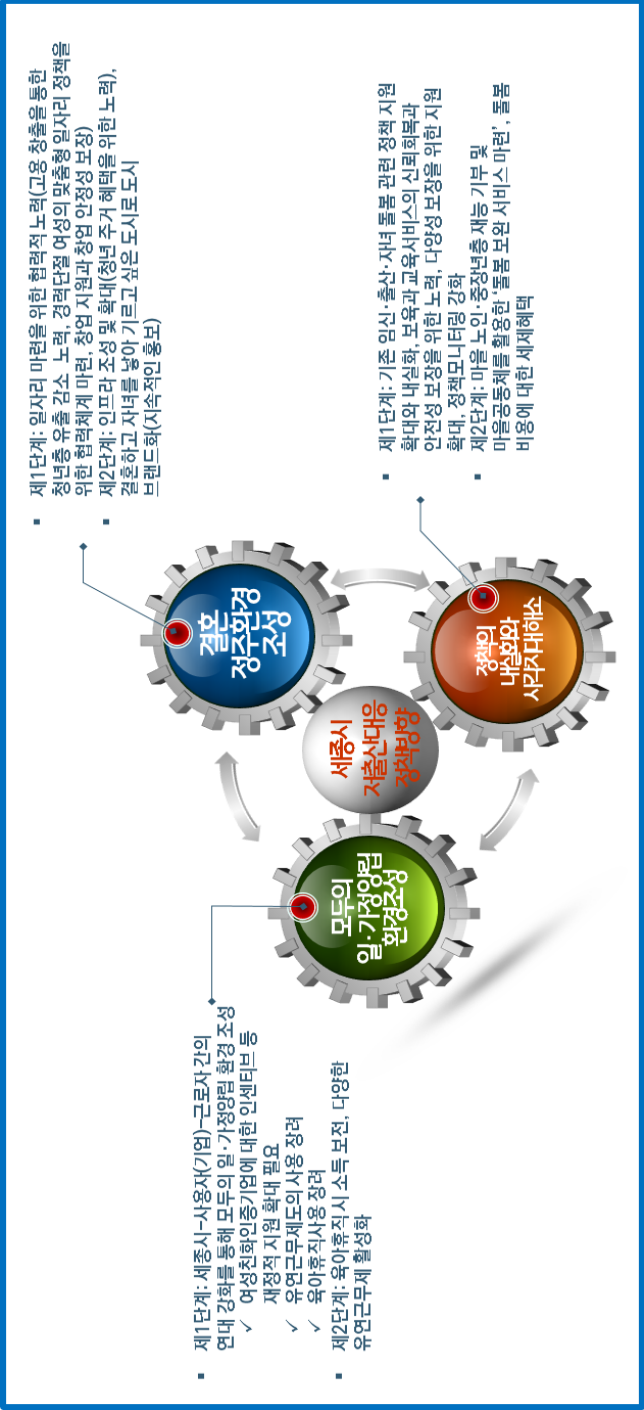
제6장 결론

1. 연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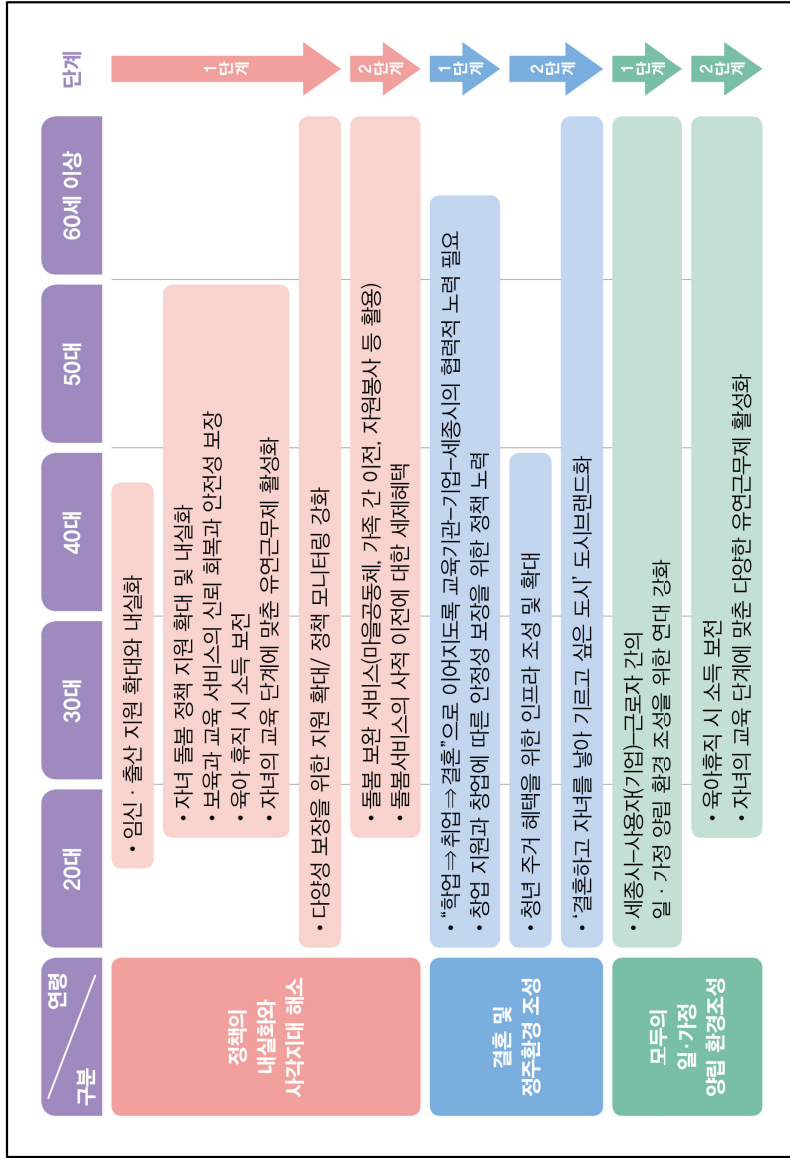
-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관련 현황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한 디자인 사고를 통해, 세종시의 저출산 대응에 대한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왜 세종시만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문제 해결 지침이 필요한가’를 밝히고, 향후 세종시가 추진해야 할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을 제안하는데 있음
-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저출산과 관련된 논의에서 ‘왜 젊은 여성이 중요한 지표가 되었는가’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검토함으로써, 출산감소 지역 유형분류를 위한 주요 지표를 도출함
- 2013~2018년까지의 <세종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담긴 세종시 저출산 대응관련 정책을 검토함. 검토 결과, 각 분야의 과제 수는 감소하였으나 질적 수준은 향상된 것으로 평가됨
-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통계청 자료와 주요 연구기관의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시·도별 인구 변화, 혼인상태와 결혼의향, 임신·출산, 경력단절 현황을 비교함
 - 세종시의 경우, 인구 변화 측면에서 타 시·도에 비하여 안정적인 상태이나, 미혼인구 증가와 만혼화 현상에 따른 임신·출산관련 정책수요와 경력단절 여성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출산감소 유형 분류 결과, 세종시는 2012년에는 젊은 여성 비율이 상당히 낮은 출산감소 중위험 유형그룹에 속하였으나, 2015년부터 젊은 여성 비율과 기혼율, 그리고 합계출산율까지 모두 높은 ‘출산 선호’ 유형으로 이동하였음을 확인함
- 또한, 세종시의 과거 인구(2012년), 현재 인구(2017년), 미래 인구 시나리오(2045년)를 P 지수로 시각화하여 살펴본 결과, 세종시도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와 젊은층(20~30대)의 정주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밝힘

- 세종시의 2013~2018년 동안의 저출산 대응정책을 분석한 결과, 정책 도구 유형별로는 간접도구 방식이 많이 활용되어 왔고, 정책 지원 분야별로는 임신과 출산, 자녀양육과 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왔음을 확인함
 - 이러한 결과는 세종시가 지금의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에서 벗어나 출산 선호 지역으로서 선제적인 저출산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줌
-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 설정을 위해, ①현황 비교 분석 결과, ②세종시 저출산 대응 정책분석 결과, ③시민의 정책수요 검토 결과에 대하여, 각각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도출함
- 주요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한 세종시의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을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정리하여 도식화함(아래 [그림 6-1, 6-2] 참조)



[그림 6-1] 세종시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



[그림 6-2] 세중시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시민 연령별)

2. 정책 제언

가. 정책의 내실화와 사각지대 해소

□ (제1단계) 기존 임신·출산·자녀 돌봄 관련 정책 지원 확대와 내실화

- 기존의 자체사업의 내실화와 수혜자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필요함
 - 예를 들어, 세종시의 경우, ‘행복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타 도시와 차별화된 보건행정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다양한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지만,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임

□ (제1단계) 보육과 교육 서비스의 신뢰회복과 안정성 보장을 위한 노력

- 앞으로 보육과 교육 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질적 수준에 대한 신뢰 회복과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요청됨
 - 세종시는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에 학생·원아보호인력(배움터안전 지킴이)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돌봄 유치원, 방과후 학교 운영 등을 통해 초등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임
 - 그러나 보육·교육시설 및 운영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고, 지역 사회 내 돌봄 기관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세종시 사회조사 결과보고서> 분석 결과, 30대 시민의 경우 자녀의 보육지원에 대한 정책 선호도가 높고, 40대 시민의 경우 자녀의 공교육 역할 강화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를 고려하여 세종시의 보육-교육체계를 강화시켜야 할 것임

□ (제1단계) 다양성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 입양가정, 이주가정과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 수혜 대상자 확대 필요
 - 예를 들어, 입양가족 양육지원의 확대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입양 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120만원(장애아동의 경우 1

명당 2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음

- 현금성 지원 외에 입양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요청되며,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교육기관, 시민대상)을 위한 노력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제1단계) 저출산 대응정책 모니터링 강화

- 시민(정책 수혜자)의 평가와 환류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저출산 대응정책의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인구 구성, 관련 정책의 변화에 맞춰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수정해 나가야 할 필요 있음

(제2단계) 마을 노인·중장년층 재능 기부 및 마을공동체를 활용한 ‘돌봄 보완 서비스 마련’

- 맞벌이 부부에게 필요한 자녀돌봄서비스는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교육관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음
-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이러한 다양한 수요자의 필요에 충분히 부합하기 어려운 상황임(수요자 > 공급자)
- 세종시는 현재 마을공동체의 역할강화와 다양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준비 중에 있음
 - 이 중 육아공동체공간조성사업은 돌봄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으로써, 민간 유희시설을 대상으로 육아에 특화된 공간 조성을 지원하려는 사업임
 - 그러나 이 사업은 부모가 영유아와 함께 하는 마을육아공동체 공간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인프라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향후, 부모와 자녀를 위한 공동체 돌봄 공간 조성 외에도 마을단위에서 자녀의 돌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돌봄 지원이 많이 필요한 만큼, 같은 마을 내(같은 아파트 단지 내) 거주하는 노인이나 중장년층의 도움(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을 받을 수 있다면 재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아이들의 ‘학교 지원’ 및 ‘엄마·아빠 퇴근 전까지 함께 있어주기’ 등 돌봄의 공백이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에 맞추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

- 재능기부(자원봉사)에 따른 돌봄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지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므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돌봄의 보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임
- 돌봄 보완 서비스가 이웃 간 또는 가족 간(조부모의 손주 돌봄 등) 금전적 사례로 이루어 질 경우, 이러한 사적 이전에 대하여 세제혜택 등의 지원도 필요함
 - 공식기관이 아닌 민간영역에서 돌봄 서비스를 구입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현금으로 사례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나 개인 간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경우 그 노동의 대가와 가정양육의 중요성을 인정하려는 취지에서 '조부모양육수당(또는 손주돌봄수당)'과 같은 현금을 지급하려는 일부 지자체의 시도가 있었고, 현재 국회차원에서도 논의 되고 있음. 그러나 양육수당 간의 증첩문제와 수급관리의 어려움으로 시행되기 쉽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이웃이나 조부모에게 자녀돌봄 등을 의뢰하면서 정기적으로 사례를 지급할 시 그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나. 결혼 및 정주환경 조성

(제1단계) 일자리 마련을 위한 협력적 노력이 필요

- 여성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 20~30대 젊은층 인구 유출을 감소시키고, 세종시에서 결혼하고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함
 - 일자리 마련은 비단 저출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 최선의 대안은 아님. 그러나 결혼과 출산을 경제적 비용 문제로 두려워하는 20~30대 젊은 미혼남녀와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에게는 결혼과 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
 - 하지만, 지금까지 청년의 일자리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정책은

분절화된 조직업무에 따라, 각기 다른 부서(과)에서 추진되어 왔음

- 일자리 마련을 위해 각 담당 부서의 협력적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세종시의 일자리 정책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세종시 내부적으로는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담당부서 간의 협력적 지원 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외부적으로는 민간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체계 마련을 통해 일할 의지가 있는 유능한 비경제 활동인구의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 실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경우, 고학력 비경제활동 여성들의 구직 문의가 많은 편이나, 오히려 기업의 구인 수요가 적어 일자리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기업의 구인 수요를 끌어오기 위한 세종시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임
- 또한, 세종시 내 대학교의 전공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함. ‘학업-취업-결혼’으로 이어지는 청년의 생애주기가 세종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기관-기업-세종시’의 협력적 노력이 요구됨
- 창업 지원과 창업에 따른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
 - 사업 생애주기에 맞춘 컨설팅이 필요함. 일회성 창업 컨설팅이 아닌, 창업초기부터 폐업기간에 걸친 사업의 전 과정에서 수시로 필요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제2단계) 청년 주거 혜택을 위한 인프라 조성 및 확대**
 -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할 경우, 장기적 효과를 위해 현금성 지원보다는 인프라 조성과 확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현재 세종시는 「공공주택특별법」 제3조(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및 제2조의2(공공주택의 재원·세제지원 등)에 따라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주택 건립사업을 진행 중임
 - 해당 사업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80%를 공급하게 되어 있으며,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 그러나 세종시의 역할은 부지제공 및 행정업무의 지원에 그쳐 간접적인

영향력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며, 입주문의는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주된 대상인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문의는 저조한 상황임

- 행복주택 사업의 본래의 사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 (예비) 대상자들에게 해당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함
- 또한, 행복주택 입주 요건이 세종시의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적절하고 타당한지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2단계) 청년층의 정주여건 마련을 통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은 도시’로 도시브랜드화 필요**
 - 청년층의 정주환경을 위해서는 주거 안정성 강화,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여가생활이 가능한 안전한 도시환경’이라는 도시 이미지도 중요함
 - 세종시는 2012년에 출범한 신생도시로써, 젊은 인구가 많고, 새로운 정책적 실험(스마트 도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등)이 이루어지는 등 정주하고 싶은 도시가 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
 -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은 도시’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종시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야 할 것임

다. 모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제1단계) 세종시-사용자(기업)-근로자 간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연대 강화 필요**
 - 일·가정양립 환경은 세종시의 단독 노력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결과임. 따라서 세종시와 더불어 사용자(기업), 근로자 사이에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함을 함께 공감하고 실현할 수 있는 연대가 이루어져야 함
 - 세종시의 경우, 출범 초기 이주공무원 및 이전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를 중심으로 인구가 유입되었음
 - 따라서 민간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일·가정양립 관련 제도적인 지원을 받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의 타운홀 미팅 결과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관련

제도의 혜택이나 활용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은 상황임. 이는 정부나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외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점에 기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이제는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근로자 모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시기임

○ 여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필요

- 여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재정적 지원 필요

○ 유연근무제도 사용 장려

-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것은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긍정적 방법 중 하나임. 따라서 세종시 관내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이 유연근무제를 남녀 근로자 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우수 기업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임

○ 육아휴직사용 장려

- 남녀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제2단계) 육아휴직 시 소득 보전

-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육아휴직에 따른 개인 근로자의 소득 대체율이 높지 않기 때문임
- 육아휴직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낮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중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맞벌이 부부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여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써 가계 경제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이것은 출산·양육기 이후, 여성의 경력단절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함
- 따라서 장기적으로 세종시 내 근로자의 육아휴직의 활용(특히, 남성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시 소득을 일정정도 보전해 주는 현금지원 정책을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제2단계) 자녀의 교육 단계에 맞춘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 탄력근무제의 종류는 다양하나, 대부분 '시차 출퇴근형'을 주로 많이

사용함. 대표적인 4가지 유형을 보면, 아래와 같음

- 시차 출퇴근형: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출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근무형태
 - 집약 근무형: 하루 10시간 근무 등 주 5일 미만으로 일하고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유지하는 근무형태
 - 근무시간 선택형: 주 5일 근무하되, 하루 8시간이라는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유형
 - 재량 근무형: 출퇴근 의무가 없으며 프로젝트 수행방식으로 주 40시간을 인정
- 특히, 중소기업이나 작은 규모의 공공기관의 경우, 다양한 종류의 탄력 근무제를 관리할 인력이나 시스템이 부재한 경우가 많음
- 장기적으로 임신·출산 및 자녀의 교육 단계에 맞춰 근로자가 다양한 탄력 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기업과 기관에 대한 부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 단행본

- 가케이 유스케(정태원 옮김)(2016), 〈인구감소×디자인〉. kmac.
- 디모스(2017), 〈세종특별자치시 저출산 극복 정책마련 타운홀 미팅 결과보고서〉.
- 마스다 히로야(김정환 옮김)(2014), 〈지방소멸〉, 와이즈베리.
- 박상헌 외 16인(2018),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대응방안 연구〉, 전국시·도 연구원협의회 보고서.
- 세종특별자치시(2013),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세종시 내부자료.
- 세종특별자치시(201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세종시 내부자료.
- 세종특별자치시(2015),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세종시 내부자료.
- 세종특별자치시(2016),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세종시 내부자료.
- 세종특별자치시(2017),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조사 보고서〉.
- 세종특별자치시(2017),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세종시 내부자료.
- 세종특별자치시(201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세종시 내부자료.
- 이삼식·박종서·이소영·오미애·최효진·송민영(2015),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성은·안용준·박치성(2018), 〈세종시 인구 이동 특성과 정책방향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 학술 논문

- 이상호(2016), 지역 고용동향 심층분석: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지역 고용동향 브리프〉, 한국고용정보원.
- 하연희·문명재(2007), 정책목표의 변화에 따른 정책도구의 전략적 선택과 효과: 우리나라 인구정책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제13권 2호, 75-106.

□ 기타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내부자료(2018), 〈세종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사업 소요예산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2017),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출산, 아동보육, 청년층, 경력 단절〉, (<http://www.kostat.go.kr>).
- 통계청 보도자료(2017), 〈인구동향조사〉, 해당 월 자료, (<http://www.kostat.go.kr>).
- 통계청 보도자료(2017), 〈장래인구추계 시·도판: 2015~2045년〉, (<http://www.kostat.go.kr>).
- 통계청 보도자료(2018), 〈인구동향조사〉, 해당 월 자료, (<http://www.kostat.go.kr>).

통계청(2010), 〈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0), 〈2010 인구총조사〉.

통계청(2013),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센서스〉.

통계청(2015), 〈2015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5), 〈2015 인구총조사〉.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http://opendata.hira.or.kr>)

부록

[부표 1-1] 2010년 미혼인구 및 미혼율*

(단위: 명, %)

행정구역별	전체인구			전체 미혼인구			전체 미혼율		
	남자인구	여자인구	전체인구	남자인구	여자인구	전체 미혼율	남자	여자	
전국	19,194,340	20,497,192	11,734,755	6,464,385	5,270,370	29.6	33.7	25.7	
서울특별시	3,919,199	4,272,475	2,849,541	1,480,439	1,369,102	34.8	37.8	32.0	
부산광역시	1,376,509	1,512,882	876,035	478,712	397,323	30.3	34.8	26.3	
대구광역시	964,124	1,046,681	600,451	330,504	269,947	29.9	34.3	25.8	
인천광역시	1,056,073	1,110,221	659,384	365,856	293,528	30.4	34.6	26.4	
광주광역시	566,343	614,183	377,489	204,324	173,165	32.0	36.1	28.2	
대전광역시	591,634	623,928	393,594	214,689	178,905	32.4	36.3	28.7	
울산광역시	432,687	431,395	240,046	140,489	99,557	27.8	32.5	23.1	
세종특별자치시	50,310	46,661	29,329	17,709	11,620	30.2	35.2	24.9	
경기도	4,421,813	4,635,898	2,665,548	1,461,381	1,204,167	29.4	33.0	26.0	
강원도	586,770	619,074	306,346	179,300	127,046	25.4	30.6	20.5	
충청북도	599,843	632,983	335,932	192,368	143,564	27.2	32.1	22.7	
충청남도	814,910	839,367	443,133	259,231	183,902	26.8	31.8	21.9	
전라북도	694,466	763,701	376,267	214,872	161,395	25.8	30.9	21.1	
전라남도	681,848	753,557	304,784	181,747	123,037	21.2	26.7	16.3	
경상북도	1,046,188	1,114,783	544,828	318,864	225,964	25.2	30.5	20.3	
경상남도	1,239,730	1,305,887	645,571	378,451	267,120	25.4	30.5	20.5	
제주특별자치도	202,203	220,177	115,806	63,158	52,648	27.4	31.2	23.9	

주: 2010년의 경우 세종시 출범이전이므로 세종시의 경우 <2013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센서스>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

*미혼율=각 성별의 미혼인구/ 각 성별의 전체인구*100 (본문 표 2-6)과 연계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0 인구주택총조사>, '성, 혼인상태 및 활동제한 및 활동제한 유형별 인구15세 이상-시·도'; 세종시(2013), <2013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센서스>, '성별/연령별/혼인상태별 인구15세이상' 자료 재구성

[부표 1-2] 2015년 미혼인구 및 미혼율

(단위: 명, %)

행정구역별	전체인구				전체 미혼인구				전체 미혼율			
	남자인구		여자인구		남자 미혼인구		여자 미혼인구		남자 미혼율		여자미혼율	
	남자인구	여자인구	남자 미혼인구	여자 미혼인구	남자 미혼율	여자 미혼율	남자 미혼율	여자미혼율				
전국	42,511,505	20,804,530	21,706,975	12,979,992	7,202,061	5,777,931	30.5	34.6	26.6			
서울특별시	8,360,174	4,015,572	4,344,602	2,903,850	1,506,340	1,397,510	34.7	37.5	32.2			
부산광역시	2,972,960	1,431,928	1,541,032	922,440	507,863	414,577	31.0	35.5	26.9			
대구광역시	2,086,743	1,013,718	1,073,025	636,916	356,467	280,449	30.5	35.2	26.1			
인천광역시	2,399,163	1,179,025	1,220,138	740,991	412,239	328,752	30.9	35.0	26.9			
광주광역시	1,242,989	603,293	639,696	408,696	221,653	187,043	32.9	36.7	29.2			
대전광역시	1,284,843	631,725	653,118	427,128	236,877	190,251	33.2	37.5	29.1			
울산광역시	954,472	485,710	468,762	281,037	166,917	114,120	29.4	34.4	24.3			
세종특별자치시	160,018	79,743	80,275	45,181	24,982	20,199	28.2	31.3	25.2			
경기도	10,106,295	4,981,558	5,124,737	3,056,411	1,683,673	1,372,738	30.2	33.8	26.8			
강원도	1,291,256	639,275	651,981	355,338	210,050	145,288	27.5	32.9	22.3			
충청북도	1,326,707	657,084	669,623	387,703	223,287	164,416	29.2	34.0	24.6			
충청남도	1,742,728	871,267	871,461	495,726	291,132	204,594	28.4	33.4	23.5			
전라북도	1,549,872	756,048	793,824	436,057	251,529	184,528	28.1	33.3	23.2			
전라남도	1,519,137	741,597	777,540	373,457	223,955	149,502	24.6	30.2	19.2			
경상북도	2,272,252	1,116,003	1,156,249	612,792	361,408	251,384	27.0	32.4	21.7			
경상남도	2,749,068	1,359,888	1,389,180	750,591	442,603	307,988	27.3	32.5	22.2			
제주특별자치도	492,828	241,096	251,732	145,678	81,086	64,592	29.6	33.6	25.7			

주: 본문 [표 2-6]과 연계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5 인구주택총조사>, '성별/혼인상태별/활동제약 유형별 인구15세 이상-시·도' 자료 재구성

[부표 1-3] 전국 성별 및 연령별 가구주의 미혼율* 추이

(단위: 명, %)

연도	성별	남자										여자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2000년	연령	전체 가구주	835,505	1,618,619	1,906,050	1,884,811	191,382	199,980	161,270	206,648	267,470	미혼율	80.7	36.9	12.9	5.6	2.8	96.3	81.9	47.9	22.2	11.1																						
	전체 가구주	131,562	308,228	209,255	107,140	52,902	184,358	163,766	77,190	45,885	29,768	미혼율	80.7	36.9	12.9	5.6	2.8	96.3	81.9	47.9	22.2	11.1																						
	미혼율	80.7	36.9	12.9	5.6	2.8	96.3	81.9	47.9	22.2	11.1	미혼율	80.7	36.9	12.9	5.6	2.8	96.3	81.9	47.9	22.2	11.1																						
2010년	연령	전체 가구주	200,161	603,842	1,163,421	1,617,168	213,155	366,591	344,648	393,658	457,832	전체 가구주	200,161	603,842	1,163,421	1,617,168	213,155	366,591	344,648	393,658	457,832	미혼율	94.8	65.1	29.9	16.1	9.1	97.2	85.2	57.9	32.8	16.4												
	전체 가구주	189,674	393,380	348,118	259,684	162,991	207,196	312,500	199,442	129,003	75,152	미혼율	94.8	65.1	29.9	16.1	9.1	97.2	85.2	57.9	32.8	16.4	미혼율	94.8	65.1	29.9	16.1	9.1	97.2	85.2	57.9	32.8	16.4											
	미혼율	94.8	65.1	29.9	16.1	9.1	97.2	85.2	57.9	32.8	16.4	미혼율	94.8	65.1	29.9	16.1	9.1	97.2	85.2	57.9	32.8	16.4	미혼율	94.8	65.1	29.9	16.1	9.1	97.2	85.2	57.9	32.8	16.4											
2020년	연령	전체 가구주	243,658	554,724	759,664	1,274,372	247,068	416,028	406,280	485,163	508,378	전체 가구주	243,658	554,724	759,664	1,274,372	247,068	416,028	406,280	485,163	508,378	미혼율	96.6	79.2	43.2	19.9	14.5	98.2	88.1	61.5	37.3	27.3												
	전체 가구주	235,412	439,343	327,984	253,386	201,257	242,549	366,701	249,915	180,779	138,597	미혼율	96.6	79.2	43.2	19.9	14.5	98.2	88.1	61.5	37.3	27.3	미혼율	96.6	79.2	43.2	19.9	14.5	98.2	88.1	61.5	37.3	27.3											
	미혼율	96.6	79.2	43.2	19.9	14.5	98.2	88.1	61.5	37.3	27.3	미혼율	96.6	79.2	43.2	19.9	14.5	98.2	88.1	61.5	37.3	27.3	미혼율	96.6	79.2	43.2	19.9	14.5	98.2	88.1	61.5	37.3	27.3											
2030년	연령	전체 가구주	197,387	411,609	691,331	1,022,036	198,736	364,577	506,559	525,744	476,559	전체 가구주	197,387	411,609	691,331	1,022,036	198,736	364,577	506,559	525,744	476,559	미혼율	98.1	85.6	51.8	28.7	20.9	98.5	90.4	66.2	43.2	32.3												
	전체 가구주	193,580	352,410	358,355	293,622	209,071	195,799	329,446	335,411	226,963	153,738	미혼율	98.1	85.6	51.8	28.7	20.9	98.5	90.4	66.2	43.2	32.3	미혼율	98.1	85.6	51.8	28.7	20.9	98.5	90.4	66.2	43.2	32.3											
	미혼율	98.1	85.6	51.8	28.7	20.9	98.5	90.4	66.2	43.2	32.3	미혼율	98.1	85.6	51.8	28.7	20.9	98.5	90.4	66.2	43.2	32.3	미혼율	98.1	85.6	51.8	28.7	20.9	98.5	90.4	66.2	43.2	32.3											
2040년	연령	전체 가구주	204,769	394,302	444,715	660,657	205,922	374,048	389,125	422,943	544,237	전체 가구주	204,769	394,302	444,715	660,657	205,922	374,048	389,125	422,943	544,237	미혼율	204,769	394,302	444,715	660,657	205,922	374,048	389,125	422,943	544,237	미혼율	204,769	394,302	444,715	660,657	205,922	374,048	389,125	422,943	544,237			
	전체 가구주	201,295	344,432	234,975	193,044	220,723	202,676	336,542	246,522	169,221	183,399	미혼율	201,295	344,432	234,975	193,044	220,723	202,676	336,542	246,522	169,221	183,399	미혼율	201,295	344,432	234,975	193,044	220,723	202,676	336,542	246,522	169,221	183,399	미혼율	201,295	344,432	234,975	193,044	220,723	202,676	336,542	246,522	169,221	183,399
	미혼율	98.3	87.4	52.8	29.2	23.7	98.4	90.0	63.4	40.0	33.7	미혼율	98.3	87.4	52.8	29.2	23.7	98.4	90.0	63.4	40.0	33.7	미혼율	98.3	87.4	52.8	29.2	23.7	98.4	90.0	63.4	40.0	33.7	미혼율	98.3	87.4	52.8	29.2	23.7	98.4	90.0	63.4	40.0	33.7
2045년	연령	전체 가구주	215,047	365,267	438,154	568,878	215,161	352,720	408,858	396,432	435,089	전체 가구주	215,047	365,267	438,154	568,878	215,161	352,720	408,858	396,432	435,089	미혼율	215,047	365,267	438,154	568,878	215,161	352,720	408,858	396,432	435,089	미혼율	215,047	365,267	438,154	568,878	215,161	352,720	408,858	396,432	435,089			
	전체 가구주	211,583	320,866	226,428	161,554	159,591	211,759	316,908	252,428	151,707	137,681	미혼율	211,583	320,866	226,428	161,554	159,591	211,759	316,908	252,428	151,707	137,681	미혼율	211,583	320,866	226,428	161,554	159,591	211,759	316,908	252,428	151,707	137,681	미혼율	211,583	320,866	226,428	161,554	159,591	211,759	316,908	252,428	151,707	137,681
	미혼율	98.4	87.8	51.7	28.4	23.3	98.4	89.8	61.7	38.3	31.6	미혼율	98.4	87.8	51.7	28.4	23.3	98.4	89.8	61.7	38.3	31.6	미혼율	98.4	87.8	51.7	28.4	23.3	98.4	89.8	61.7	38.3	31.6	미혼율	98.4	87.8	51.7	28.4	23.3	98.4	89.8	61.7	38.3	31.6

주: *가구주 미혼율=(각 연령별 및 성별 미혼 가구주 수/ 각 연령별 및 성별 전체 가구주)*100 (본문 [그림 2-10, 2-11]과 연계)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가구주의 성/연령/혼인상태별 추계가구> 자료 재구성

[부표 1-4] 2012년 각 17개 시도 전체 인구대비 젊은 여성(20~44세) 비율

(단위: 명, %)

행정구역별	전체 인구 (2012년)	젊은 여성(20~44세) 인구	젊은 여성(20~44세) 비율	
			50 미만	50 이상
서울특별시	10,036,273	2,096,900	20.9	59.4
부산광역시	3,461,881	618,060	17.9	50.8
대구광역시	2,480,493	457,075	18.4	52.4
인천광역시	2,793,754	539,605	19.3	54.9
광주광역시	1,503,758	295,200	19.6	55.8
대전광역시	1,540,136	303,666	19.7	56.1
울산광역시	1,124,659	206,898	18.4	52.3
세종특별자치시	102,157	15,964	15.6	44.4
경기도	11,974,482	2,357,269	19.7	56.0
강원도	1,504,234	236,063	15.7	44.6
충청북도	1,553,478	265,313	17.1	48.6
충청남도	2,042,689	342,366	16.8	47.7
전라북도	1,817,430	289,854	15.9	45.4
전라남도	1,782,361	248,824	14.0	39.7
경상북도	2,655,755	421,917	15.9	45.2
경상남도	3,265,495	554,735	17.0	48.3
제주특별자치도	560,818	95,578	17.0	48.5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 <장래인구추계 시도판: 2015~2045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 5세별/시·도)' '증위추계' 자료 재구성(2017년 6월)

[부표 1-5] 2015년 각 17개 시도 전체 인구대비 젊은 여성(20~44세) 비율

(단위: 명, %)

행정구역별	전체 인구 (2015년)	젊은 여성(20~44세)인구	젊은 여성(20~44세)비율	
			비율	한산값 (평균 = 50)
서울특별시	9,941,162	1,994,349	20.1	58.8
부산광역시	3,452,260	588,627	17.1	49.9
대구광역시	2,468,755	425,671	17.2	50.5
인천광역시	2,882,868	532,060	18.5	54.1
광주광역시	1,505,906	282,701	18.8	55.0
대전광역시	1,542,394	288,056	18.7	54.7
울산광역시	1,163,719	203,256	17.5	51.2
세종특별자치시	187,202	36,350	19.4	56.9
경기도	12,423,017	2,319,302	18.7	54.7
강원도	1,516,636	226,787	15.0	43.8
충청북도	1,589,264	258,611	16.3	47.7
충청남도	2,102,811	341,100	16.2	47.5
전라북도	1,835,125	282,726	15.4	45.1
전라남도	1,796,578	245,670	13.7	40.1
경상북도	2,677,768	403,670	15.1	44.2
경상남도	3,330,230	537,922	16.2	47.3
제주특별자치도	599,252	99,751	16.6	48.8

주*: 17개 시도의 젊은 여성(20~44세)의 비율의 평균을 50으로 산정하여 나온 산출한 값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 5세별/시·도)' '중위추계' 자료 재구성(2017년 6월)

[부표 1-6] 2017년 각 17개 시도 인구대비 젊은 여성(20~44세) 비율

(단위: 명, %)

행정구역별	전체 인구 (2017년)	젊은 여성(20~44세)인구	젊은 여성(20~44세)비율	
			젊은 여성(20~44세)인구	한산값 (평균 = 50)
서울특별시	9,776,305	1,923,026	19.7	59.2
부산광역시	3,428,923	571,358	16.7	50.2
대구광역시	2,465,268	410,865	16.7	50.2
인천광역시	2,923,047	520,505	17.8	53.6
광주광역시	1,500,977	273,165	18.2	54.8
대전광역시	1,531,256	281,802	18.4	55.4
울산광역시	1,165,646	191,669	16.4	49.5
세종특별자치시	275,594	56,576	20.5	61.8
경기도	12,809,379	2,301,542	18.0	54.1
강원도	1,520,785	219,917	14.5	43.5
충청북도	1,605,139	255,338	15.9	47.9
충청남도	2,147,723	342,293	15.9	48.0
전라북도	1,829,707	272,229	14.9	44.8
전라남도	1,795,956	233,807	13.0	39.2
경상북도	2,681,097	387,875	14.5	43.6
경상남도	3,355,238	512,862	15.3	46.0
제주특별자치도	634,161	101,627	16.0	48.2

주*: 17개 시도의 젊은 여성(20~44세)의 비율의 평균을 50으로 산정하여 나온 산출한 값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 <장래인구추계 시도판: 2015~2045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 5세별/시·도)' '중위추계' 자료 재구성(2017년 6월)

[부표 1-7] 2012년 각 17개 시도 젊은 여성(20~44세) 기혼비율

(단위: 명, %)

행정구역별	젊은 여성(20~44세) 인구	젊은 여성(20~44세) 기혼 인구	젊은 여성(20~44세) 기혼 비율	
			기혼 비율	환산값 (평균 = 50)
서울특별시	2,055,617	973,893	47.4	39.5
부산광역시	618,501	315,357	51.0	42.5
대구광역시	460,295	262,147	57.0	47.5
인천광역시	519,264	300,162	57.8	48.2
광주광역시	293,656	167,579	57.1	47.6
대전광역시	297,984	168,047	56.4	47.0
울산광역시	203,379	134,157	66.0	55.0
세종특별자치시(2013년)	19,195	11,707	61.0	50.9
경기도	2,258,715	1,389,127	61.5	51.3
강원도	232,254	144,424	62.2	51.9
충청북도	258,517	158,392	61.3	51.1
충청남도	332,521	208,807	62.8	52.4
전라북도	281,331	173,270	61.6	51.4
전라남도	238,255	161,665	67.9	56.6
경상북도	410,500	255,224	62.2	51.8
경상남도	541,846	356,550	65.8	54.9
제주특별자치도	91,415	55,342	60.5	50.5

자료: 통계청(2010), <2010년 인구총조사> '연령 및 성, 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진수자료 재구성; 세종시(2013),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센서스> '연령 및 성별 혼인상태별' 자료를 활용함

[부표 1-8] 2015년~2017년 17개 시도 젊은 여성(20~44세) 기혼비율

(단위: 명, %)

행정구역별	젊은 여성(20~44세) 인구	젊은 여성(20~44세) 기혼 인구	젊은 여성(20~44세) 기혼 비율	
			50 미만	50 이상
서울특별시	1,896,546	811,781	42.8	39.9
부산광역시	572,421	262,720	45.9	42.8
대구광역시	415,158	212,470	51.2	47.7
인천광역시	514,182	265,898	51.7	48.2
광주광역시	273,651	137,352	50.2	46.8
대전광역시	279,911	141,451	50.5	47.1
울산광역시	194,894	114,096	58.5	54.5
세종특별자치시	39,070	25,038	64.1	59.7
경기도	2,215,118	1,222,215	55.2	51.4
강원도	219,540	119,346	54.4	50.6
충청북도	248,392	134,572	54.2	50.5
충청남도	323,211	182,391	56.4	52.6
전라북도	271,742	144,017	53.0	49.4
전라남도	235,329	136,231	57.9	53.9
경상북도	387,170	212,546	54.9	51.1
경상남도	516,693	302,169	58.5	54.5
제주특별자치도	96,091	50,982	53.1	49.4

주*: 17개 시도의 젊은 여성(20~44세)의 기혼 비율의 평균을 50으로 산정하여 나온 산출한 값

자료: 통계청(2015), 〈2015 인구총조사〉 '연령 및 성별 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표본(20%)자료 활용함. 2017년의 경우, 자료구득이 어려워서 2015년 자료로 대신함

[부표 1-9] 각 17개 시도별 합계출산물

(단위: 명)

행정구역별	2012년		2015년		2017년	
	50 변환값*	50 변환값*	50 변환값*	50 변환값*	환산값 (평균 = 50)	환산값 (평균 = 50)
서울특별시	1.059	37.7	1.001	36.7	0.836	35.7
부산광역시	1.135	40.4	1.139	41.7	0.976	41.7
대구광역시	1.217	43.4	1.216	44.6	1.067	45.6
인천광역시	1.301	46.4	1.216	44.6	1.007	43.0
광주광역시	1.295	46.1	1.207	44.2	1.053	45.0
대전광역시	1.315	46.9	1.277	46.8	1.075	45.9
울산광역시	1.481	52.8	1.486	54.5	1.261	53.8
세종특별자치시	1.597	56.9	1.893	69.4	1.668	71.2
경기도	1.355	48.3	1.272	46.6	1.069	45.6
강원도	1.374	49.0	1.311	48.1	1.123	47.9
충청북도	1.485	52.9	1.414	51.8	1.235	52.7
충청남도	1.571	56.0	1.480	54.2	1.276	54.5
전라북도	1.440	51.3	1.352	49.6	1.151	49.1
전라남도	1.642	58.5	1.549	56.8	1.325	56.6
경상북도	1.489	53.1	1.464	53.7	1.256	53.6
경상남도	1.503	53.6	1.437	52.7	1.227	52.4
제주특별자치도	1.598	56.9	1.477	54.1	1.305	55.7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동향조사(2000~2017년)>, '시군구/합계출산물, 모의 연령별 출산물' 자료 활용

[부표 1-10] 전국 및 각 17개 시도별 인구

(단위: 명)

행정 구역별	성별	연령별	2012년	2015년	2017년	2030년	2045년
전국	계	계	50,199,853	51,014,947	51,446,201	52,941,342	51,051,159
	계	20세 미만	11,012,807	10,252,151	9,729,062	8,376,418	7,183,928
	남자	20 - 44세	10,018,896	9,876,896	9,693,986	8,078,225	5,981,171
	여자	20 - 44세	9,345,287	9,066,609	8,856,456	7,202,004	5,530,523
	계	45 - 64세	14,056,134	15,278,123	16,091,179	16,329,600	14,176,492
	계	65세 이상	5,766,729	6,541,168	7,075,518	12,955,095	18,179,045
서울특별시	계	계	10,036,273	9,941,162	9,776,305	9,428,800	8,813,150
	계	20세 미만	1,933,862	1,748,101	1,606,728	1,315,173	1,124,379
	남자	20 - 44세	2,111,271	2,003,930	1,913,209	1,543,845	1,127,755
	여자	20 - 44세	2,096,900	1,994,349	1,923,026	1,551,067	1,172,679
	계	45 - 64세	2,866,168	2,985,947	3,037,852	2,806,321	2,467,487
	계	65세 이상	1,028,072	1,208,835	1,295,490	2,212,394	2,920,850
부산광역시	계	계	3,461,881	3,452,260	3,428,923	3,281,203	2,978,044
	계	20세 미만	676,854	616,749	569,127	464,131	370,851
	남자	20 - 44세	647,221	631,607	615,426	463,881	328,637
	여자	20 - 44세	618,060	588,627	571,358	426,982	317,266
	계	45 - 64세	1,096,095	1,120,556	1,133,213	998,976	820,796
	계	65세 이상	423,651	494,721	539,799	927,233	1,140,494
대구광역시	계	계	2,480,493	2,468,755	2,465,268	2,366,938	2,153,737
	계	20세 미만	551,588	499,801	465,886	366,437	297,329
	남자	20 - 44세	477,051	459,672	448,389	347,114	242,088
	여자	20 - 44세	457,075	425,671	410,865	305,678	225,630
	계	45 - 64세	727,992	775,359	803,407	745,590	597,541
	계	65세 이상	266,787	308,252	336,721	602,119	791,149
인천광역시	계	계	2,793,754	2,882,868	2,923,047	3,151,654	3,136,388
	계	20세 미만	628,323	590,181	564,193	507,102	448,094
	남자	20 - 44세	577,990	577,263	568,697	495,864	377,668
	여자	20 - 44세	539,605	532,060	520,505	444,119	349,897
	계	45 - 64세	792,255	879,947	936,156	987,029	892,966
	계	65세 이상	255,581	303,417	333,496	717,540	1,067,763
광주광역시	계	계	1,503,758	1,505,906	1,500,977	1,478,923	1,377,121
	계	20세 미만	378,034	345,083	319,878	256,827	215,658
	남자	20 - 44세	302,651	294,011	285,855	230,675	168,414
	여자	20 - 44세	295,200	282,701	273,165	210,442	158,081
	계	45 - 64세	385,628	420,205	443,682	461,997	384,721
	계	65세 이상	142,245	163,906	178,397	318,982	450,247
대전광역시	계	계	1,540,136	1,542,394	1,531,256	1,556,008	1,523,628
	계	20세 미만	370,779	342,046	307,534	262,739	231,372
	남자	20 - 44세	317,769	307,377	303,886	256,364	192,156
	여자	20 - 44세	303,666	288,056	281,802	230,122	179,783
	계	45 - 64세	408,058	442,938	461,605	465,322	426,198
	계	65세 이상	139,864	161,977	176,429	341,461	494,119

행정 구역별	성별	연령별	2012년	2015년	2017년	2030년	2045년
울산광역시	계	계	1,124,659	1,163,719	1,165,646	1,188,098	1,112,705
	계	20세 미만	271,706	253,150	243,012	206,805	172,690
	남자	20 - 44세	232,950	239,657	232,322	192,940	140,093
	여자	20 - 44세	206,898	203,256	191,669	150,250	115,125
	계	45 - 64세	331,172	368,186	386,442	385,598	328,163
	계	65세 이상	81,933	99,470	112,201	252,505	356,634
세종 특별자치시	계	계	102,157	187,202	275,594	472,914	563,412
	계	20세 미만	22,126	47,298	69,123	118,457	118,379
	남자	20 - 44세	21,249	39,553	58,632	71,876	68,783
	여자	20 - 44세	15,964	36,350	56,576	68,083	64,568
	계	45 - 64세	26,966	43,749	65,807	137,498	149,673
	계	65세 이상	15,852	20,252	25,456	77,000	162,009
경기도	계	계	11,974,482	12,423,017	12,809,379	13,900,568	13,556,370
	계	20세 미만	2,832,400	2,685,729	2,622,036	2,388,338	2,104,342
	남자	20 - 44세	2,510,902	2,515,531	2,513,165	2,222,862	1,679,103
	여자	20 - 44세	2,357,269	2,319,302	2,301,542	1,982,499	1,547,468
	계	45 - 64세	3,180,747	3,621,552	3,951,940	4,342,801	3,864,542
	계	65세 이상	1,093,164	1,280,903	1,420,696	2,964,068	4,360,915
강원도	계	계	1,504,234	1,516,636	1,520,785	1,569,101	1,567,999
	계	20세 미만	322,248	295,638	273,764	221,124	188,572
	남자	20 - 44세	273,569	266,606	260,581	212,870	156,689
	여자	20 - 44세	236,063	226,787	219,917	171,661	130,280
	계	45 - 64세	437,424	474,710	498,231	482,967	411,800
	계	65세 이상	234,930	252,895	268,292	480,479	680,658
충청북도	계	계	1,553,478	1,589,264	1,605,139	1,709,661	1,721,366
	계	20세 미만	350,342	328,770	305,830	268,742	235,009
	남자	20 - 44세	298,517	297,543	296,732	253,291	190,257
	여자	20 - 44세	265,313	258,611	255,338	210,335	164,223
	계	45 - 64세	427,388	475,642	502,526	526,111	469,829
	계	65세 이상	211,918	228,698	244,713	451,182	662,048
충청남도	계	계	2,042,689	2,102,811	2,147,723	2,363,022	2,420,630
	계	20세 미만	455,499	436,113	416,094	391,918	348,145
	남자	20 - 44세	404,582	408,463	410,222	363,721	278,238
	여자	20 - 44세	342,366	341,100	342,293	291,433	231,741
	계	45 - 64세	533,667	587,446	628,205	701,689	647,627
	계	65세 이상	306,575	329,689	350,909	614,261	914,879
전라북도	계	계	1,817,430	1,835,125	1,829,707	1,809,662	1,739,489
	계	20세 미만	408,035	375,629	349,799	278,305	230,604
	남자	20 - 44세	319,644	317,554	308,136	238,394	172,731
	여자	20 - 44세	289,854	282,726	272,229	206,139	153,501
	계	45 - 64세	502,644	538,372	560,282	552,695	452,963
	계	65세 이상	297,253	320,844	339,261	534,129	729,690

행정 구역별	성별	연령별	2012년	2015년	2017년	2030년	2045년
전라남도	계	계	1,782,361	1,796,578	1,795,956	1,787,400	1,740,694
	계	20세 미만	381,565	350,943	335,900	263,857	214,735
	남자	20 - 44세	288,275	290,080	279,688	215,858	156,782
	여자	20 - 44세	248,824	245,670	233,807	176,539	131,281
	계	45 - 64세	507,756	540,225	560,957	559,982	452,670
	계	65세 이상	355,941	369,660	385,604	571,164	785,226
경상북도	계	계	2,655,755	2,677,768	2,681,097	2,693,747	2,588,479
	계	20세 미만	545,676	506,558	475,439	382,220	310,748
	남자	20 - 44세	488,362	477,162	464,748	364,004	258,867
	여자	20 - 44세	421,917	403,670	387,875	289,567	215,372
	계	45 - 64세	765,500	824,570	858,520	832,554	679,854
	계	65세 이상	434,300	465,808	494,515	825,402	1,123,638
경상남도	계	계	3,265,495	3,330,230	3,355,238	3,424,536	3,253,934
	계	20세 미만	743,210	693,612	667,138	547,614	447,700
	남자	20 - 44세	643,367	641,324	621,573	498,585	357,842
	여자	20 - 44세	554,735	537,922	512,862	392,130	294,889
	계	45 - 64세	918,488	1,007,691	1,069,414	1,097,962	905,068
	계	65세 이상	405,695	449,681	484,251	888,245	1,248,435
제주 특별자치도	계	계	560,818	599,252	634,161	759,107	804,013
	계	20세 미만	140,560	136,750	137,581	136,629	125,321
	남자	20 - 44세	103,526	109,563	112,725	106,081	85,068
	여자	20 - 44세	95,578	99,751	101,627	94,958	78,739
	계	45 - 64세	148,186	171,028	192,940	244,508	224,594
	계	65세 이상	72,968	82,160	89,288	176,931	290,291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시·도' '증위추계' 자료 활용

[부표 1-11] 전국 및 각 17개 시도별 P 지수

(단위: %)

행정구역별	성별	연령별	P 지수*				
			2012년	2015년	2017년	2030년	2045년
전국	계	계	98	99	100	103	99
	계	20세 미만	22	20	19	16	14
	남자	20 - 44세	20	19	19	16	12
	여자	20 - 44세	18	17	17	14	11
	계	45 - 64세	27	30	31	32	27
	계	65세 이상	11	13	14	25	35
서울 특별시	계	계	103	102	100	96	90
	계	20세 미만	20	18	16	13	12
	남자	20 - 44세	22	20	20	16	12
	여자	20 - 44세	21	20	20	16	12
	계	45 - 64세	29	32	31	29	25
	계	65세 이상	11	12	13	22	29
부산 광역시	계	계	101	101	100	96	87
	계	20세 미만	20	18	17	14	11
	남자	20 - 44세	19	18	18	14	10
	여자	20 - 44세	18	17	17	12	9
	계	45 - 64세	32	33	32	29	24
	계	65세 이상	12	15	16	27	33
대구 광역시	계	계	101	100	100	96	87
	계	20세 미만	22	20	19	15	12
	남자	20 - 44세	19	19	18	14	10
	여자	20 - 44세	19	17	17	12	9
	계	45 - 64세	30	31	32	30	24
	계	65세 이상	11	13	14	25	32
인천 광역시	계	계	96	99	100	108	107
	계	20세 미만	22	20	19	17	15
	남자	20 - 44세	20	20	20	17	13
	여자	20 - 44세	18	18	18	15	12
	계	45 - 64세	27	30	32	34	31
	계	65세 이상	9	11	11	25	36
광주 광역시	계	계	100	100	100	99	92
	계	20세 미만	25	23	21	17	14
	남자	20 - 44세	20	19	19	16	11
	여자	20 - 44세	20	19	18	14	11
	계	45 - 64세	26	28	30	31	26
	계	65세 이상	9	11	12	21	30
대전 광역시	계	계	101	101	100	102	100
	계	20세 미만	24	22	20	17	15
	남자	20 - 44세	21	20	20	17	13
	여자	20 - 44세	20	19	18	15	12
	계	45 - 64세	27	29	30	31	28
	계	65세 이상	9	11	12	22	32

행정구역별	성별	연령별	P 지수*				
			2012년	2015년	2017년	2030년	2045년
울산광역시	계	계	96	100	100	102	95
	계	20세 미만	23	22	21	18	15
	남자	20 - 44세	20	21	20	16	12
	여자	20 - 44세	18	17	16	13	10
	계	45 - 64세	28	32	33	33	28
	계	65세 이상	7	8	10	22	30
세종특별자치시	계	계	37	68	100	172	204
	계	20세 미만	8	17	25	43	43
	남자	20 - 44세	7	15	21	26	25
	여자	20 - 44세	6	13	21	25	23
	계	45 - 64세	10	16	24	50	54
	계	65세 이상	6	7	9	28	59
경기도	계	계	93	97	100	109	106
	계	20세 미만	22	21	20	19	17
	남자	20 - 44세	20	20	20	18	13
	여자	20 - 44세	18	18	18	15	12
	계	45 - 64세	25	28	31	34	30
	계	65세 이상	8	10	11	23	34
강원도	계	계	99	100	100	103	103
	계	20세 미만	21	19	18	14	12
	남자	20 - 44세	18	18	17	14	10
	여자	20 - 44세	16	15	14	11	9
	계	45 - 64세	29	31	33	32	27
	계	65세 이상	15	17	18	32	45
충청북도	계	계	97	99	100	107	107
	계	20세 미만	22	20	19	17	15
	남자	20 - 44세	19	19	19	16	12
	여자	20 - 44세	16	16	16	13	10
	계	45 - 64세	27	30	31	33	29
	계	65세 이상	13	14	15	28	41
충청남도	계	계	95	98	100	110	113
	계	20세 미만	21	20	20	18	16
	남자	20 - 44세	19	19	19	17	13
	여자	20 - 44세	16	16	16	13	11
	계	45 - 64세	25	28	29	33	30
	계	65세 이상	14	15	16	29	43
전라북도	계	계	99	100	100	99	95
	계	20세 미만	22	21	19	15	13
	남자	20 - 44세	17	17	17	13	9
	여자	20 - 44세	16	15	15	12	8
	계	45 - 64세	27	29	31	30	25
	계	65세 이상	16	18	18	29	40

행정구역별	성별	연령별	P 지수*				
			2012년	2015년	2017년	2030년	2045년
전라남도	계	계	99	100	100	100	97
	계	20세 미만	21	19	19	15	12
	남자	20 - 44세	16	16	16	12	9
	여자	20 - 44세	14	14	13	10	7
	계	45 - 64세	28	30	31	31	25
	계	65세 이상	20	21	21	32	44
경상북도	계	계	99	100	100	100	97
	계	20세 미만	20	19	18	14	12
	남자	20 - 44세	18	18	17	13	10
	여자	20 - 44세	16	15	15	11	8
	계	45 - 64세	29	31	32	31	25
	계	65세 이상	16	17	18	31	42
경상남도	계	계	97	99	100	102	97
	계	20세 미만	22	21	20	16	13
	남자	20 - 44세	19	19	19	15	11
	여자	20 - 44세	1%	16	15	12	9
	계	45 - 64세	27	30	32	33	27
	계	65세 이상	12	13	14	26	37
제주 특별자치도	계	계	88	94	100	120	127
	계	20세 미만	22	21	22	21	20
	남자	20 - 44세	16	17	18	17	13
	여자	20 - 44세	15	16	16	15	12
	계	45 - 64세	23	27	30	39	36
	계	65세 이상	12	13	14	28	46

주*: 2017년 각 광역시·도의 전체인구를 100명으로 산정하여, 비교대상 연도의 인구를 상대적
으로 표기한 수치임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 (1세별, 5세별)/
시·도' 중위추계 자료 활용

[부표 1-12] 연도별 소속 유형 변화(지표 상세표기)

연도	초기그룹	20~44세 여성 비율	20~44세 여성 기혼율	합계출산율	광역시·도 구분	최종 그룹
2012	G1	저	저	고	없음	출산감소 중위험
	G2	저	고	고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충청남도, 진라북도, 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출산감소 중위험
	G3	저	고	저	강원도	출산감소 고위험
	G4	저	저	저	없음	출산감소 고위험
	G5	고	고	저	경기도	출산 회피
	G6	고	고	고	울산광역시	출산 신호
	G7	고	저	고	없음	출산감소 저위험
	G8	고	저	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결혼 회피
2015	G1	저	저	고	충청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출산감소 중위험
	G2	저	고	고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출산감소 중위험
	G3	저	고	저	강원도, 진라북도	출산감소 고위험
	G4	저	저	저	없음	출산감소 고위험
	G5	고	고	저	광주광역시, 경기도	출산 회피
	G6	고	고	고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출산 신호
	G7	고	저	고	없음	출산감소 저위험
	G8	고	저	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결혼 회피
2017	G1	저	저	고	제주특별자치도	출산감소 중위험
	G2	저	고	고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출산감소 중위험
	G3	저	고	저	강원도	출산감소 고위험
	G4	저	저	저	진라북도	출산감소 고위험
	G5	고	고	저	경기도	출산회피
	G6	고	고	고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신호
	G7	고	저	고	없음	출산감소 저위험
	G8	고	저	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결혼회피

[부표 1-13] 정책 도구 유형별 사업리스트(종합)

구분	사업명
정부의 직접공급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놀이기구 교체 엄마건강, 아기사랑 프로젝트 여성결혼 이민자 건강검진 예방접종과 함께 책임기 유축기 대여 임신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임신부 절분제 지원 임신부 할인음식점 지정 운영
정부의 교육사업	기업과 함께하는 출산장려 지원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 교육 여성 지도자 연수교육 예방접종과 함께 책임기 임신·출산·영유아 부모교육 출산준비교실 운영
정보제공	엄마건강, 아기사랑 프로젝트 예방접종과 함께 책임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홍보 취업박람회
근로제도	계약제교원 운영 유연근무제 활성화 육아휴직자 업무대행수당 지급 저출산 분야 계약제직원 인건비
보조금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 교과서 지원 교육개혁추진(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농가도우미 지원 누리과정 지원 시설아동 사회적응훈련비 아이 돌봄 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임신부 개인택시 풀 요금 면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양육·교육비 및 생활안정지원 저출산 분야 교직원 복지대여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확대 학기 중 급식비 지원 학생건강증진관리 학생현장체험학습 지원
직접/서비스공급자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작은 결혼식 확산)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 교육 복지 우선지원 사업 다문화 가정 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돌봄 유치원 운영 방과 후 학교 운영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인 대회 지원 보육특수시책 지원 사업 사교육비 절감 및 영어의사소통기회 확대 사이버학습 운영 및 지원

구분	사업명
직접/서비스공급자	새싹한마음 가족축계 시설보호아동 수련활동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아이 돌봄 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어려운 아동 간식비 어려운 아동 지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어린이집 교사 시책교육 어린이청소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 여성봉사단 주관행사 여성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여성회관 운영관리 위기가족 상담프로그램 운영 유아교육투자확대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육아 종합 지원센터 지원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지역 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공동육아나눔터) 지역 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역아동센터 직무연찬회 지역아동센터 하계수련활동 직업적성검사 실시 및 진로방향 설계 진로직업체험활동 활성화 진로진학 교육(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복교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청소년육성지원 청소년육성행사 체육꿈나무 육성사업 퇴소아동 지원 특수교육 복지지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평생학습 프로그램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운영 지원 학생-원아보호인력 운영 학생건강증진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
간접보조	없음
바우처	맘 편한 산후조리지원 사업(신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방과 후 학교 운영 임신부 기형아 검진비 지원 특수치료를 위한 미술치료사업 실시
기타	세종, 행복 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설치(신규) 아동친화도시 조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합의 및 정책추진체계 구축(2016년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총괄조직 및 위원회 설치)

주: 본문 [표 4-2] 세종시 정책 도구 유형별 저출산 정책 유형화 참조

자료: 세종시 내부자료(각 년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시행계획> 2013~2018년 자체사업 재구성

[부표 1-14] 정책 지원 분야별 사업리스트(종합)

구분	사업명
임신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세종, 행복 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설치(신규) 엄마건강, 아기사랑 프로젝트 임신·출산·영유아 부모교육 임신부 개인택시 콜 요금 면제 임신부 기형아 검진비 지원 임신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임신부 철분제 지원 임신부 할인음식점 지정 운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홍보 출산준비교실 운영
출산지원	계약제교원 운영 농가도우미 지원 맘 편한 산후조리지원 사업(신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세종, 행복 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설치(신규) 아이 돌봄 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엄마건강, 아기사랑 프로젝트 유축기 대여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육아휴직자 업무대행수당 지급 임신·출산·영유아 부모교육 저출산 분야 계약제직원 인건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홍보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출산준비교실 운영
자녀양육	계약제교원 운영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 공무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 기업과 함께하는 출산장려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누리과정 지원 맘 편한 산후조리지원 사업(신규) 보육교사 처우개선 보육인 대회 지원 보육특수시책 지원 사업 새싹한마음 가족축제 세종, 행복 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설치(신규) 시설아동 사회적응훈련비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이 돌봄 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어려운 아동 간식비 어려운 아동 지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놀이기구 교체 어린이집 교사 시책교육 엄마건강, 아기사랑 프로젝트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방접종과 함께 책읽기 유연근무제 활성화 유축기 대여 육아 종합 지원센터 지원 육아휴직자 업무대행수당 지급 임신·출산·영유아 부모교육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저소득 한 부모가족 양육·교육비 및 생활안정지원

구분	사업명
자녀양육	<p>저출산 분야 계약제직원 인건비 저출산 분야 교직원 복지대여 지역 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공동육아나눔터) 지역 사회 내 돌봄 여건 확충 특수치료를 위한 미술치료사업 실시 퇴소아동 지원</p>
자녀교육	<p>교과서 지원 교육개혁추진(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다문화 가정 학생 맞춤형 지원 확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돌봄 유지원 운영 방과 후 학교 운영 사교육비 절감 및 영어의사소통기회 확대 사이버학습 운영 및 지원 세종, 행복 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설치(신규) 시설보호아동 수련활동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 교육 아동친화도시 조성 어린이청소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 여성·결혼 이민자 건강검진 유아교육투자확대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육아종합 지원 센터 지원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임신·출산·영유아 부모교육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양육·교육비 및 생활안정지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역아동센터 하계수련활동 직업적성검사 실시 및 진로방향 설계 진로직업체험활동 활성화 진로진학 교육(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복교지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수련활동 지원 청소년육성지원 청소년육성행사 체육꿈나무 육성사업 특수교육 복지지원 특수교육 여건 개선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확대 특수치료를 위한 미술치료사업 실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인프라 구축 평생학습운영 지원 학기 중 급식비 지원 학생원아보호인력 운영 학생건강증진관리 학생현장체험학습 지원</p>
결혼 및 정주여건	<p>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작은 결혼식 확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아동친화도시 조성 행복주택 건립사업</p>

구분	사업명
가정생활(위기가정, 일-가정양립, 다문화·입양가정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다문화 가정 학생 맞춤형 지원확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 육성 세종, 행복 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설치(신규)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기가족 상담프로그램 운영 유연근무제 활성화 육아종합 지원센터 지원 입양가족 양육지원 확대
일자리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다문화가족의안정적정착을위한맞춤형서비스확대 세종, 행복 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설치(신규) 아이 돌봄 서비스 확충 및 내실화 여성봉사단 주관행사 여성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여성 지도자 연수교육 여성회관 운영관리 취업박람회
기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합의 및 정책추진체계 구축(2016년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총괄조직 및 위원회 설치) 지역아동센터 직무원찬회

주: 본문 [표 4-3] 세종시 정책지원 분야별 저출산 정책 유형화 참조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08
www.dsi.re.kr

ISBN 979-11-6075-087-4 93330